

Jeonbuk State Institute

기획연구

2025-07

#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Policy Roadmaps to Re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in Jeonbuk

고희운 이덕원 정미선



##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연구진 소개

### 고희운

부산대학교 경영학(재무관리)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이역원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정미선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기획연구

2025-07

#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Policy Roadmaps to Re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in Jeonbuk

고희운 이역원 정미선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

연구 책임 고희운 | 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 ~ 5장  
공동 연구 이덕원 | 석좌연구위원 | 연구 자문  
정미선 | 연구원 | 제2장 일부, 4장 1절

---

연구관리 코드 : 25GI1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연구목적 및 방법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스타트업기업의 수도권 편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비중은 평균 72% 수준으로 나타남
  - '23년 기준, 수도권에 창업기업이 대략 75%가 위치하며,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65.5%, 충청권으로 27.6%의 비중으로 이동함
- 비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 비중이 높고, 민간 투자 기반이 취약하여 자생력이 부족한 실정
  - '24년 기준, 벤처투자실적은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68.5%이고, 전북은 0.58%에 불과함
- 민간 주도의 자생적 창업과 산업 연계성 강화, 투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스타트업 선순환 구조의 안정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둠

### 2) 연구 방법

- (스타트업 생태계 정의와 현황) 스타트업의 생태계 정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정책 현황을 분석함
- (생존·성장 결정요인 분석) 스타트업의 생존·성장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검토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비수도권의 특성을 파악함
- (진단 및 결론) 전북의 투자실태 분석, 심층인터뷰 및 델파이분석을 통한 문제점·개선 방안을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전북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

## 2. 결론 및 정책제언

### 1) 연구종합

- 전북은 창업기업 수 비중의 확대 추세와 우수한 초기 생존율을 보이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 존재
- 지자체 중 창업지원 예산이 높은 수준이며 우수한 하드웨어 보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생태계가 열악하여 민간 투자 자본의 유입이 제한적임
-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성장·생존을 살펴보았을 때, 초기에 VC를 통한 투자 노출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 주도의 초기 보육 위주의 프로그램 개선, 사업화·시장성의 고도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
- 전북의 스타트업 투자생태계는 기업 수와 고용 측면의 양적 기반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으나, 초기 창업 유입 부족, 외부 투자 연계 미흡, 재무·지분 구조의 폐쇄성, 공공 의존적 매출 구조, R&D 인력 취약성 등이 중첩되며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

### 2) 정책적 제언

- 전북은 성장 단계별 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 구조의 정교화, 민간 투자자 참여를 전제로 한 지분·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공공 의존형 성장에서 민간·글로벌 시장 기반 성장으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함
- 전북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함
  - (전략1) 투자 가능 기업의 밀도 확대 전략: 초기 단계부터 투자·성장·회수 전제로 설계를 통한 육성
  - (전략2) 민간 LP가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구조 설계
  - (전략3) 투자 주체 육성 정책의 병행
  - (전략4) 오픈 투자정보 플랫폼 기반 회수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차 례

## CONTENTS

---

요 약	i
-----	---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및 체계	7
3. 연구 주요 내용	9

---

### 제2장 스타트업 생태계 정의 및 현황

1. 스타트업 생태계 정의	17
2.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23
3.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36
4. 정책 현황	47
5. 소결	62

<hr/>	
<b>제3장</b>	<b>스타트업의 생존 결정요인 분석</b>
1. 분석 개요 .....	67
2. 실증분석 .....	76
3. 소결 .....	84
<hr/>	
<b>제4장</b>	<b>전북 투자생태계 진단</b>
1. 전북 스타트업 투자 실태 분석 .....	89
2. 문제점 도출을 위한 심층인터뷰 .....	131
3.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델파이 분석 .....	137
4. 소결 .....	146
<hr/>	
<b>제5장</b>	<b>종합 및 결론</b>
1. 연구 요약 .....	151
2. 전북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53
<b>참고문헌</b> .....	156
<b>영문요약 (Summary)</b> .....	161
<b>부록</b> .....	165

## 표 차례

### LIST OF TABLES

---

〈표 1-1〉 권역 간 스타트업 이동 양상 .....	3
〈표 1-2〉 벤처투자 실적 추이 .....	4
〈표 1-3〉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연도별 조성계획 .....	6
〈표 1-4〉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연도별 펀드 조성규모(안) .....	6
〈표 1-5〉 정보조사 분석자료 개요 .....	8
〈표 1-6〉 전북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심층조사 개요 .....	9
〈표 1-7〉 전북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	9
〈표 2-1〉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	20
〈표 2-2〉 Isenberg(2011)이 정의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요소 .....	20
〈표 2-3〉 서울 Vision 2030펀드 목표 금액 .....	24
〈표 2-4〉 테크네이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32
〈표 2-5〉 지역별 창업기업 현황 .....	36
〈표 2-6〉 지역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현황 .....	37
〈표 2-7〉 전북 주축산업 구분에 따른 코드 분류 .....	39
〈표 2-8〉 전북자치도 주축산업 분야별 사업체 변화 .....	40
〈표 2-9〉 지역별 신생기업 생존율(2022년 기준) .....	41
〈표 2-10〉 지역별 벤처투자현황('21년~'24년) .....	43
〈표 2-11〉 창업 생태계 현황 .....	45
〈표 2-12〉 중앙부처 추진 부처별 분야별 스타트업 지원사업('25년 기준) .....	53
〈표 2-13〉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25년 기준) .....	54
〈표 2-14〉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23년~'25년 기준) .....	59
〈표 2-15〉 전북 유형별 창업지원사업 및 예산('25년 기준) .....	60
〈표 2-16〉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창업지원사업 현황('25년 기준) .....	61
〈표 3-1〉 스타트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	68
〈표 3-2〉 투자유치가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69

〈표 3-3〉 기존 창업투자주체와 액셀러레이터의 비교 .....	71
〈표 3-4〉 벤처캐피탈의 주요 역할 .....	73
〈표 3-5〉 초기생존 결정요인의 기초통계량 .....	78
〈표 3-6〉 최종생존 결정요인의 기초통계량 .....	80
〈표 3-7〉 초기 투자유치 결정요인 분석 결과 .....	82
〈표 3-8〉 시리즈A 투자유치 결정요인 분석 결과 .....	83
〈표 4-1〉 벤처기업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분포 .....	90
〈표 4-2〉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재무현황 .....	94
〈표 4-3〉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매출 구조 .....	98
〈표 4-4〉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지분구조 .....	101
〈표 4-5〉 업력별, 업종별, 성숙단계별 직종별 종사자수 .....	105
〈표 4-6〉 지역별 고용 애로 직무 .....	107
〈표 4-7〉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신규자금조달 규모와 비중 .....	109
〈표 4-8〉 업력별, 업종별, 성숙단계별 투자처별 투자 현황 .....	112
〈표 4-9〉 업력별, 업종별, 성숙단계별 스톡옵션 활용 현황 .....	115
〈표 4-10〉 지역별 스톡옵션 미활용 사유 .....	117
〈표 4-11〉 업력별, 업종별, 성숙단계별 투자유치 경험 .....	119
〈표 4-12〉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벤처캐피탈 도움 만족도 .....	121
〈표 4-13〉 지역별 인수합병 경험 및 의향 .....	122
〈표 4-14〉 벤처기업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경영성과 비교 .....	124
〈표 4-15〉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	128
〈표 4-16〉 심층 인터뷰 참여자 정보 .....	131
〈표 4-17〉 시장 요인의 문제점 .....	132
〈표 4-18〉 인적자원 요인의 문제점 .....	133
〈표 4-19〉 자금조달 요인의 문제점 .....	134
〈표 4-20〉 지원체계 요인의 문제점 .....	134
〈표 4-21〉 정책·거버넌스 요인의 문제점 .....	135
〈표 4-22〉 문화 요인의 문제점 .....	136
〈표 4-23〉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 .....	138

〈표 4-24〉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39
〈표 4-25〉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문제점 조정 결과 .....	140
〈표 4-26〉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결과 .....	141
〈표 4-27〉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42
〈표 4-28〉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문제점 조정 결과 .....	143
〈표 4-29〉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문제점별 개선방안 조사 결과 .....	144
〈표 4-30〉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조정 결과 .....	145

## 그림 차례

### LIST OF FIGUR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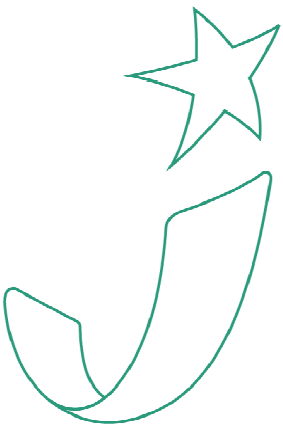
〈그림 1-1〉 국내외 스타트업 클러스터 .....	11
〈그림 1-2〉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 2024 .....	11
〈그림 2-1〉 Isenberg의 스타트업 생태계 영역 .....	19
〈그림 2-2〉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삼성경제연구소) .....	21
〈그림 2-3〉 벤처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참여 메커니즘 .....	22
〈그림 2-4〉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운영 현황 .....	24
〈그림 2-5〉 경기도 G-펀드 조성 현황 .....	25
〈그림 2-6〉 부산 창업촉진지구 지정 대상지 .....	27
〈그림 2-7〉 울산 창업생태계 .....	29
〈그림 2-8〉 SBIR/STTR 투자 방식 .....	31
〈그림 2-9〉 지역별 벤처투자현황 순위변화('21년~'24년) .....	42
〈그림 2-10〉 국가 창업기업지원 정책 동향 .....	48
〈그림 2-1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	50
〈그림 2-12〉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 .....	51
〈그림 2-13〉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정책방향 및 실행전략 .....	52
〈그림 2-14〉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	56
〈그림 2-15〉 창업통합정보서비스 플랫폼 운영 현황 .....	57
〈그림 2-16〉 민선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방향 .....	58
〈그림 3-1〉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건인 요인 .....	68
〈그림 3-2〉 스타트업 투자유치 사이클 .....	75



# 제 1 장

##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체계
3. 연구 주요 내용





# 제1장 연구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 ■ 스타트업 기업의 수도권 편중화 가속

- 수도권에서 일부 스타트업기업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수도권 지역 간 스타트업 기업의 이동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타트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 비중은 65.5~84.4%이고, 수도권으로 이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권(84.4%), 강원권(78.9%)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이 속한 호남권의 경우, 수도권으로 65.5%, 충청권으로 27.6%의 비중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기준, 중기부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창업기업의 75%가 위치함
  - 벤처투자 실적은 '20년부터 '2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벤처투자 실적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8.5%( '2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벤처투자를 많이 받은 국내 지역은 대전(6.43%), 부산(2.78%), 경북(2.64%), 충남(2.27%), 충북(1.80%) 등의 순이며 전북은 0.58%에 불과함

[표 1-1] 권역 간 스타트업 이동 양상

전입지 전출지	강원	대경	동남	수도	제주	충청	호남
강원	-	15.8%	0%	78.9%	0%	5.3%	0%
대경	0%	-	11.1%	66.7%	0%	17.8%	4.4%
동남	4.3%	8.5%	-	66.0%	4.3%	12.8%	4.3%
수도	10.0%	15.9%	16.6%	-	7.8%	38.9%	10.9%
제주	4.8%	9.5%	0%	71.4%	-	4.8%	9.5%
충청	0%	5.5%	4.7%	84.4%	0.8%	-	4.7%
호남	0%	0	6.9%	65.5%	0%	27.6%	-

자료: 지역 간 스타트업 이동 현황과 과제(스타트업얼라이언스)

[표 1-2] 벤처투자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2024)
서울	21,831	43,244	37,445	25,574	30,787	46.43%
경기	8,397	13,071	11,280	9,600	12,954	19.53%
인천	758	1,358	760	879	1,694	2.55%
부산	1,189	1,228	1,370	1,241	1,842	2.78%
대구	343	628	590	956	998	1.50%
광주	294	573	424	534	872	1.31%
대전	2,585	4,364	3,606	3,475	4,263	6.43%
울산	345	343	701	107	448	0.68%
강원	354	599	164	377	467	0.70%
경남	369	443	689	302	680	1.03%
경북	996	1,147	1,167	2,070	1,750	2.64%
전남	126	490	33	99	174	0.26%
<b>전북</b>	<b>266</b>	<b>730</b>	<b>587</b>	<b>433</b>	<b>383</b>	<b>0.58%</b>
제주	378	375	499	194	278	0.42%
충남	761	991	1,141	1,189	1,506	2.27%
충북	489	608	610	1,998	1,194	1.80%
세종	162	277	310	173	42	0.06%
기타/해외	3,403	6,335	6,264	4,774	5,984	9.02%
합계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100%

자료 : 벤처투자종합포털('24.12.31 기준)

주) 벤처투자(벤처투자회사고유계정+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투자실적 통계임

## ■ 스타트업 생태계 인프라 편중

- 스타트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은 스타트업 라이프사이클의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 요소(시장, 인재, 자본,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임
  - 수도권은 민간 중심의 고도화된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 연계성, VC 등이 밀집되어 자본조달의 용이 등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
  - 창업-투자-스케일업-회수에 이르는 스타트업 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 수도권에서는 선순환이 가능한 구조적인 이점이 존재함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투자를 받으면 본사 혹은 연구소 등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유입이 발생하나, 성장단계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
- 전북은 지역의 창업지원에 적극적이거나, 창업 이후 성장 또는 유지단계에서 수도권 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생태계 기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1조 조성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기에, 전북으로 이전한 스타트업이 지역에 자리매김하여 성장하고 산업 연계성을 강화하며 지역경제로 환원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조성이 시급
  - 특히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창업 후 최초 흑자까지 평균 4년 정도가 소요되고, 상장까지는 1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VC펀드들은 평균 만기 7~8년으로 투자 기간 4년, 회수기간 4년의 구조로 운영 중

## 나. 연구목적

### ■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 논의

- 지방 스타트업 생태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창업 보육 프로그램 비중이 높고, 민간 투자 기반이 취약하여 자생력이 부족한 실정
  - 전북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 존재
- 특히 전북은 수도권 대비 벤처투자에 대한 기회가 제한적이며, 대·중견기업 등 산업계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인재의 유입 및 기술 창업 비율이 낮아 대체로 공공 주도형 창업이 다수인 실정임
- 민간 주도의 자생적 창업과 산업 연계성 강화, 투자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스타트업 선순환 구조의 안정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함

[표 1-3]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억원)

분야별	민선 8기						기 조성 (~'22,上)	누 계
	계	'22년(下)	'23년	'24년	'25년	'26년		
조성액	10,000	606	2,104	2,130	2,610	2,550	2,104	12,104
도 출자	840	20	200	210	230	180	206	1,046
지역기업	160	3	55	35	35	32	98	258

[표 1-4]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연도별 펀드 조성규모(안)

(단위: 억원)

출자 분야		민선8기						
		비율	계	'22년(下)	'23년	'24년	'25년	'26년
전북 (중소기업육성기금)		100%	10,000	606	2,104	2,130	2,610	2,550
신규	지역 母펀드	11.8%	1,184	-	1,184	-	-	-
	스케일업 펀드	18.0%	1,800	-	800	400	300	300
	세컨더리 펀드	10.9%	1,090	-	-	80	480	530
	지역발전 협력 펀드	12.0%	1,200	-	-	400	400	400
확대	창업벤처 지원펀드	36.1%	3,606	606	120	750	1,430	700
	소재부품·장비 펀드	11.2%	1,120	-	-	500	-	620

### ■ 기업 생애주기에 맞는 생태계 활성화 지원 방향 도출

- 창업-성장-회수에 맞춰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진단을 함으로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도출하고자 함
  -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업들만으로는 유지나 성장이 어려우며, 생산자(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소비자(벤처 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분해자(코스닥, M&A) 등의 생태계 구성요소와 그 외 환경적 구성요소의 상호 작용이 성장의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사례 연구를 통해 전북의 창업 실태와 지원 정책 등을 고려하여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창업-성장-회수의 시장요소에 맞춰 전략적 지원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 2. 연구 방법 및 체계

### 가.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대상은 전북 스타트업의 실태 진단과 생존 및 성장의 결정요인이라는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전북도 내 스타트업 기업으로 설정하였으나,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특성과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현황을 포함함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2024년의 최근 3년 간으로 설정함
  -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최근 시점에 해당하나, 스타트업의 특성 상 기업별 데이터 접근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황 조사 기반 자료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나. 연구 방법

####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의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정보조사, 추론통계로 구분함
- 먼저, 문헌조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태계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첫째,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된 법률을 조사하여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 국내외 및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계획과 보도자료, 기타 정책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며, 셋째,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한 학술 및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연구의 차별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보조사는 스타트업 생태계 여건 분석을 위해 관련 통계 자료를 활용한 기본적인 현황 진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실태조사와 벤처실태정밀조사(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함

- 추론통계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생존과 성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그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연구목적에 맞도록 분석모형과 분석 지표를 설정하고, 분석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 및 추론통계를 수행하였음

[표 1-5] 정보조사 분석자료 개요

구분	자료	제공시기	제공기관	비고
생태계 현황	창업기업실태조사	2023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생태계 여건 분석에 활용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2024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생태계 여건 분석에 활용
결정요인 분석	비수도권 스타트업 DB	2025	혁신의 숲	비수도권 스타트업 생존과 성장 결정요인 분석에 활용

- 비수도권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생존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고자 스타트업의 생존의 결정요인을 단계별로 살펴봄
  - 초기생존 및 최종생존에 대한 단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요인별 영향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책적 개선방안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백업자료로 활용함

## 2) 심층 조사 및 전문가 자문

- 심층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은 통계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의 실태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전북 투자생태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심층 조사의 경우, 전북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1:1 면담 조사를 중심으로 하였음
  - 해당 조사는 전북 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이하 AC)와 벤처캐피털(이하 VC)을 대상으로, 전북 스타트업 투자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자 수행하였음
- 전문가 자문은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여건과 쟁점, 분석 결과의 타당성,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문가 자문 대상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도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내 정책 동향과 지역의 실태를 함께 반영하고자 하였음

[표 1-6] 전북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심층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전북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진단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조사기간	2025년 11~12월 중	
조사대상	도내 AC 및 VC	
조사방법	도내 스타트업 대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AC 및 VC를 대상으로 한 1:1 심층 조사	
조사내용	전반적 현황, 6대 요소별 심층 분석, 핵심 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실태진단 및 정책수요

- 심층조사를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와 해결방안을 기반으로 두 차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생태계의 중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표 1-7] 전북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조사목적	전북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 방안 도출	
조사기간	2025년 12월 중	
조사대상	연구기관, 정책추진기관, 도내 AC 및 VC 현장전문가	
조사방법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전문가 대상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실시	
조사내용	분야별 문제점과 문제점별 중요도, 문제점별 개선방안과 개선방안의 적정도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 3. 연구 주요 내용

#### 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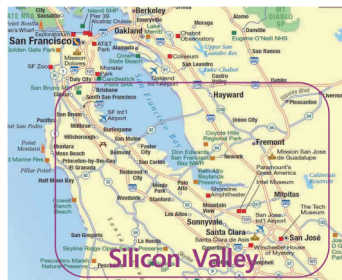
##### 1) 스타트업 생태계의 정의와 동향

- 스타트업 생태계는 일반적으로 ‘창업자, 대학 및 연구소 등 창업지원 기관과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으로 정의

- Isenberg(2011)는 창업생태계를 정책, 자금, 문화, 지원, 인적자본, 시장의 6개 요인에 대한 주요 이해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함
-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 활동의 근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가적 사회를 자극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임(Hechavarria and Ingram, 2014)
- 삼성경제연구소(1998)의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에서 국내 벤처생태계의 개념을 처음 사용함
  - 첫째, 벤처는 주인의식과 고유성을 가진 자발적 주체로서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유기체이며, 생존·이익창출에 대한 욕구와 활발한 성장·진화·융합·분화 등 자기증식을 특성으로 함
  - 둘째, 시장원리와 적자생존에 철저하고, 이합집산을 통한 창조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 셋째, 대내외 개방 및 느슨한 연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획득과 자원조달에 강점을 갖고 있음
  - 넷째, 개인 또는 집단들이 아이디어, 사업기회 창출, 자금·경영지원 등과 관련하여 각자 핵심역량을 갖고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위험과 성과를 배분함
  - 다섯째, 변화를 지향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실패에 관대하고, 행동과 극한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짐
- 윤종연(2000)은 생물공동체와 이를 지탱하는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한 지역의 벤처기업과 그 환경의 종합시스템이라 언급함
- 한정화(2000)은 지식, 정보, 인력, 자금의 창출·공유·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시스템
- 설성수 외(2002)는 벤처기업의 성장·진화·융합·분화가 이뤄지는 자기증식 시스템
- 이철우(2004)는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을 말하며, 서로 균형을 이뤄 초기단계부터 점차적으로 성숙해 감
- 지원 정책 동향
  - 창업부터 보육, 성장, 회수 등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분석
  - 지역의 창업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지역 맞춤형 창업 생태계 구축 등의 지원정책 검토

## 2)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사례
  -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등의 국내 광역지자체의 스타트업 생태계 사례를 조사
-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사례
  -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2024」 상위에 랭크된 미국 실리콘 밸리, 영국 런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싱가포르, 일본 도쿄 등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조사



[미국 실리콘 밸리]



[영국 테크시티]

[그림 1-1] 국내외 스타트업 클러스터

ECOSYSTEMS	OVERALL RANKING	PERFORMANCE	FUNDING	TALENT & EXPERIENCE	MARKET REACH	KNOWLEDGE	IMPROVEMENT FROM GSER 2023
SILICON VALLEY	1	10	10	10	10	9	
LONDON	2 (tied)	10	10	10	10	10	
NEW YORK CITY	2 (tied)	10	10	10	10	8	
TEL AVIV	4 (tied)	10	8	9	10	7	⊖ +1
LOS ANGELES	4 (tied)	9	10	9	9	6	
BOSTON	6	9	9	10	9	7	
SINGAPORE	7	8	9	8	10	1	⊖ +1
BEIJING	8	10	6	10	9	10	
SEOUL	9	9	10	9	7	9	⊖ +3
TOKYO	10	8	7	8	9	10	⊖ +5
SHANGHAI	11	9	5	9	6	10	
WASHINGTON, D.C.	12	8	6	7	8	6	
THE NETHERLANDS	13	6	8	7	8	6	⊖ +1
PARIS	14	5	9	6	7	7	⊖ +4
BERLIN	15	5	8	7	7	3	
MIAMI	16	7	7	3	8	1	⊖ +7
CHICAGO	17	8	5	7	5	5	⊖ +2
TORONTO-WATERLOO	18	4	8	6	6	5	
SAN DIEGO	19	7	1	6	7	7	
SEATTLE	20	6	6	8	3	4	

자료 :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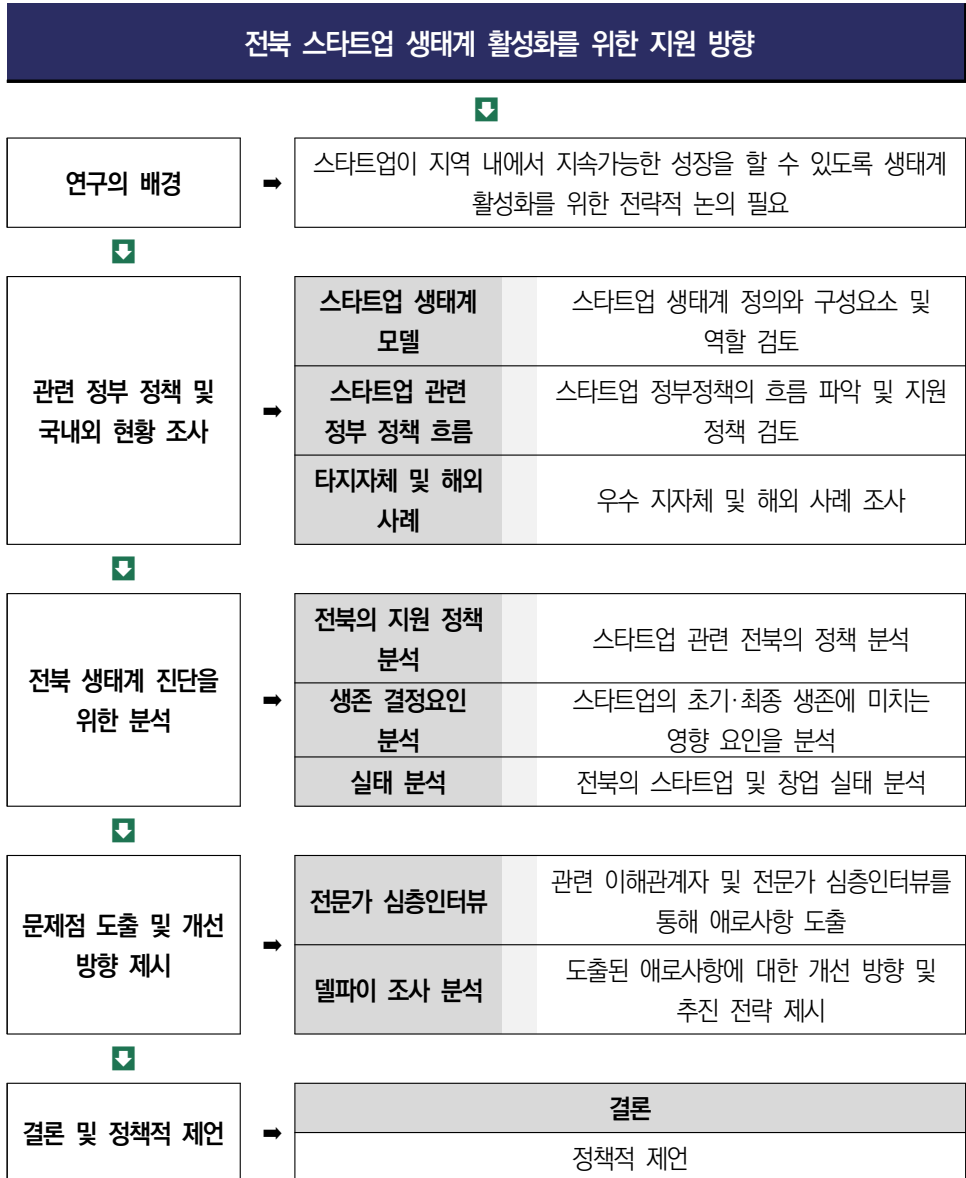
[그림 1-2]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랭킹 2024

---

### 3)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 및 개선 방향 제언

- 주어진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북의 스타트업 및 창업 실태 분석함
-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도출한 후, 델파이 조사 분석을 수행하여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함
- 전북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종합적인 전북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의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
  - 각 핵심 전략에 따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행제고 전략을 제시함

## 나. 연구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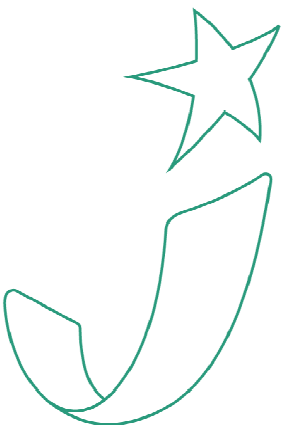




## 제 2 장

### 스타트업 생태계의 정의 및 현황

1. 스타트업 생태계의 정의
2.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3.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4. 정책현황
5. 소결





## 제 2 장 스타트업 생태계의 정의 및 현황

### 1. 스타트업 생태계 정의

#### 가. 스타트업 생태계 개념

##### ■ 스타트업의 개념

- 스타트업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조직형태를 의미
  - Moogk(2012)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조직이며,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직의 규모나 형태 등에 상관없이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
  - 조길수(2017)는 “첨단기술 또는 전에 없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립되어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을 뜻하며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 투자기관의 투자를 유치받았거나 유치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고 정의
  - 이서한 외(2014)의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을 유연하게 변화하는 조직 규모와 가변적인 규모를 지닌 조직으로 설명하며 다양한 산업과 사업 영역에서 축적된 아이디어와 지식이 결합되는 특징을 가지며,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집단 또는 프로젝트 단위의 조직으로 봄
  - 전해영(2016)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반하여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한다”고 정의
  - 황세희 외(2020)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신생기업”을 스타트업으로 정의

##### ■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념

- 생태계(ecosystem)라는 개념은 1990년대 이후 경제학 분야에서 산업생태계와 혁신생태계를 설명하는 틀로 확장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Moore(1996)는 비즈니스 생태계(ecosystems of business) 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 생태계(ecosystems for start-ups)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함

-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을 지원 및 투자하는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으로 정의되고 있음
  - 정대용·김영수(2000)는 창업생태계를 창업기업, VC, 회수시장 등으로 구성된 핵심요소, 법·제도 대학, 연구기관, 벤처보육센터, 대기업 등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반 요소, 그리고 정부와 해외 벤처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 Cohen(2006)는 지역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와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였음
  - 벤처생태계 자체의 개념 설정과 참여자 역할 정의 등에 중점을 둔 연구뿐만 아니라, 혁신클러스터와 기업가 활동에 대한 연구 (Almeida & Kogut, 1999; Delgado et al., 2010; Porter, 2000) 및 네트워크 관점의 연구에서도 창업생태계 개념을 다루었음(Sorenson & Stuart, 2001)
  - Isenberg(2010)에 의해 본격화 된 지역 중점의 창업생태계 논의는 창업 활성화에 있어서 커뮤니티가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킴
    - 미국 Babson College의 The Babson Entrepreneurship Ecosystem Program(BEEP)의 일환으로 진행된 Isenberg(2010)의 연구는 기업 활동에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론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말함
    - ‘커뮤니티’는 기업가(창업자)에 대한 생태계 참여자들의 감정의 측면(culture)과 금전적 측면(finance)의 보조를 비롯하여 창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정책(policy), 교육(human capital), 그리고 경제적 환경을 포괄함
- 삼성경제연구소(1998)의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에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념을 처음 사용함
  - 첫째, 벤처는 주인의식과 고유성을 가진 자발적 주체로서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유기체이며, 생존·이익창출에 대한 욕구와 활발한 성장·진화·융합·분화 등 자기증식을 특성으로 함
  - 둘째, 시장원리와 적자생존에 철저하고, 이합집산을 통한 창조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 셋째, 대내외 개방 및 느슨한 연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획득과 자원조달에 강점을 갖고 있음
  - 넷째, 개인 또는 집단들이 아이디어, 사업기회 창출, 자금·경영지원 등과 관련하여 각자 핵심역량을 갖고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위험과 성과를 배분함
  - 다섯째, 변화를 지향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실패에 관대하고, 행동과 극한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짐

- 그 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정의들이 다뤄짐
  - 윤종언(2000)은 생물공동체와 이를 지탱하는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자연생태계와 마찬가지로 한 지역의 벤처기업과 그 환경의 종합시스템이라 언급함
  - 한정화(2000)은 지식, 정보, 인력, 자금의 창출·공유·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시스템
  - 설성수 외(2002)는 벤처기업의 성장·진화·융합·분화가 이뤄지는 자기증식 시스템
  - 이철우(2004)는 기업과 기업을 둘러싼 물리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을 말하며, 서로 균형을 이뤄 초기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성숙해 감



[그림 2-1] Isenberg의 스타트업 생태계 영역

## 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

-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에는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각 요소들이 절대적 영향을 갖기보다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이상적 조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스타트업 성공 및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함

[표 2-1]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Isenberg (2011)	- 정부 정책, 재정 자본, 초기 고객 및 네트워크 등 시장, 사회적 관습 등 문화, 지원(인프라 등), 인적 자본
Bates et al. (2007)	- 시장 기회 인식과 활용, 자금, 인적자원 접근성
Stam (2015)	- 시스템 조건 (기업가 네트워크, 리더십, 금융, 인재, 지식, 지원 서비스) - 프레임워크 조건 (공식적인 제도 및 비공식적 문화, 물적 인프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Haines (2016)	- 문화, 네트워크, 이해관계자 참여, 교육 및 연구기관, 투자자
Tripathi et al.(2019)	- 금융, 인구통계, 시장, 교육, 인적자본, 기술, 기업가, 지원요소
Kapoor et al.(2019)	- 시장, 펀딩, 네트워크, 기업가적 문화, 인적 자본, 호의적 정책, 도시 특성, 교육 및 연구 기관
Startup Genome (2021)	- 펀딩, 시장 접근, 연결성, 재능(기술, 생활 과학, 경험), 지식(연구 및 특허),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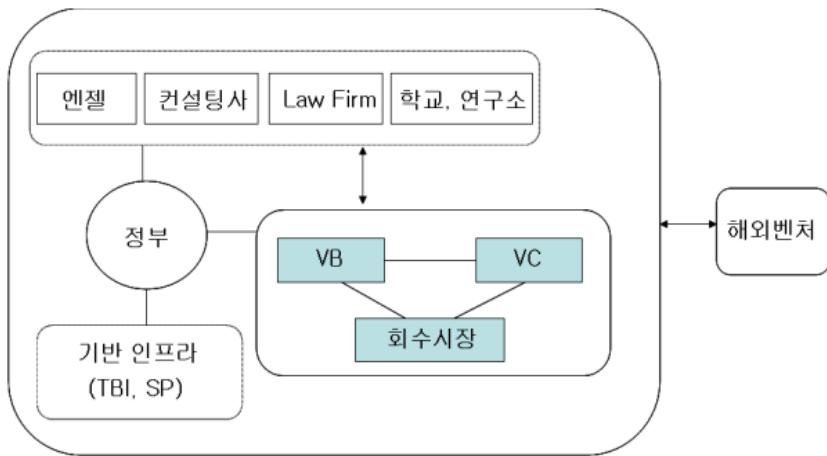
자료 : 김기만 외(2022), 박문수 외(2023)

[표 2-2] Isenberg(2011)이 정의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요소

영역	세부영역	내용
정책 (Polcy)	정부	- 재정 지원(예, R&D지원, 스타트업펀드), 창업친화적 규제(예, 파산, 계약, 특허권)
금융 (Finance)	금융자본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VC), 공공자본시장
문화 (Cultrue)	성공스토리	- 창업 성공스토리 전파, 기업가의 사회적 위상
	사회적 규범	- 위험, 실수, 실패에 대한 관용, 혁신, 창의성, 실험
지원 (Supports)	민간기관	- 기업가정신 촉진, 비즈니스 플랜 경연, 컨퍼런스
	지원 전문가	- 법률, 회계 투자자, 기술 전문가, 어드바이저
	인프라	- 클러스터, 교통, 인큐베이터 센터
인적자원 (Human Capital)	노동력	- 숙련/비숙련 근로자, 연쇄 창업자
	교육기관	- 창업자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전문교육, 학위과정
시장 (Markets)	초기 고객	- 얼리어답터, 제품화에 대한 전문지식, 초기 리뷰, 유통채널
	네트워크	- 기업가 네트워크, 다국적 협력

자료 : 김현창(2018). 제1판교테크노밸리 창업생태계 사례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4), 166-194.

- 삼성경제연구소(1998)는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형을 제시하였음
  -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그리고 회수시장 간에 존재하는 연관관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였음
  - 정부나 관련 인프라가 스타트업의 성장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스타트업 육성에 있어서 핵심은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된 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간의 연계라 언급함
  -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자생적 네트워크 형성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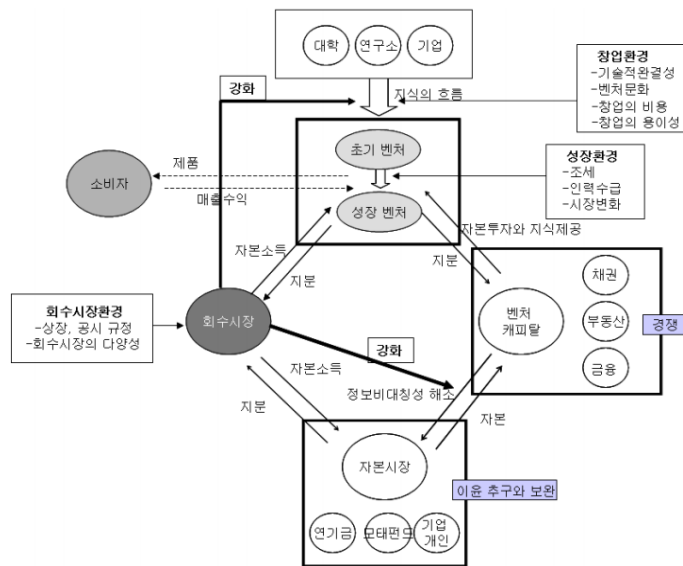


자료: 삼성경제연구소(1998),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

[그림 2-2]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삼성경제연구소)

- Bahrami & Evans(1995)는 지식의 흐름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동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
  - 자본의 흐름과 지식의 흐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생태계의 에너지와 물질흐름에 대한 자본 중심의 논의를 확장한 점에서 생태계 모델 구성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임채윤 외(2005)는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것은 스타트업-벤처캐피탈-회수시장임을 주장하며 모형을 제시함

- 에너지에 해당하는 지식이 끊임없이 가치와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물질순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봄
- 벤처캐피털과 회수시장은 스타트업과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는 촉매역할을 담당함
- 대학·연구소·기업 등의 연구개발·영업 등의 활동을 통해 기술의 혁신의 결과 또는 소비시장의 정보를 축적한 기업가들이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타트업 기업 군에 유입
- 벤처캐피털은 기업경영 및 관리 노하우,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시장정보 등의 지식과 함께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본을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자본과 지식을 스타트업의 가치에 해당하는 자본과 교환함
- 회수시장은 자기조직화 기능을 담당하는데,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에 축적되어온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하고 이를 자본이라는 유형물질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함
- 환경은 제도적 환경, 소비시장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제도적 환경은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촉매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 문화, 지원정책 등이 해당됨



자료: 임채윤 외(2005), 한국형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그림 2-3] 벤처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참여 메커니즘

## 2.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1)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 서울

- 2024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2023년 대비 세단계 성장한 9위에 랭크되며,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됨
  - 서울은 전 세계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금융 센터 지수에서도 130개 도시 중 11위를 차지하는 등 금융 경쟁력이 높고, 2023년 기준 VC 투자는 84억에 달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음
- 서울은 지난 10년 간 집중적인 창업인프라 확충 및 기업성장 지원을 추진해왔으며, 민간부문 포함 서울창업생태계 전반의 양적·질적 성장이 지속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통해 창업공간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창업허브(스케일업센터), 서울기업지원센터, 오픈이노베이션사업, CES 서울통합관, 스타트업 플러스, 트라이 에브리싱, 서울창업허브(공덕, 성수, 창동, 동작), 인베스트서울,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을 운영 중임
  - (서울창업허브) 글로벌네트워크 및 해외진출을 위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함. 성수는 ESG 비즈니스 모델 중심 도시문제해결, 창동은 언택트 기반 마케팅, 공덕은 창업 플레이어 맞춤형 창업지원, 동작은 창업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인베스트 서울)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투자 정보 제공, 시장 조사, 창업 컨설팅, 경영 안정화 등의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함
  - (트라이 에브리싱) 미래 혁신산업을 선도할 유망 창업기업의 '전시·IR 발표(피칭)'부터 창업기업의 고속성장(스케일업)을 위한 '투자사와의 1:1 상담'을 제공하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글로벌 트렌드와 전략 포럼을 개최함
  - 특히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는 민간 투자자-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간의 투자 교류에 중점을 둔 한국 최초 스타트업 허브라고 할 수 있음
- 2023년부터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기업 집중 투자를 위해 2026년까지 총 5조원을 목표로 서울 Vision 2030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 대상이 되는 신산업 분야는 디지털대 전환, 바이오, 첨단제조, 창조산업이며, 창업초기 및 스케일업, 후기 성장까지 지원할 계획임

[표 2-3] 서울 Vision 2030펀드 목표 금액

계	디지털 대전환	바이오	첨단제조	창조산업	첫걸음동행	스케일업	창업지원 (종료)
5조원	1조원	7,500억원	6,000억원	1조원	2,500억원	1.2조원	2,000억원

자료 : 서울특별시(2025), 서울Vision2030 펀드 5조원 중 올해 절반 조성...첨단제조와 창조산업에 집중 투자

- 창업 인프라 확충 외에도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을 통한 창업 기업 지원 정책도 운영 중임
  - 창업허브 아카데미 과정(30개), 앤솔파트너스 등 AC와 AI·IoT 등 커리큘럼 운영을 통해 민간 전문가 및 대학 연계 초기 창업교육 등 단계별 교육과정(기본→심화→일자리매칭) 제공

## ■ 경기

-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 내 기술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함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지자체 최초 온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해 민간과 공공자우너를 융합하고,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스타트업
투자자금
전문가지원
지원사업
공간시설
제조공유



스타트업	7,504개사
전문가	202개사
투자 파트너사	50개 146명
투자 유치	68건 211억

(2025년 5월 11일 기준)

**투자사 정보** < || > +

(주)카카오벤처스

kakaovertures

대표자	정신아
투자관심분야	ICT제조/서비스, 게임, 유통/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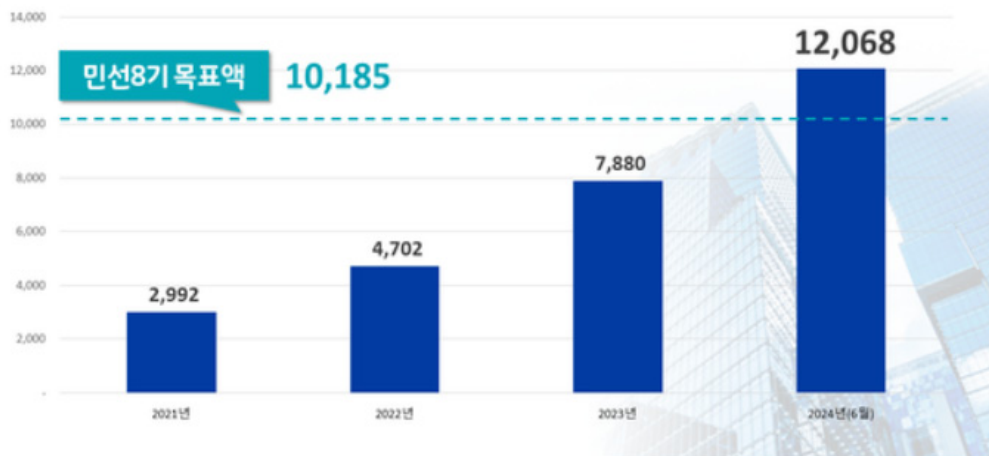
자료 : 경기스타트업플랫폼(<https://www.gsp.or.kr/>)

[그림 2-4]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운영 현황

-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 네트워크) 도, 도의회, 대학, 국회 및 연구원, 민간 전문가, 도 산하 공공기관 전

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도 창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초기 투자단계 기업 대상 지원 정책을 발굴함

- (기술창업지원 정책협의회) 도 경제부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9명의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여 도 기술창업 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함
- 2021년 제1차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창업의 단계별 종합적 지원을 통한 선순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창업) 첨단 융합 기술 중심의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 창업 공모,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술이전 창업지원을 추진
  - (투자)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창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엔젤펀드 설치·운영
- (경기도 G펀드) 2023년 경기도 G-펀드 1조원 조성 계획 수립 이후 2024년 1조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스타트업·탄소중립·재도전 등 10개 펀드에 5,197억 원, 소부장·AI·바이오 등 미래성장 분야 8개 펀드에 5,046억 원, 북부 균형·디지털 전환 등 5개 펀드에 1,825억 원이 운용 중



자료 : 경기도, 경기도 G-펀드 조성현황(단위 : 억 원)

[그림 2-5] 경기도 G-펀드 조성 현황

- (성장·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유도에 주력하기 위해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지원,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대학 창업 지원,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등을 추진 중

- (회수·재도전) 재투자 재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스타트업 공정 M&A 지원, 재도전 사업자 지원, 경기 재도전 펀드를 운영
- (인프라) 온·오프라인 시설 공간 및 네트워킹 강화 추진

## ■ 대전

- 대전은 KAIST 및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이 입지해 있어, 이들 기관에서 개발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술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 (대전 창작 Lab) 대전시와 SK그룹이 함께 대전 내 30여개 정부 출연연구소, 35개 대기업연구소, 카이스트 등 대학 등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이 창업과 기업활동으로 연계되도록 과학창업 중심도시 허브를 구성·운영 중임
  - 카이스트 전임 및 비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프로토타입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 개발을 지원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발굴해 투자자와 창업가를 매칭한 창업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지원함
- 2022년부터는 D-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개사를 선정해 성장도약자금, 전용 비즈니스 라운지,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 등 정책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였음
  - 2025년에는 기술력,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을 고려해 기계·로봇, 기능성 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10개 기업을 선정함
  - 유니콘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7천만원 내외의 성장도약자금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획득, 컨설팅, 홍보 등 전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025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가 함께 조성한 대전스타트업파크가 개소되어, 스타트업이 투자자, 대·중견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존의 창업지원센터와 달리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대전투자금융이 함께 입주해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코리아 투자워크 등을 통해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 ■ 부산

- 부산광역시시는 창업촉진지구 선정을 통한 지역창업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음
  - 2019년 지자체 최초로 부산창업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사상지구(기술제조·도시재생), 부산역·중앙동지구(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면·문현 지구(핀테크, 블록체인), 해운대 센텀지구(ICT,콘텐츠, 게임), 영도지구(해양 산업) 5곳(2,530만㎡) 규모임
  - 촉진지구 내에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텀기술창업타운, KRX·IBK창공, 위워크, 유라시아플랫폼, 광광역지원센터 등 16개 창업 관련 앵커시설이 입지함
  - 2025년부터는 글로벌창업허브 부산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제1부두 폐창고(9,128㎡)를 리모델링해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투자자가 입주할 수 있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자료 : 부산광역시(2019), 창업촉진지구 지정 고시

[그림 2-6] 부산 창업촉진지구 지정 대상지

- 2024년부터 부산시는 ‘부산 미래 성장 벤처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역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 중앙정부의 모태자금 600억 원을 기반으로 부산시 100억 원,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이 300억원을 출자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부산 혁신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여 부산시 9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초기·성장 단계 창업·벤처기업, 스마트 첨단 제조 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등에 투자할 예정임

## ■ 광주

- 광주광역시시는 인공지능 분야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특화·운영 중이며,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및 지역 가상현실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지원 중임
-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시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며, 수요 연계형 인공지능 예비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함
- 투자연계형 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시제품 제작, 글로벌 인공지능 제품 고도화 등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형 인공지능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 품질 제고 컨설팅, 규제 해소 컨설팅,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을 추진함
- (AI 창업캠프) 인공지능 분야 신규창업 촉진과 시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시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공간을 제공함
- 지역 과학기술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업화 확대를 위해 지역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광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해 창업 공간을 제공함
- (광주스마트미디어센터) 가상현실(VR) 분야 미디어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장비를 지원함
- 이 외에도 JUMP-UP을 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펀드, 달빛혁신창업성장펀드,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창업기업 및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식재산권 등록·출원을 지원

## ■ 울산

- 울산광역시는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해 예비/초기창업부터 후기 기업성장까지 종합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전통적인 울산의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을 첨단화하고,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성장 미래산업을 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함



자료 :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2024), 지역창업생태계 리포트(울산)

[그림 2-7] 울산 창업생태계

- 울산시 창업·벤처 펀드의 조성 및 운영 규모는 '21년 1,040억원에서 '23년 1,890억원으로 약 82% 증가 추세를 보임
- 2025년에는 울산 스타트업 허브가 개소됨에 따라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투자사 입주공간을 확보하는 등 창업기업-대기업-투자자 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 2) 국외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2024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미국 실리콘밸리, 2위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4위는 미국 LA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차지하였으며, 서울은 2023년 대비 3단계 성장한 9위, 도쿄는 2023년 대비 5단계 성장한 10위에 랭크됨
  - 상위에 랭크된 5개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 세계 생태계 가치의 54%를 차지하며, 2020년 이후 상위 5개 생태계는 변동된 적이 없을 정도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위 5개 스타트업 생태계 중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런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사례를 검토하고, 아시아에서 서울보다 상위에 랭크된 싱가포르와 성장률이 큰 일본 도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

### ■ 미국 실리콘밸리

- 미국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상위 5개 생태계가 차지하는 전 세계 생태계 가치 54% 중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3% 증가하는 등 전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임
  - 스탠퍼드 대학에서 운영했던 스탠퍼드 산업단지 내 HP, 록히드마틴 같은 기업이 자리잡으며 초기 국방 산업 및 반도체산업 분야 기술생태계가 형성되었으며, 인텔, 애플 같은 기업의 등장으로 주목받는 생태계로 자리매김
  - 국방산업 및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시작한 미국 실리콘밸리는 최근 생명과학, AI 및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로 산업군이 변화하였으며, 스탠퍼드 대학 출신 STEM 인재와 기존 기술 보유 기업 및 투자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생태계의 강점임
- (혁신 주체)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며, '22년 기준 정부 주도 벤처 투자액은 전체의 4.4%에 불과함
  - 기업 투자(CVC)는 오픈 이노베이션 실현 투자 조직으로 IBM벤처스, 인텔캐피탈, 쉐컴벤처스 등 다양한 기업이 CVC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함
- (지원 정책)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SBIR/STTR로 초기 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임

- '74년부터 파일럿프로그램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스타트업의 “사업화” 이전의 초기 단계 자금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화 이후에는 민간 기업 투자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졸업시키는 형태의 지원
- 미국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America’s Seed Fund”로 불릴 정도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의 초기 자금 확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함

지원단계	내용	지원금액	지원 기간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된 R&amp;D 활동의 기술적 장점, 타당성 및 상업적 잠재력을 확립</li> <li>• 2단계 추가 지원 전 기존 선정자의 성과를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50,000~\$25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SBIR)</li> <li>• 1년(STTR)</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R&amp;D 활동 지속</li> <li>• 1단계 연구성과와 2단계에서 제안된 기술적 장점과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선정</li> <li>• 전형적으로 1단계 수상자만이 2단계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750,0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2년</li> </ul>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경우, 1단계/2단계 R&amp;D 활동의 상업화를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없음</li> </ul>

자료 : S&T GPS(2023), 마일 중소기업 R&D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그림 2-8] SBIR/STTR 투자 방식

## ■ 영국 런던

- 2000년대 초반부터 런던 지역 내 임대료가 저렴한 쇼디치, 올드스트리트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조성된 런던의 테크시티는 2023년 기술 생태계 총 가치가 6,215억 달러까지 급증(14년 700억 달러)하며, 유럽 최초 기술 허브로 평가되고 있음
- 런던 내 유니콘 기업은 2023년 기준 103개이며, 2014년부터 총 1,070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2014년 대비 VC 투자가 약 800%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런던 테크시티를 구성하는 주요 산업은 클린테크, 핀테크, AI이며, 임페리얼 칼리지, UCL, 킹스 칼리지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기반으로 기술기반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
- (혁신 주체) 영국 테크시티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기업-대학-연구소-금융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발달함
- (지원 정책) 런던 테크시티에서는 행정, 교육, 기술개발 지원, 지역성을 활용한 기업

##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 (테크네이션) Tech City UK는 영국 소재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테크네이션이라는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각각 초기 창업 기업, 성장단계 기업의 업스케일, 후기 육성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함
- (창업 제도 개선) 법인등기 절차의 온라인화, 자본금 제한 철폐, 설립/폐업 규정 자유화 및 지원 대상 기업의 R&D 세금 감면(최대 186%) 등을 활용해 기업의 창업 자율성을 부여함
- (그로우 런던) London & Partners가 주관하고, UK Shared Prosperity fund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로우 런던은 12개월 간 무료로 운영되며 투자 유치를 지원함
- (스타트업 대출) 창업자당 최대 31,500달러까지 6%대 이자율로 제공하고 있어,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표 2-4] 테크네이션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성장단계	프로그램명	지원 자격	혜택
초기	Founders' Network	· 시리즈 A 투자유치 또는 연매출 5,000~500만 파운드	·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동종업계 창업자들 간 연계관계 구축 · 경영 공유 기회 제공
	Rising Star	· 시리즈 A 투자유치 또는 연매출 150만 파운드 이하 · 업력 1~3년	· 신생기업 대상 창업경진대회로, 10개 라이징스타 스타트업 선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 검토, 투자유치 코칭 등의 서비스 지원 및 테크네이션의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한 인지도 상승 · 대회참가기업들은 테크네이션의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중기	UpScale	· 시리즈 A 투자유치 또는 연매출 150만~500만 파운드 · 전월대비 성장률 20% 이상	· 6개월 간 20여명의 전문코치가 60시간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 문화, 인력, 자금 조달, 마케팅 등 분야 워크숍, 정기 모임, 기업인 네트워크 등 프로그램 제공
후기	Future Fifty	· 시리즈 B 이상 투자유치 또는 연매출 500만파운드 이상 · 전년대비 성장률 50% 이상	· 영국 내 성공 디지털 기업으로 인정 및 선정 기업인들 간 네트워크 형성 · 세계적 전문가의 마스터클래스 워크숍, 정부 관련 및 고위급 당국자와의 회의 참석 등 특권 제공

자료 : 글로벌타임즈(2022), 우범지대 슬럼프, 세계의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다 '영국'

주 : 시리즈 A는 정식 사업 이전 받는 투자, 시리즈B는 시장 확장 단계에서 받는 투자를 의미함

## ■ 이스라엘 텔아비브

-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는 국가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해 창조한 생태계로 시장의 위험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며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VC 펀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음
  - 텔아비브는 AI 및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생명과학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1인당 스타트업 밀도가 가장 높으며 미국을 제외하고 스탠퍼드 대학 졸업생이 설립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평가됨
  - 정부 주도로 2023년부터 9개 혁신 센터 설립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대기업들의 혁신 허브를 유치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씨티, 현대, 비자의 혁신 허브가 조성되어 있고, 재규어 랜드로버의 혁신허브, 솜포 사이버 보안센터, 아마존 웹서비스 이스라엘의 투자가 진행 중임
- (혁신 주체) 정부의 주도로 클라우드 펀딩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텔아비브시가 운영하는 텔아비브 글로벌의 텔아비브 테크를 통해 기술 산업과 지자체(주민)을 연결해 공공과 지역 기술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정책) 창업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엔젤법, 창업기업의 이자 지원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모태펀드 운영 등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요즈마 펀드) 스타트업 환경 육성을 위해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국가가 운영하고, 2003년 민간에 이관된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며, 민간도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모태펀드(정부 40%, 민간 60%)로 이스라엘 창업시장 육성의 기반이 된 주요 프로그램
  - (엔젤법) 창업단계 기업투자 장려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외국 엔젤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엔젤법을 제정하여, R&D 비용이 전체 기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창업단계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를 대상으로 3년 간 투자금 소득 공제를 적용함
  - (세금 인센티브) 2023년 이스라엘 의회는 기술 기반 기업의 외국 금융 기관 지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기술 부문 투자 및 인수 장려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Law for Encouragement of Knowledge-Intensive Industry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함

## ■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로 역동적인 親기업 환경과 지리적 강점을 기반으로 성장하였으며, 2023년 기준 61억 달러를 투자 해 지역 기술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함
  - 싱가포르 내에는 4,500개의 기술 스타트업, 400개의 벤처 캐피탈, 240개의 액셀러레이터, 벵터 빌더 및 인큐베이터가 분포하고 있어 세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됨
  - 생명과학, AI 및 빅데이터, 클린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공학, 정밀 의학, 재생 에너지 분야의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보유해 산업 전반의 IP 및 딥테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음
- (혁신 주체)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인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기업의 역량 강화, 혁신,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 7,0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바탕으로 27개국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인재 및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비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원 정책) 싱가포르는 R&D 분야에 대한 투자 정책, 초기 단계 기술 기반 기업 대상 투자 제도를 비롯해 스타트업 생태계 단지화를 위한 스타트업 산업단지 허브화를 추진 중임
  - (RIE 2025) 지난 30년 간 GDP의 1%를 딥테크 분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가 투자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SEEDS capital)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가 운영하는 투자제도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민간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를 추진함
  - (법인 설립조차 간소화) 온라인 기반 법인 설립 절차를 통해 법인 설립, 회계 감사 보고서 등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창업비자 발급) 싱가포르 기업청에 등록된 유한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 예정인 자가 자본금의 30%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창업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창업한 회사의 취업 비자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일본 도쿄

- 도쿄는 일본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도쿄 스타트업 생태계는 고급 제조 및 로봇 공학, 핀테크, 생명과학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창업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경제규모를 기반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혁신 주체) 도쿄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추진됨
  -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한 “일본재흥전략(2013)” 이후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산업 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였고, 특히 지역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지역금융기관 등 민간 창업 지원사업자를 통해 원스톱상담창구 47개소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음
- (지원 정책) 일본 정부는 제품 제조 장비 업그레이드 보조금, 산업 투자 촉진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과 경제주체와의 협력 기반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제공함
  -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 스타트업 수 10만개, 유니콘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28년까지 스타트업 투자를 724억 달러로 확대하고, 딥테크 관련 스타트업 지원 예산 7억 3,400만 달러, 신약 개발 스타트업 지원 22억 달러 등을 투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세제 개정) 2022년 기시다 내각은 스톡옵션의 권리행사 기간을 늘리고, 스타트업 주식 과반 취득시 취득가액의 25%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세제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수지 테크 도쿄 2024) 글로벌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최대규모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투자 유치 기반을 제공하였음
  -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 도쿄이노베이션 베이스는 일본 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학생, 기업가들이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작동함
  - (Link-J)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일본 내 및 일본 외 생태계 연결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스타트업, 투자자,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가 포함된 단체임
  - (도쿄 컨소시엄) 스타트업, 투자자, 인큐베이터, 외국 및 지방 정부, 각 분야 산업협회가 참여하는 도쿄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3.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 전북자치도 창업기업 현황

- 전국의 창업기업은 '20년 약 148만 개에서 '24년 약 118만 개로 연평균 5.5%씩 감소 추세를 나타냄

- 전북 내 창업기업은 '20년 46,748개에서 '24년 43,975개로 연평균 1.5%씩 감소하였으나, 전국에서의 비중은 동기간 3.1%에서 3.7%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5] 지역별 창업기업 현황

지역	2020 창업기업수	2021 창업기업수	2022 창업기업수	2023 창업기업수	2024		연평균 증가율
					창업기업수	순위	
계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1,182,905	-	-5.5
서울	309,896 (20.9)	276,758 (19.5)	249,175 (18.9)	230,141 (18.6)	218,106 (18.4)	2	-8.4
부산	86,597 (5.8)	82,845 (5.8)	74,768 (5.7)	68,332 (5.5)	62,293 (5.3)	4	-7.9
대구	55,782 (3.8)	53,211 (3.8)	49,701 (3.8)	48,347 (3.9)	44,782 (3.8)	8	-5.3
인천	97,059 (6.5)	96,818 (6.8)	84,878 (6.4)	78,930 (6.4)	76,212 (6.4)	3	-5.9
광주	39,333 (2.6)	35,615 (2.5)	33,267 (2.5)	31,648 (2.6)	29,297 (2.5)	14	-7.1
대전	39,330 (2.6)	35,500 (2.5)	33,699 (2.6)	33,013 (2.7)	31,191 (2.6)	13	-5.6
울산	25,388 (1.7)	21,939 (1.5)	22,663 (1.7)	20,928 (1.7)	18,785 (1.6)	15	-7.3
세종	10,555 (0.7)	9,420 (0.7)	8,915 (0.7)	8,237 (0.7)	8,068 (0.7)	17	-6.5
경기	431,992 (29.1)	440,584 (31.1)	399,091 (30.3)	369,562 (29.8)	361,284 (30.5)	1	-4.4
강원	41,330 (2.8)	38,080 (2.7)	38,614 (2.9)	35,854 (2.9)	33,385 (2.8)	12	-5.2
충북	40,749 (2.7)	39,195 (2.8)	38,234 (2.9)	36,639 (3.0)	34,280 (2.9)	11	-4.2
충남	58,116 (3.9)	57,188 (4.0)	57,643 (4.4)	52,074 (4.2)	49,548 (4.2)	7	-3.9

(단위: 개, %)

(단위: 개, %)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창업기업수 ( )	창업기업수 ( )	창업기업수 ( )	창업기업수 ( )	창업기업수 ( )	순위	
전북	46,748 (3.1)	41,813 (2.9)	41,223 (3.1)	43,367 (3.5)	43,975 (3.7)	9	-1.5
전남	46,390 (3.1)	41,687 (2.9)	40,012 (3.0)	40,602 (3.3)	39,025 (3.3)	10	-4.2
경북	58,749 (4.0)	56,457 (4.0)	56,296 (4.3)	55,853 (4.5)	52,713 (4.5)	6	-2.7
경남	75,084 (5.1)	70,679 (5.0)	69,926 (5.3)	66,306 (5.4)	61,917 (5.2)	5	-4.7
제주	21,569 (1.5)	20,184 (1.4)	19,374 (1.5)	18,784 (1.5)	18,044 (1.5)	16	-4.4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주) ( )는 창업기업 합계 대비 지역의 비중

- 전국 창업기업에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은 '20년 228,949개에서 '24년 214,917개로 연평균 1.6%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의 비중은 동기간 15.4%에서 18.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업종의 창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전북의 기술기반업종 창업 기업은 '20년 5,479개에서 '24년 4,832개로 연평균 3.1%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창업기업에서 기술기반업종 창업의 비중은 동기간 0.4%로 동일함

[표 2-6] 지역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현황

(단위: 개, %)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창업기업수 ( )	창업기업수 ( )	창업기업수 ( )	창업기업수 ( )	창업기업수 ( )	순위	
계	228,949 (15.4)	239,620 (16.9)	229,416 (17.4)	221,436 (17.9)	214,917 (18.2)	-	-1.6
서울	55,049 (3.7)	56,809 (4.0)	53,265 (4.0)	52,387 (4.2)	51,231 (4.3)	2	-1.8
부산	11,211 (0.8)	11,367 (0.8)	11,305 (0.9)	11,521 (0.9)	10,688 (0.9)	5	-1.2
대구	7,917 (0.5)	8,015 (0.6)	7,678 (0.6)	8,164 (0.7)	7,826 (0.7)	6	-0.3
인천	11,377 (0.8)	11,935 (0.8)	12,051 (0.9)	12,751 (1.0)	12,740 (1.1)	3	2.9

(단위: 개, %)

지역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창업기업수	창업기업수	창업기업수	창업기업수	창업기업수	순위	
광주	5,307 (0.4)	5,534 (0.4)	5,151 (0.4)	5,082 (0.4)	4,937 (0.4)	11	-1.8
대전	5,336 (0.4)	5,391 (0.4)	5,207 (0.4)	5,410 (0.4)	5,283 (0.4)	9	-0.2
울산	3,733 (0.3)	3,533 (0.2)	3,702 (0.3)	3,822 (0.3)	3,359 (0.3)	15	-2.6
세종	1,630 (0.1)	1,718 (0.1)	1,735 (0.1)	1,832 (0.1)	1,724 (0.1)	17	1.4
경기	76,709 (5.2)	84,215 (5.9)	78,312 (5.9)	69,904 (5.6)	69,415 (5.9)	1	-2.5
강원	4,951 (0.3)	4,187 (0.3)	4,229 (0.3)	4,691 (0.4)	4,538 (0.4)	14	-2.2
충북	5,444 (0.4)	5,701 (0.4)	5,969 (0.5)	5,515 (0.4)	5,165 (0.4)	10	-1.3
충남	7,453 (0.5)	8,449 (0.6)	9,004 (0.7)	8,045 (0.6)	7,575 (0.6)	7	0.4
전북	5,479 (0.4)	4,999 (0.4)	4,828 (0.4)	5,040 (0.4)	4,832 (0.4)	12	-3.1
전남	5,089 (0.3)	4,979 (0.4)	4,939 (0.4)	5,109 (0.4)	4,707 (0.4)	13	-1.9
경북	8,002 (0.5)	8,144 (0.6)	8,065 (0.6)	7,963 (0.6)	7,520 (0.6)	8	-1.5
경남	11,824 (0.8)	11,958 (0.8)	11,478 (0.9)	11,620 (0.9)	10,856 (0.9)	4	-2.1
제주	2,438 (0.2)	2,686 (0.2)	2,498 (0.2)	2,580 (0.2)	2,521 (0.2)	16	0.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주) ( )는 창업기업 합계 대비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 비중

## ■ 전북자치도 주력산업 사업체 현황

- 2023년 개편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내 주축산업은 농생명바이오, 특수 목적용 지능형 기계 부품, 탄소 융복합 소재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KSIC 코드는 다음과 같음

[표 2-7] 전북 주축산업 구분에 따른 코드 분류

구분	코드 번호 및 코드명	
농생명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309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li> <li>- ★10121 가공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li> <li>-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li> <li>- ★10611 곡물 도정업</li> <li>-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li> <li>-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li> <li>-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li> <li>- 10801 배합사료 제조업</li> <li>-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li> <li>-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기금류 제외)</li> <li>- 10501 액상사유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li> <li>-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li> <li>- 10743 장류 제조업</li> <li>-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li> <li>-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li> <li>-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li> <li>-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li> <li>-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li> <li>-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li> </ul>
특수 목적용지능기계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li> <li>-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li> <li>-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li> <li>-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li> <li>-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li> <li>-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li> <li>- 24132 강관 제조업</li> <li>-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li> <li>-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li> <li>-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li> <li>-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li> <li>-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9241 건설 및 채업용 기계·장비 제조업</li> <li>-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li> <li>-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li> <li>-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li> <li>-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li> <li>-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기장치 제조업</li> <li>-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li> <li>-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li> <li>-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li> <li>-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li> <li>-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li> <li>-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li> </ul>
탄소 융복합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li> <li>-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li> <li>-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li> <li>-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li> <li>-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li> <li>- 13219 특수지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li> <li>-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li> <li>- 20501 합성섬유 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995 탄소섬유 제조업</li> <li>-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제조업</li> <li>-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li> <li>-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li> <li>- 23211 정형 내화 요업 제품제조업</li> <li>-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li> <li>- 24131 주철관 제조업</li> <li>- 24311 산철 주물 주조업</li> </ul>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주) ★는 앵커코드로 업종별 연결중심성·근접중심성/매개중심성/특화도/집적도 종합분석 기준 상위 5개 업종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내 주축산업의 사업체 수는 '23년 기준 3,427개로 '21년 3,506개에서 연평균 -1.1%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주축산업 분야 중 동기간 가장 많은 감소 추세를 보인 분야는 탄소융복합소재 분야로 연평균 약 2.5% 감소 추세를 보였고,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분야는 연평균 0.8% 감소 추세를 보임
- 주축산업 분야 사업체 중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는 '21년 87.6%에서 '23년 88.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북자치도 내 주축산업이 장년층 중심으로 운영됨을 나타냄

[표 2-8] 전북자치도 주축산업 분야별 사업체 변화

		(단위: 개,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증가율
사업체 수	합계	3,506 (100)	3,655 (100)	3,427 (100)	-1.1%
	농생명바이오	1,782 (50.8)	1,839 (50.3)	1,743 (50.9)	-1.1%
	탄소융복합소재	359 (10.2)	376 (10.3)	341 (10.0)	-2.5%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1,365 (38.9)	1,440 (39.4)	1,343 (39.2)	-0.8%
청년 대표자 사업체 수	합계	435 (12.4)	452 (12.4)	388 (11.3)	-5.6%
	농생명바이오	224 (6.4)	230 (6.3)	207 (6.0)	-3.9%
	탄소융복합소재	43 (1.2)	42 (1.1)	39 (1.1)	-4.8%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168 (4.8)	180 (4.9)	142 (4.1)	-8.1%
장년 대표자 사업체 수	합계	3,071 (87.6)	3,203 (87.6)	3,039 (88.7)	-0.5%
	농생명바이오	1,558 (44.4)	1,609 (44.0)	1,536 (44.8)	-0.7%
	탄소융복합소재	316 (9.0)	334 (9.1)	302 (8.8)	-2.2%
	특수목적용지 능형기계부품	1,197 (34.1)	1,260 (34.5)	1,201 (35.0)	0.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대표자 연령이 20~30대인 경우 청년 대표자, 40대부터 장년 대표자로 분류/ ( )는 총 사업체 수 대비 비중

-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동기간 연평균 5.6% 감소 추세가 나타났으나, 대표자가 장년인 경우에는 동기간 연평균 0.5% 감소 추세가 나타났음
  - 청년이 대표인 경우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분야에서 연평균 8.1%가 감소하는 등 가장 큰 감소를 보였으며, 장년이 대표인 경우에는 탄소융복합소재 분야에서 연평균 2.2%가 감소하며 가장 크게 감소 추이를 보임

## ■ 전북자치도 기업생멸현황

- 2022년 기준 지역별 신생기업 생존율을 살펴보면, 전북자치도 내 기업의 생존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1년 생존율은 전국(64.9%)보다 높은 68.3%이며, 2년 생존율도 전국(53.6%)보다 높은 58.4%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3년 생존율은 51.0%로 여전히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 5년 생존율이 34.8%로 떨어지며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3년 대비 5년 생존율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이 전북(△16.2%)임
  - 신생기업의 3년 이후의 성장 및 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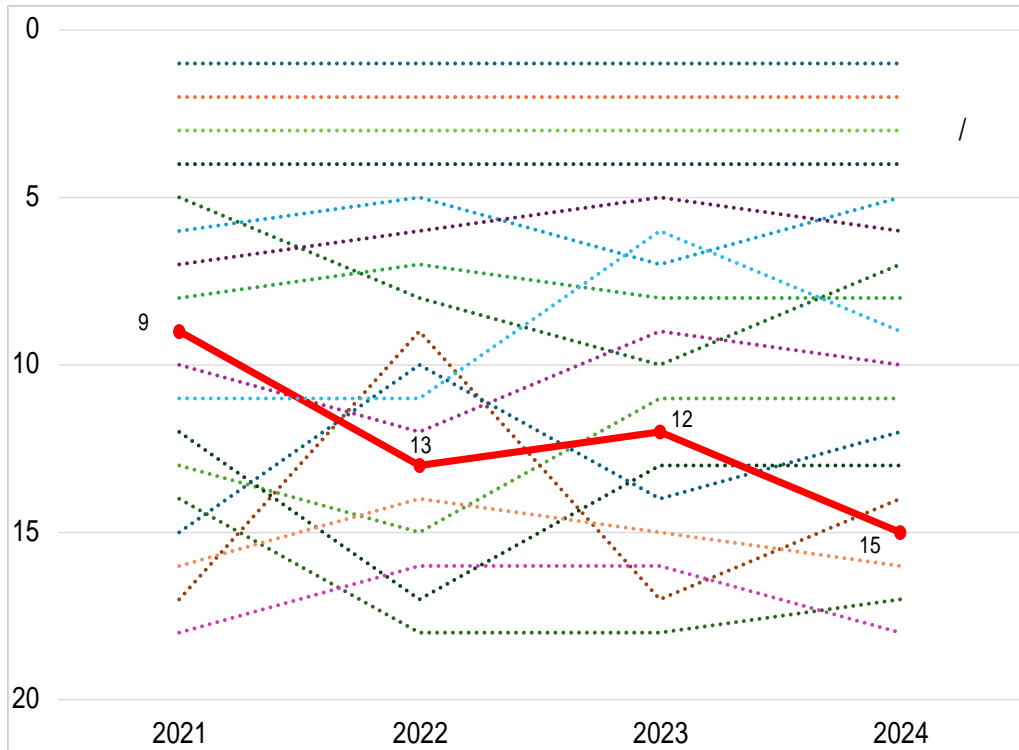
[표 2-9] 지역별 신생기업 생존율(2022년 기준)

구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국	64.9	53.6	46.9	40.9	34.7
서울특별시	63.4	52.9	46.1	41.1	34.7
부산광역시	63.6	52.6	45.8	40.5	35.4
대구광역시	65.5	54.2	47.8	42.2	36.6
인천광역시	64.3	49.9	46.7	40.0	34.3
광주광역시	64.6	53.2	45.9	41.1	32.0
대전광역시	64.8	53.3	46.5	40.2	34.6
울산광역시	64.4	51.6	44.3	37.2	31.2
세종특별자치시	67.2	53.0	51.1	43.0	39.8
경기도	65.0	53.9	46.6	40.9	35.6
강원특별자치도	65.3	54.3	47.4	42.6	33.5
충청북도	66.3	54.3	48.4	40.2	34.2
충청남도	66.6	54.8	48.7	41.3	34.9
<b>전북특별자치도</b>	<b>68.3</b>	<b>58.4</b>	<b>51.0</b>	<b>43.3</b>	<b>34.8</b>
전라남도	66.0	56.1	48.5	41.5	34.0
경상북도	66.2	54.6	48.1	41.0	34.0
경상남도	64.8	52.9	46.3	39.6	32.9
제주특별자치도	67.0	53.7	45.2	39.5	35.3

자료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 전북자치도 벤처 투자 및 인프라 현황

- 국내 벤처투자는 2021년 7조 6,802억 원에서 2024년 6조 6,315억 원으로 연평균 약 22.9%씩 감소 추세를 보임
  - 국내 벤처투자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산(7.5%), 충북(7.4%), 경북(7.4%), 충남(7.0%)에서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서울(-24.2%), 전북(-8.0%), 전남(-7.8%), 강원(-6.1%) 순으로 큰 감소 추세를 나타냄
  - 전북은 벤처투자 금액이 '21년 전국 1.0%에서 '24년 전국 0.6%까지 하락하였고 순위도 동기간 전국 9위에서 15위까지 하락하는 등 투자 금액과 순위가 모두 상승한 충북, 충남 등과 대조적 양상을 보임



자료 : 벤처투자종합포털('25.3.31 기준)

[그림 2-9] 지역별 벤처투자현황 순위변화('21년~'24년)

[표 2-10] 지역별 벤처투자현황('21년~'24년)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투자금액	비중	순위	투자금액	비중	순위	투자금액	비중	순위	투자금액	비중	순위	
서울	43,244	56.3	1	37,445	55.4	1	25,574	47.4	1	30,787	46.4	1	-24.2
경기	13,071	17.0	2	11,280	16.7	2	9,600	17.8	2	12,954	19.5	2	-5.9
인천	1,358	1.8	5	760	1.1	8	879	1.6	10	1,694	2.6	7	6.0
부산	1,228	1.6	6	1,370	2.0	5	1,241	2.3	7	1,842	2.8	5	7.5
대구	628	0.8	10	590	0.9	12	956	1.8	9	998	1.5	10	6.2
광주	573	0.7	13	424	0.6	15	534	1.0	11	872	1.3	11	5.7
대전	4,364	5.7	4	3,606	5.3	4	3,475	6.4	4	4,263	6.4	4	-5.7
울산	343	0.4	17	701	1.0	9	107	0.2	17	448	0.7	14	3.7
강원	599	0.8	12	164	0.2	17	377	0.7	13	467	0.7	13	-6.1
경남	443	0.6	15	689	1.0	10	302	0.6	14	680	1.0	12	5.2
경북	1,147	1.5	7	1,167	1.7	6	2,070	3.8	5	1,750	2.6	6	7.4
전남	490	0.6	14	33	0.0	18	99	0.2	18	174	0.3	17	-7.8
<b>전북</b>	<b>730</b>	<b>1.0</b>	<b>9</b>	<b>587</b>	<b>0.9</b>	<b>13</b>	<b>433</b>	<b>0.8</b>	<b>12</b>	<b>383</b>	<b>0.6</b>	<b>15</b>	<b>-8.0</b>
제주	375	0.5	16	499	0.7	14	194	0.4	15	278	0.4	16	-5.6
충남	991	1.3	8	1,141	1.7	7	1,189	2.2	8	1,506	2.3	8	7.0
충북	608	0.8	11	610	0.9	11	1,998	3.7	6	1,194	1.8	9	7.4
세종	277	0.4	18	310	0.5	16	173	0.3	16	42	0.1	18	-7.2
기타/해외	6,335	8.2	3	6,264	9.3	3	4,774	8.8	3	5,984	9.0	3	-8.1
합계	76,802	100	-	67,640	100	-	53,977	100	-	66,315	100	-	-22.9

자료 : 벤처투자종합포털('25.3.31 기준)

주) 벤처투자(벤처투자회사고유계정+벤처투자조합의 투자) 투자실적 통계임

## ■ 전북자치도 종합적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 종합적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구 및 경제력, 투자 인프라, 기업의 성과 등 모든 핵심지표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남
  - (인구 및 경제력)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1%, 전체 GRDP의 52.2%를 차지하며 창업의 기초가 되는 시장 규모가 압도적임
  - (투자 인프라) AC는 전국 490개 중 67.3%인 330개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VC는 전국 247개 중 89.9%인 222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수도권은 전체를 합쳐도 25개에 불과함
  - (기업 성과) 전국 벤처기업의 65.5%(24,924개)가 수도권 소재이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4,638개 중 52.9%(2,453개)가 수도권에 위치함
- (권역별 특징) 5극 3특의 권역을 기준으로 권역별 특징들을 살펴보면, 충청권은 R&D 기반의 잠재력이 있으며 동남권은 경제규모에 비해 부족한 투자 인프라, 대경권 및 호남권은 투자 및 성장 동력의 정체, 3특은 소규모 특화 생태계로 보여짐
  - (충청권)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인구 대비 대학 수(65개)와 창업보육기관(41개)로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며, 벤처기업 수가 3,919개로 비수도권 권역 중 가장 많고 GRDP 대비 기술혁신형 기업 비중이 양호한 편임
  - (동남권) 인구 760만명, GRDP 342조원으로 수도권 다음의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어 매출 1,000억 이상 기업이 690개로 비수도권 중 가장 많아 전통적인 제조 중견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나, VC가 9개에 불과하여 경제 규모대비 투자생태계가 부족한 실정임
  - (대경권과 호남권) 대경권은 대학 수(47개) 등 교육 인프라는 양호하나, VC가 4개에 불과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호남권은 VC 3개, AC 17개로 투자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권역 중 하나이며 벤처기업 수가 1,367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1,520개)보다 적어 창업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3특) 절대적인 인구와 경제 규모의 한계로 정량적 지표가 낮으며 3개 지역을 합쳐도 VC는 3개, 벤처기업 수는 총 1,844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취약함
- (전북자치도) 전국 지자체 중 창업지원 예산이 높은 수준이며, 대학 중심의 인프라, 창업 보육기관 등의 우수한 하드웨어 보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생태계(VC 0개)가 열악하여 민간 투자 자본의 유입이 제한적임
  - 추가투자 AC는 11개가 있으나, 후속 투자를 이끌어갈 VC가 없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제한적임

[표 2-11] 창업 생태계 현황

지역	인구 (백만 명)	GRDP(조원)		대학/대학원(수)			투자기관(수)		창업지원기관(수)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기업현황(수)						
		인당 (백만 원)	전체	창업 중심 대학	캠퍼스 혁신 파크	VC	AC	창업사관학교		테크 노 파크	스타 트업 파크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엔젤 허브	창업 보육 기관	지원 사업 (개수)	예산 (억원)	매출 1,000억 이상	중소기업						
								청년	글로벌									벤처	경영혁신	기술 혁신	글로벌 강소			
수도권	서울	9.3	548	58	84	1		209	261	1	1	2		1	1	30	36	382	1,012	1,666,401	10,919	4,657	20	87
	인천	3.0	117	39	9			3	21	1		1	1		5	15	30	222	429,618	1,783	1,470	6	31	
	경기	13.7	594	43	77	1	2	10	48	3		2		1		49	54	200	1,219	2,110,760	12,222	7,596	41	118
	합계	26.1	1,258	48	170	2	2	222	330	5	1	5	1	3	1	84	105	612	2,453	4,206,779	24,924	13,723	67	236
충청권	대전	1.4	54	37	19	1		3	29	1		1	1	1	1	9	15	106	119	205,290	1,520	657	3	11
	세종	0.4	17	43	4			1	7	1		1			3	6	7	52	45,293	211	113	1	3	
	충북	1.6	88	54	18			1	6	1		1			14	18	58	179	239,131	934	890	2	17	
	충남	2.1	143	65	24	1		1	15	1		1	1		15	9	136	258	328,214	1,254	1,189	4	30	
	합계	5.6	302	54	65	2		6	57	4		4	2	4	1	41	48	307	608	817,928	3,919	2,849	10	61
동남권	부산	3.3	114	35	24	1		5	23	1		1			15	22	104	329	493,459	1,645	1,307	6	44	
	울산	1.1	90	81	5			3	8	1		1			8	42	112	141,974	468	341	2	8		
	경남	3.2	138	42	19	1		1	10	1		1	1		16	44	186	249	482,366	1,370	1,264	10	37	
	합계	7.6	342	45	48	2		9	41	3		3		3	1	31	74	332	690	1,117,799	3,483	2,912	18	89
대경권	대구	2.4	73	31	12	1		4	14	1		1			11	6	22	163	344,260	1,209	995	2	13	
	경북	2.5	127	49	35				10	1		2	1	2	1	22	11	44	210	398,850	1,325	1,268	10	19

지역	인구 (백만 명)	GRDP(조원)		대학/대학원(수)			투자기관(수)		창업지원기관(수)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기업현황(수)						
		인당 (백만 원)	전체	창업 중심 대학	캠퍼스 혁신 파크	VC	AC	창업사관학교		테크 노 파크	스타 트업 파크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엔젤 허브	창업 보육 기관	지원 사업 (개수)	예산 (억원)	매출 1,000억 이상	중소기업					
								청년	글로벌									벤처	경영혁신	기술 혁신	글로벌 강소		
합계	4.9	201	41	47	1	4	24	2		3	1	3	1	33	17	66	373	743,110	2,534	2,263	12	32	
호남권	광주	1.4	52	35	18		2	14	1		1		1	1	9	16	105	127	205,262	676	529		11
	전남	1.8	98	56	19		1	3	1		1		2	14	8	25	138	294,743	691	928	6	12	
	합계	3.2	150	47	37		3	17	2		2		3	1	23	24	130	265	500,005	1,367	1,457	6	23
3특	강원	1.5	62	41	17	1	1	3	6	1		1		1	14	25	61	84	242,846	686	577	3	15
	전북	1.7	64	36	20	1			11	1		1		15	29	139	125	283,568	877	725	1	14	
	제주	0.7	26	38	4				4	1		1		4	20	103	40	130,691	281	235		3	
전국	51.2	2,404	46	408	9	3	247	490	19	1	20	4	19	5	245	342	1,750	4,638	8,042,726	38,071	24,741	117	473

## 4.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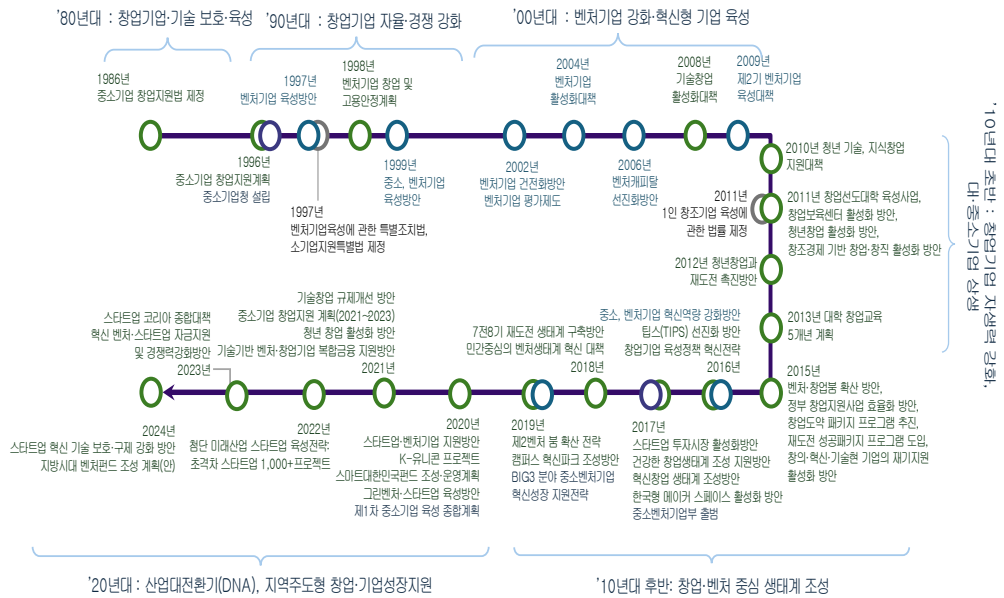
### 가. 스타트업 지원 정책 동향

#### ■ 스타트업 지원 정책 추진 현황

-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정책은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2013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창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80년대) 창업지원 정책 기반이 마련된 시기로 '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이 제정되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대상으로 보던 당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기초를 따라 창업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음
  - ('90년대) 창업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간 경쟁을 강화한 시기로, '96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부처인 중소기업청을 설립하였음. 같은 해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하였음. '98년 '벤처기업 창업 및 고용안정계획'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창업 및 벤처기업 전환지원을 추진하였음. '99년 '중소, 벤처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중소, 벤처기업을 경쟁의 주체로 경제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고, 투자자금 공급 확대, 기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음
  - ('00년대) 혁신형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시기로 '04년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고, '09년 '제2기 벤처기업 육성대책'을 통해 녹색기술을 제2기 벤처 성장동력으로 기술창업 저변을 확대하였음. 같은 해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아이디어 사업화, 법·제도 등 규제 개선 등의 정책을 지원하였음
  - ('10년대 초반)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을 강조한 시기로, '10년 '청년 기술, 지식창업지원대책'을 통해 창업준비단계-사업화단계-재도전단계 등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음. '11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중심 혁신적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고, 같은 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구조와 기능의 고도화 및 민간협력형 창업보육모델을 확산하고자 하였음. '13년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창업 도전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또한 '15년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을 통해 창업 및 벤처 관련 연대보증 문제, 엔젤투자 활성화 등 현장애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음
  - ('10년대 후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창업·벤처 기업을 경제주체로 인식하고 관련 정

책을 추진하였음. '16년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을 수립해 기술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며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투입이 본격화 되었음. '19년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통해 창업-투자-회수 환경 하에 신산업·고기술 산업 중심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자 하였음

- ('20년대) 디지털·탄소중립 등 주요 이슈의 변화에 따른 산업대 전환, 지역 주도형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K-유니콘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유니콘기업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국내 벤처 생태계 체계화를 추진 하였음. '22년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를 통해 10대 초격차 분야 대상 유망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2-10] 국가 창업기업지원 정책 동향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면서부터이며,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 등에서 수행하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며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 
- '16년 5,764억 원 규모였던 정부의 창업 예산을 '21년 3조 5,578억 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21년 「창업지원법」을 35년 만에 전면 개정하며, 디지털 전환·산업 간 융복합시대에 맞는 창업지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해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함
  - 창업·벤처기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벤처투자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모태펀드 예산의 대폭 확대(4조 7천 억), 3대 벤처제도 도입(민간주도 벤처 확인제도('20), 「벤처투자촉진법」 제정('20),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20) 등)과 같은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 계획을 마련함
  - 이 외에도 2024년 정부는 지역주도형 벤처·창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3~'25)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 2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제2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을 주요 목표로 2023년부터 시행됨
  -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온라인 수출 및 시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드라이브 촉진, 미래 산업환경 적응을 위한 기업 디지털 기반 혁신역량 등 제고,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복합위기에 기인한 경영여로 대응 지원 강화 등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육성, 초격차·딥테크·신산업 기반 스타트업 기업 집중 육성,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소상공인 간 연계 상생환경 조성 등 추진
  - (소상공인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유망 소상공인 선별·집중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민간 주도 상권활력 전환, 소상공인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책 추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3),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3~'25)

[그림 2-1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술창업기업 증가, 신산업 창업지원, 기업가정신 및 5년내 창업 생존율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신산업 분야 창업 기준 및 범위 신규 마련, 신산업 창업 우선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분야 스타트업 집중 육성, 데이터기반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미원체계 마련, 친환경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 정책자금·보증·기술개발·인력·지역벤처펀드 조성 등 혁신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반 정비
  -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민-관 협력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스타트업 주도 상생 기반 성장,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지원, 부처간 협력을 통한 분야별 스타트업 특화 지원 등 정책 추진
  -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지역 창업 중심 거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편, 대학 내 청년창업 환경 개선 및 역할 강화, 지역혁신거점 조성을 통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등 추진
  - (기술창업 저변 확대) 'کم업(스타트업 축제)'의 세계화,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 창업 인프라 확산 등 기업가정신과 창업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추진
  - (창업정책 체계 마련) 범 정부 창업지원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확립해 통합관리함으로써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원 추진
  - (창업 진화 제도 마련) 현장 규제 해소 목적 플랫폼 마련, 창업 휴학 등 제도 개선 추진,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창업기업 부담 경감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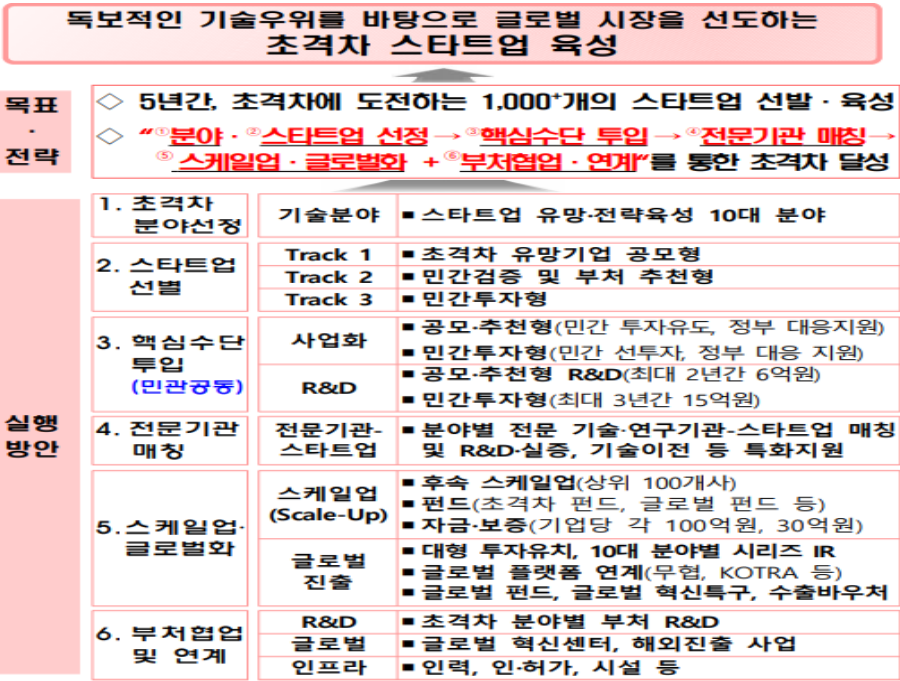
비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혁신 창업국가	
목표	연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22.9만개</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20%</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9위</li> <li>▶ 창업생존율(5년) : 31.2%</li> </ul>	미 래 ('21 ~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28만개</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40%</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4위</li> <li>▶ 창업생존율(5년) : 40%</li> </ul>	
전략 ①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전략 ②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전략 ③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 ④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전략 ⑤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전략 ⑥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1),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

[그림 2-12]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추진전략 및 과제

■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2)는 초격차 달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와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 및 발굴해 민관공동으로 집중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5년 간 초격차 도전 1000+개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립함
  - 창업법 및 신산업과 국가전략기술 중심 산업군에서 기술적 우위, 글로벌 선점 가능성,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고려해 10대 초격차 분야를 선정\*하고 '23년부터 공개모집형, 민간 및 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 3가지로 구분해 발굴함
  - \* 10대 초격차 분야 : ① 시스템반도체, ② 바이오·헬스, ③ 미래모빌리티, ④ 친환경·에너지, ⑤ 로봇, ⑥ 빅데이터·AI,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 우주항공·해양, ⑨ 차세대원전, ⑩ 양자기술
  - 5년간 선정 기업에 민간 공동 약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화 및 기술개발, 후속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하며, 정부출연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분야별 기업별 특화를 지원해 육성하고, 후속 스케일업 까지 지원하고자 함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2),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그림 2-13]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정책방향 및 실행전략

## 나. 중앙부처 추진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

-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13개 부처, 총 87건(3조 1,190억 원)으로 예비창업, 창업초기(3년 이내), 창업도약기(4년 이상 7년 이내), 신산업(10년 이내)로 구분해 지원되며, 신산업 분야는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에 따른 27개 분야\*가 속함
  - \*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지능형 로봇, ⑧ 스마트제조, ⑨ 시스템반도체, ⑩ 자율주행차, ⑪ 전기수소차, ⑫ 바이오, ⑬ 의료기기, ⑭ 기능성 식품,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⑯ 미래형 선박, ⑰ 재난/안전, ⑱ 스마트시티, ⑲ 스마트홈, ⑳ 신재생에너지, ㉑ 이차전지,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㉔ 우주, ㉕ 차세대 원전, ㉖ 양자, ㉗ 사이버 보안
- 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3건), 문화체육관광부(10건), 농림축산식품부(7건) 순으로 추진 중임
- 스타트업 지원사업 예산의 총 94.6%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 순으로 계획
-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유형은 글로벌, 기술개발(R&D), 멘토링·컨설팅·교육,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융자, 인력, 행사·네트워크의 8개 유형으로 구분
  -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유형은 사업화(33건), 글로벌(13건), 멘토링·컨설팅·교육(12건), 시설·공간·보육(12건) 순임
  -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타 중앙부처에서는 주로 멘토링·컨설팅·교육,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유형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장 많은 기술개발(R&D)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표 2-12] 중앙부처 추진 부처별 분야별 스타트업 지원사업('25년 기준)

구분	계	글로벌	기술개발(R&D)	멘토링·컨설팅·교육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융자	인력	행사·네트워크
계 (비중)	87 (100)	13 (14.9)	5 (5.7)	12 (13.8)	33 (37.9)	12 (13.8)	2 (2.3)	1 (1.1)	9 (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3	4	1	4	-	-	-	1
교육부	1	-	-	1	-	-	-	-	-
국방부	3	-	-	-	3	-	-	-	-

구분	계	글로벌	기술개발 (R&D)	멘토링 · 컨설팅 · 교육	사업화	시설 · 공간 · 교육	용자	인력	행사· 네트워크
국토교통부	2	-	-	-	-	2	-	-	-
농림축산 식품부	7	-	-	2	4	-	-	-	1
문화체육 관광부	10	1	-	-	9	-	-	-	-
법무부	1	1	-	-	-	-	-	-	-
보건복지부	4	-	-	2	1	1	-	-	-
중소벤처 기업부	36	8	1	2	9	9	2	1	4
통일부	3	-	-	1	2	-	-	-	-
특허청	2	-	-	2	-	-	-	-	-
해양수산부	2	-	-	1	-	-	-	-	1
환경부	3	-	-	-	1	-	-	-	2

자료 : 중소기업부, K-Startup(기준 : '25.5.4.) \* 자세한 목록은 부록1 참고

[표 2-13] 부처별 사업수 및 예산('25년 기준)

(단위: 개, 억 원, %)

구분	중앙부처		
	기관명	사업수	예산(비율)
1	중기부	36	29,499 94.6
2	문체부	10	530 1.7
3	과기부	13	454 1.5
4	환경부	3	237 0.8
5	농식품부	7	230 0.7
6	특허청	2	113 0.4
7	교육부	1	21 0.1
8	해수부	2	34 0.1
9	복지부	4	24 0.1
10	법무부	1	14 0.1
11	국토부	2	13 0.1
12	통일부	3	8 0.1
13	방사청	3	13 0.1
계	13	87	31,190 100.0

자료 : 중소기업부, 2025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 다. 전북 스타트업 지원 정책 추진 현황

- 전북자치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역 주도 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창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고,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은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이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의 주력산업 성장을 목표로 대학의 우수 인재를 활용한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을 통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창업 유지율을 제고시키고자 함

###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추진전략 6. 스마트 산업 기반 구축과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 내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분야에 창업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전북 내 연구개발 생태계가 조성되며 연구소기업 100개 달성 등의 양적 성과가 창출되었으나, 5년 생존율은 28%에 불과하였기에,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는 창업기업과 지역 산업 간의 성장 사다리 마련을 목표로 창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음
  - 창업, 성장, 강소기업 등 전주기 기업성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창업기업과 혁신형기업(스케일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후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 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투자 금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지역 구도심, 대학, 혁신도시 등을 활용해 도 내 창업 거점 기능을 고도화하고 민간 주도형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그동안 전북에 부족했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전주기 창업·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창업거점 인프라 구축, 창업보육센터 확대, 성장사다리 구축 및 하이 테크 창업 거점 인프라 신규 조성 등 지원 체계를 계획함
  - (창업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파크, 메이커 스페이스, 혁신성장센터 등 캠퍼스형 창업거점 인프라 마련
  - (창업보육센터) 창업 전후 자금, 마케팅, 네트워킹 등의 필요 지원을 위한 Pre-창업보육센터, Post-창업보육센터 확대
  - (전북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전북 자체 기업육성 프로그램, 정부기업육성 프로그램 등과 연계 창업, 도약, 선도, 스타, 강소기업 등 지원

- (지역 기업 성장 지원) 우수기업 조기 발굴, 지역정착을 위한 지역 투자펀드 조성 확대, 상용화 R&D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해외마케팅 및 수출 지원 등 추진
- (High-tech 인프라)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고기술 창업의 저변 조성을 위한 하이테크 창업 거점 인프라 신규 조성 추진



자료 : 전라북도(2021),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그림 2-14]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비전과 전략

### ■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 2023년 발표된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은 지속가능한 역동적 창업·벤처 활성화를 비전으로 스타트업타운 1개소, 해외 스타트업 50개사 유치, 스케일업 집중관리 100개사, 투자펀드 1조원 조성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 10개사를 육성하고자 함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2025년 2월 기준 전북 벤처펀드는 8,5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5년 내 1조원을 달성할 계획임

- (거버넌스 활성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역할 강화, 전북창업지원기관협의회 참여 기관 확대, 창업통합정보서비스 플랫폼 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자료 : 전북창업정보온라인서비스(<https://www.jbci.or.kr/>)

[그림 2-15] 창업통합정보서비스 플랫폼 운영 현황

- (성장 주기별 지원)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패키지 지원, 창업중심대학 집중관리 및 스케일업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클러스터 기반 마련)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TIPS 스테이션, 해외 유망스타트업 유치, 신산업 스타트업 위케이션 추진,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음

비 전

지속성장 가능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목 표

스타트업타운 조성	TIPS운영사 유치	위계이션기업 유치	해외스타트업 유치	스케일업 집중관리	투자펀드 조성	예비 유니콘 10
1개	5개	10개	50개	100개	1조 원	

5대 추진전략

20대 핵심과제

Ⅰ 거버넌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 역할 강화</li> <li>② 전북창업지원기관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운영</li> <li>③ 창업 통합정보 서비스 플랫폼 운영(Web, App)</li> <li>④ 공동 협력사업 발굴</li> </ul>
Ⅱ 네트워크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민간중심 창업·벤처정책 자문단 운영</li> <li>⑥ 투자 유망기업 발굴 집중 관리</li> <li>⑦ 공공-민간 창업·투자 지원기관과의 교류 확대</li> <li>⑧ 전북벤처 투자포럼 운영</li> <li>⑨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지원</li> </ul>
Ⅲ 클러스터 기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li> <li>⑪ TIPS 스테이션 구축</li> <li>⑫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그랜드 챌린지 얼라이언스)</li> <li>⑬ IT·게임 등 신산업 스타트업 위계이션 추진</li> <li>⑭ 창업보육센터 및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운영</li> </ul>
Ⅳ 성장 주기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⑮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맞춤형 창업패키지 지원</li> <li>⑯ 창업중심대학 집중관리 스케일업 지원</li> <li>⑰ 해외 지원기관 연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KORETOVIET 등)</li> <li>⑱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특례보증, 이차보전)</li> </ul>
Ⅴ 투자펀드 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⑲ 투자펀드 대규모 확대 조성</li> <li>⑳ 투자-회수-재투자 가능한 선순환 구조 구축(투자계정 신설)</li> </ul>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2023),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그림 2-16] 민선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방향

## 라. 전북 스타트업 지원 사업 현황

### ■ 지자체 추진 스타트업 지원 사업

- 2025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은 총 342건(1,743억 원)으로, 경기(54건), 경남(44건) 순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은 서울(382억, 21.8%), 경기(200억, 11.4%) 순으로 집행
  - 전북은 총 136억원 규모로 29건의 사업을 추진, 사업 수 및 예산규모 4위로 타 지자체 대비 투자 규모가 큰 편임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충남(325.8%)이며, 경남(49.2%), 울산(36.6%)이 뒤를 이음
  - 전북자치도 추진 창업지원사업도 연평균 31.2%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냄

[표 2-14]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현황('23년~'25년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서울	396.4	32	386	33	382	36	-1.8
경기	251.6	46	153	41	200	54	-10.8
경남	83.5	36	107	30	186	44	49.2
<b>전북</b>	<b>80.7</b>	<b>29</b>	<b>92</b>	<b>34</b>	<b>139</b>	<b>29</b>	<b>31.2</b>
충남	7.5	3	11	3	136	9	325.8
대전	59.8	9	60	8	106	15	33.1
광주	60	9	105	14	105	16	32.3
부산	107.8	24	106	23	104	22	-1.8
제주	61.8	19	79	17	103	20	29.1
강원	46.3	20	52	16	61	25	14.8
충북	75.5	20	58	14	58	18	-12.4
경북	44.7	11	67	15	44	11	-0.8
울산	22.5	8	53	14	42	8	36.6
인천	67.2	22	67	20	30	15	-33.2
전남	113.8	18	65	15	25	8	-53.1
대구	40.9	11	28	8	22	6	-26.7
세종	9.3	7	9	6	7	6	-13.2
계	1529.3	324	1498	311	1750	342	7.0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2023~2025)

- 전북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화 지원이 가장 많았으나, 융자 지원 유형의 사업이 투입예산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수 기준으로는 사업화(13건), 시설·공간·보육(7건), 행사·네트워크(3건), 기술개발(R&D), 멘토링·컨설팅·교육, 융자(각 2건) 순으로 나타남
  - 사업예산 기준으로는 융자(46.8억), 사업화(40.9억), 시설·공간·보육(18.4억), 멘토링·컨설팅·교육(14.2억), 기술개발(R&D)(11.5억), 행사·네트워크(7.5억) 순으로 나타남

[표 2-15] 전북 유형별 창업지원사업 및 예산('25년 기준)

구분	사업 수	예산(억 원)
기술개발(R&D)	2	11.5
멘토링·컨설팅·교육	2	14.2
사업화	13	40.9
시설·공간·보육	7	18.4
융자	2	46.8
행사·네트워크	3	7.5
계	29	139.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 ■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사업 현황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은 총 237건으로 이 중 사업화 지원이 115건(48.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 유형은 R&BD/비R&BD, 기술애로분석, 단기기술지원, 연구 및 생산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17.3%)이며, 투자유치(11.0%), 시설·공간·보육 유형(8.0%), 판로 및 해외진출 유형(7.6%)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기타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 분야는 콘텐츠 제작 지원(6건, 2.5%)이며,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1.7%), 기술 애로 분석 및 단기 기술 지원과 연구, 생산장비,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운전자금 지원(각 1.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 중앙부처 추진 창업지원사업 유형이 사업화 지원, 멘토링, 글로벌(해외진출) 순으로 많았던 것과는 달리 전북자치도에서는 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직접 지원과 투자유치 연결 등에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화 지원 유형의 경우 중앙부처 추진 사업은 전체 사업의 37.9%에 불과했던데 반해 전북자치도 추진 사업은 48.5%에 달하는 등 더 치중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2-16]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창업지원사업 현황('25년 기준)

(단위: 개, %)

구분	예비창업자	도약기창업자 (3년~7년)	초기창업자 (3년이하)	계	
				개	비중
교육, 멘토링	8	2	5	15	6.3
사업화지원	33	38	44	115	48.5
시설, 공간, 보육	7	5	7	19	8.0
투자유치	9	8	9	26	11.0
판로, 해외진출	4	7	7	18	7.6
행사, 네트워킹	1	1	1	3	1.3
기타(R&BD, 비R&BD 등)	1	-	-	1	0.4
기타(기술애로분석및단기기술지원)	1	1	1	3	1.3
기타(연구, 생산장비, 엔지니어링서비스등)	1	1	1	3	1.3
기타(IP기술 및 IP경영)	-	1	1	2	0.8
기타(R&BD, 비R&BD 등)	-	1	1	2	0.8
기타(기술 및 제품개발)	-	1	1	2	0.8
기타(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	2	2	4	1.7
기타(시제품 제작지원)	-	1	1	2	0.8
기타(운전자금 지원)	1	-	2	3	1.3
기타(인증취득 사후지원)	-	1	1	2	0.8
기타(정착 지원)	-	1	1	2	0.8
기타(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1	-	1	2	0.8
기타(지식재산 창출 및 후속지원)	1	-	1	2	0.8
기타(지식재산권 확보)	-	1	1	2	0.8
기타(창업체험)	1	-	-	1	0.4
기타(콘텐츠 제작지원)	1	2	3	6	2.5
기타(환경개선)	-	1	1	2	0.8
계	69	76	92	237	100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도 창업지원편람

---

## 5. 소결

- 본 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진단함
-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순환이 이뤄지는 자연생태계와 같은 종합적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음
  - 생태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시장, 자금, 정책, 인적자원, 문화, 지원 등)의 상호 연결성, 균형, 선순환 구조가 핵심임
-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사례를 통해 생태계 구성요소 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함
  - 국내 주요 도시들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 투자연계형 자금 지원 정책, 성장단계 별 맞춤형 지원체계, 산·학·연·민·관의 교류 확대 및 집적화를 적극 추진함
  - 국외 주요 도시들은 개별 정부의 역할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초기 생태계 구축을 구축하는데 주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였음. 이를테면, 혁신 이니셔티브의 결성, 투자 확대,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임
- 전북은 창업기업 수 비중의 확대 추세와 우수한 초기 생존율을 보이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 존재
  -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연평균 감소폭이 크고, 지역 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비중이 정체 중임
  - 생존율이 3년까지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치를 보이나, 3년 이후부터 타 지역 대비 생존율 낙폭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이 발견됨
  - 전북의 벤처투자 금액은 '21년 9위였으나, '23년 15위로 급락하였음
- 전북은 지자체 중 창업지원 예산이 높은 수준이며 우수한 하드웨어 보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생태계가 열악하여 민간 투자 자본의 유입이 제한적임
  - '23년 민선 8기에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원 조성, 전북창조경제 혁신센터 기반의 거버넌스 활성화, 성장주기별 지원, 사업화 집중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 전북은 민선 8기에 들어, 벤처투자를 위한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기에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초기 단계 수준으로 보임
  - 특히, 지역 내 VC가 전무하여, 후속투자를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성숙한 투자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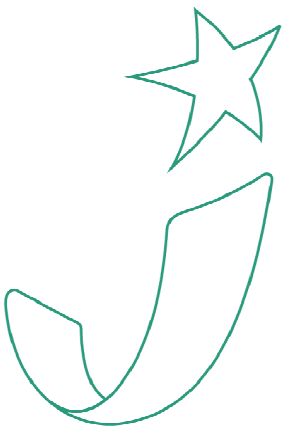




# 제3장

## 스타트업의 생존 결정요인 분석

1. 분석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 제3장 스타트업의 생존 결정요인 분석

## 1.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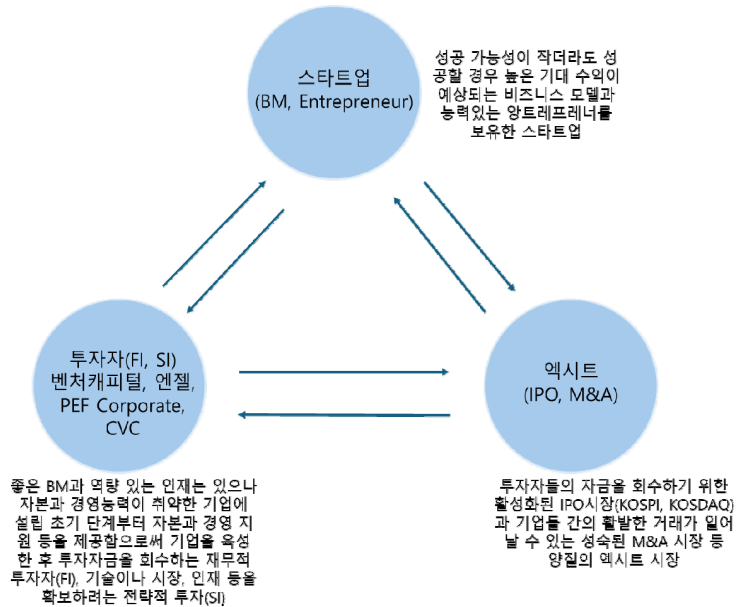
### 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요인

#### ■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요인

- 스타트업의 생존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타트업의 외부환경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며, 스타트업이 생존하여 성장단계에 진입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임
  - 신생 기업 및 스타트업의 생존은 자사가 속한 산업 자체와 시장의 발달 정도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Agarwal & Gort, 1996)
  - Kauffman & Wang(2001)은 스타트업이 속한 시장 자체의 발달 단계가 초기에 가까울수록 해당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위험비(hazard rates)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 Bandera & Thomas(2018)는 사회적 자본에의 접근성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정도가 스타트업의 생존율과 가지는 관계에 대한 연구함
- 스타트업은 스스로 성장하기보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
  - 유효상(2021)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비즈니스 모델, 투자자, 엑시트(Exit, 투자금 회수) 시장을 핵심 3대 축으로 간주하며 특히, 엑시트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창업→투자→성장→엑시트→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필수 요소임
-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상호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스타트업의 생존과 기존 스타트업의 성장에 큰 추진력을 제공하게 될 것임

#### ■ 성공요인

- 실제사례로 알아본 스타트업의 성공요인은 특정 요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창업가·경영자 역량, 자금 및 자원 확보, 제품·서비스 경쟁력, 마케팅 역량, 전략수립의 항목들이 스타트업의 단계, 산업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 유효상(2021), '스타트업 생태계 바로 읽기', Korea Startup Forum

[그림 3-1]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건인 요인

[표 3-1] 스타트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연구자	내용
이현호 외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 진출에 있어 성공을 좌우하는 변수를 식별하고, 식별된 변수(8가지) 중 가장 핵심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분석</li> <li>- (성공요인) ①자금(해외/국내 투자) ②연구개발(아이디어, 개발전략, R&amp;D 시설/기반) ③경영관리(경영자 능력) ④마케팅(마케팅 전략, 구매자 피드백)</li> </ul>
황세희 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주)우아한형제들의 성공 요인을 ERIS 및 성장 단계별 모델로 구분하여 분석</li> <li>- (성공요인) ①창업자 요인 ②자원(독특한 문화) ③ 산업환경 및 전략</li> <li>- (상업화단계 성공요인 1) '상업화 단계'의 경우 기존 경쟁자와의 차별화, 새로운 사업 모델과 공격적인 마케팅</li> <li>- (성장단계 성공요인 2) 매니아 중심의 마케팅과 플랫폼 다각화 전략</li> </ul>
하리다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가 요인) 투자 및 컨설팅과 같은 기업경영 관련 전문지식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벤처마킹 등 유연한 사고 ((주)컬리)</li> <li>- (자원 요인) 외부 ICT 도입을 통한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화</li> <li>- (산업환경 요인) 선택과 집중에 따라 상품성을 차별화하여 기존 고객의 만족도</li> <li>- (전략 요인) 사업전략의 다각화와 프로모션 마케팅 전략 등</li> </ul>

자료 : 박문수·박진(2023),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 조건, 산업연구원, p48-51

## 나. 투자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 ■ 투자유치가 스타트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투자기관의 투자유치나 투자의향을 측정하고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창업 초기단계에 진행되는 투자유치금액, 벤처캐피탈 투자여부, 투자지분을 등 스타트업 투자 관련 요인들이 스타트업의 성과나 성공과 밀접함을 내포
- 투자 주체 입장에서 AC는 리스크 매우 높지만 소액으로 많은 팀에 투자하는 반면, VC는 AC·엔젤이 1차 필터링 결과들을 확인하면서 수익률 기준으로 냉정하게 이뤄짐

[표 3-2] 투자유치가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연구자	내용
김건우·서병철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04년부터 '08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투자가 벤처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li> <li>- (요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투자를 유지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았으며 투자 규모가 클수록 그 차이가 벌어짐</li> </ul>
김은희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관광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변수를 성공의 주요 기준으로 투자유치 결정요인의 영향을 분석</li> <li>- (요인) 관광 스타트업의 성공에는 차별화된 사업전략과 더불어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li> </ul>
김선우·김정민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 투자 시기, 투자유치 금액 등에 따른 투자 성과</li> <li>- (요인) TIPS 선정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성장그룹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성장그룹은 후속 투자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li> </ul>
곽기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 Signore(2016)의 군집 분석 접근법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스타트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li> <li>- (요인) 벤처캐피탈 자금의 유치가 스타트업의 규모(자산 &amp; 매출액), 혁신 활동(연구개발 &amp; 특허권), 자금 조달(후속 VC 투자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li> </ul>

자료 : 박문수·박진(2023),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 조건, 산업연구원. p48-51

## ■ AC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 액셀러레이터는 기존 창업지원체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
  - 2020년 제정된 「벤처투자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획자'로 부르며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함
  - 더불어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촉진 전문회사 및 기관을 의미하기도 함
  - '액셀러레이터 산업백서 2025'에 의하면 국내 창업기획자 등록은 2025년 6월 기준 누적 474개의 창업기획자가 공시하여 활동 중이며, 권역별로는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집중됨
    - 국내 창업기획자 등록은 2017년 37개에서 2021년 6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2-2023년에는 연간 63개, 2024년에는 53개로 전년 대비 15.9% 감소함
    -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474개 창업기획자의 권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320개(67.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충청권이 55개(11.6%)로 2위, 경남권 39개(8.2%), 호남권 28개(5.9%), 경북권 23개(4.9%)순으로 나타남. 그 외 강원권은 5개(1.1%), 제주권은 4개(0.8%)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이 뚜렷한 양상을 보임
- 액셀러레이터는 지역적 제한이 없고, 투자뿐만 아니라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짐
  - 인큐베이터는 비영리조직으로서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나, 액셀러레이터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이윤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함
  - 벤처캐피탈은 소규모의 고위험 초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고, 멘토링·교육 등의 보육 기능이 없음
    - 주로 후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자금 투자 및 회수를 위주로 수행하며, 액셀러레이터는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함
  - 엔젤투자자는 개인의 역량으로 조직적 차원의 교육 및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엔젤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와는 투자 대상·분야가 유사하나,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후에도 종합적인 지원(시설 지원,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 V Assenova & R Amit(2024)은 미국의 7년간('13~'19년) 176개국 408개 액셀러레이터 심사를 통과한 8,580개 신생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액셀러레이터를 거친 스타트업이 경쟁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

- 본 논문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미국 내 기술 허브에 있는 첨단 스타트업에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와 같은 지역의 신흥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른 유형의 벤처에도 유익하다고 말함

[표 3-3] 기존 창업투자주체와 액셀러레이터의 비교

구분	초기 투자	사실 지원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 워킹	지원 기간	지원 단위	지원 빈도
인큐베이터	×	○	△	×	×	장기	개별	비경쟁적
벤처캐피탈	△	×	×	△	△	지속적	개별	경쟁적
엔젤투자자	○	×	×	△	△	지속적	개별	계속적
액셀러레이터	○	△	○	○	○	단기	기수별	주기적

주 : ○는 활발, △는 보통, ×는 미흡 및 부재를 의미함

자료 : 이정우(2016), 창업대중화의 주역, 액셀러레이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투자자 관점에서의 AC의 투자 결정요인

- 투자결정요인들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존재하지만,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 보다는 투자결정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및 평가하여 투자결정이 이루어짐
  - 한주형 외(2020)는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의사결정자가 스타트업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인들은 창업가(팀)의 기업가적 특성, 창업가(팀)의 전문성, 성공시의 잠재적 수익률인 것을 밝힘
  - 허주연(2020)은 미국 액셀러레이터 기업이 스타트업 선정을 위해 진행된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질문사항을 5개 카테고리화 및 세부결정요인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AHP분석을 실시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형 투자결정요인들 중 제품(또는 서비스)의 차별성 및 경쟁력 (Product related), 창업자의 유연한 사고와 실행력 (Human related\_Entrepreneur), 창업자와 팀원들의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Human related\_Team), 적합한 수익모델 (Finance related), 고객의 니즈정도 (Market related), 투자자의 전문영역과의 연관성 (Investor related)이 카테고리별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 한주형 외(2020)는 판단분석 기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스타트업 투자 의사결정 영향요인을 분석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의사결정자 43명이 총 36개의 판단과제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여 창업가(팀)의 기업가적 특성, 창업가(팀)의 전문성, 성공시의 잠재적 수익률이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의사결정
  -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결정자가 스타트업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 중에 창업가(팀)의 기업가적 특성, 창업가(팀)의 전문성, 성공시의 잠재적 수익률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변정욱 외(2022)은 액셀러레이터 투자 결정요인을 5개의 상위계층(경영자특성, 제품서비스특성, 시장특성, 재무특성, 현금화가능성)으로 도출하고 각 상위계층별 하위 결정요인을 22개로 설정하여 AHP로 분석
  -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대상(31개)으로 투자 결정요인에 대해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관리운영능력(경영자특성), 경험과 실적(경영자특성), 신뢰성(경영자특성), 성장성(시장특성), 혁신성(제품서비스특성)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됨

## ■ VC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 벤처캐피탈은 스타트업과 같이 혁신기업이 창업 초기 시점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임
  - 벤처캐피탈의 투자 결정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평가 및 판단이 쉽지 않지만, 많은 연구들이 벤처캐피탈이 자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의 생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Hellman and Puri(2002)은 1990년대 실리콘밸리 소재 173개 스타트업 대상으로 VC 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문 및 인터뷰 형식의 분석
    - 혁신성이 높은 스타트업일수록 벤처캐피탈을 통한 자금 조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며,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스타트업이 내부조직을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과정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빨라졌음을 밝힘
    - Amazon, Apple, Facebook, Google, Netflix 등과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들 역시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고 성장

[표 3-4] 벤처캐피탈의 주요 역할

분류	기능	선행연구
자금 지원	- 벤처캐피탈의 1차적 기능 - 직접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한 후 자본이득을 실현함으로써 일반금융 기관의 한계를 넘는 금융활동	- Brophy(1981) - Timmons & Bygrave(1986) - Chiampou & Kallett(1989) - Gompers(1995)
성장 지원	- 벤처캐피탈의 부가적 기능 - 경영전반에 걸친 전문적 조언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 - 벤처기업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역할 수행	- Tyebjee & Bruno(1984) - Fried & Hisrich(1988) - Lerner(1995)
공개 지원	- 벤처캐피탈의 부가적 기능 - 투자기업의 기업공개 시 지원 기능 - 기업 공개 지원(IPO) 및 자금과 성장의 간접적 지원	- Barry et al.(1990) - Megginson & Weiss(1991) - 윤병섭·이기환(2003) - 윤병섭·구형건 외(2005)

자료 : 고병기 외(2022) 재구성

## ■ 투자자 관점에서의 VC의 투자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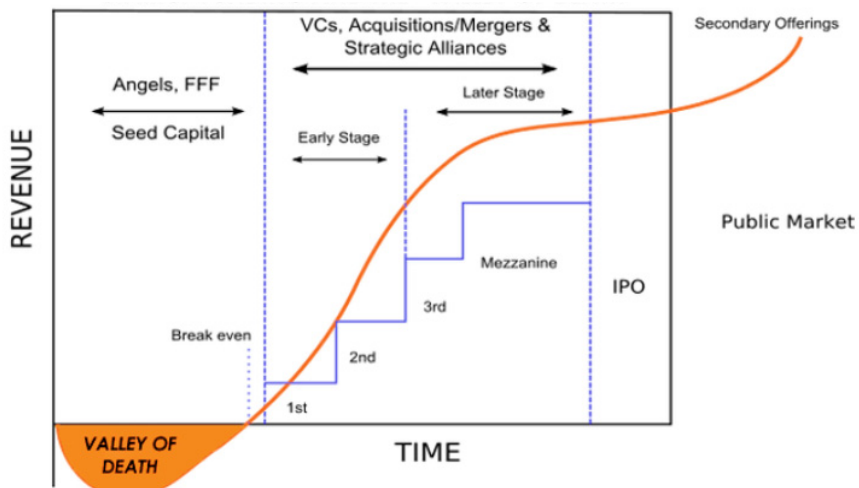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의 투자 기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시장성 및 재무적 특성과 관련된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김진수 외(2024)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 의사결정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7개 요인(① 창업자의 역량, ② 창업자의 경험, ③ 제품/서비스, ④ 시장, ⑤ 재무적 상황, ⑥ 투자조건, ⑦ 벤처캐피탈 공동 투자)으로 살펴봄
    -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경험, 제품/서비스는 경제 불황기에, 시장 요인은 경제 호황기에, 재무적 상황과 투자조건 요인은 경제 불황기에 중요도가 높게 나타남
  - Baumann, Mehlhorn(2024)는 세포 농업 산업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VC)의 투자 결정 기준은 확장성, 창업팀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제품 및 기술의 부가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밝힘
    - 세포농업 산업에서의 VC 투자결정 요인을 초기선별단계를 초점에 맞추어 살펴보기 위해 투자결정 요인을 창업팀의 기업가 정신, 과학/기술(배경지식), 시장(경쟁우위), 제품 및 기술의 부가가치, 확장성(성장가능성)에 대해 중요도를 설문분석함
  - 구중희 외(2019)는 벤처캐피탈의 VC의 투자 의사결정 기준을 5개(창업자의 특성, 제품/서비스의 특성, 시장의 특성,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범주로 나누고 총 30개 세부요인을 정의하여 전체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시장성장성(시장의 특성)', '느리게 성장, 형성 확실(시장성장성)'이 각각 1,2위로 나타남

- 5개 범주단위에서의 의사결정 기준에 선호는 '창업자 특성' 33.%로 가장 높았음
- 반성식 외(2002)는 한국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 의사결정이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8개(① 시장 정통성, ② 리더십 능력, ③ 창업 경험, ④ 소유권 보호, ⑤ 시장규모, ⑥ 시장 성장성, ⑦ 경쟁자 수, ⑧ 경쟁의 강도) 요인으로 조사분석
  - 두 국가 벤처캐피탈리스트 모두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벤처캐피탈리스트는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한국 벤처캐피탈리스트는 소유권 보호를 더 중점에 둠
- Valkonen(2018)는 VC가 핀란드의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할 때 판단기준을 연구함
  - VC 투자는 정보비대칭·대리인문제 같은 시장실패를 완화하고 혁신기업 성장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고성장·고변동·빠른 기술변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VC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느냐를 분석
  - 일반적으로 알려진 VC 투자기준(팀·시장·시장·재무)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팀 요인이 더 강조되었음
- 미국 VCs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MacMillan et al.(1985)은 벤처 투자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신규 벤처 투자 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을 파악
  - 28개의 의사결정 기준을 ①창업자의 성격(personality), ②창업자의 경험(experience), ③제품/서비스의 특성, ④시장 특성, ⑤재무적 고려사항, ⑥창업팀의 특성 등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
  - 벤처 투자자들의 유형을 3가지 유형(경쟁 위험에 대해 보수적인 투자자, 구제금융 활용에 적극적인 투자자, 모든 기회에 활용할 의지가 있는 투자자)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

## ■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사이클(Startup Financing Cycle)

- Cardullo(1999)는 기술기업이 상장(IPO) 또는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어떤 투자자가 어떤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지를 설명하였음
  - Y축인 수익(Revenue)은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증가하고, 손익분기점(Break even)은 누적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지점임
  - X축은 창업 직후부터 회수 시점인 IPO 단계까지의 생애주기를 보여줌
  -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은 기술은 있으나 시장 매출이 거의 없어 추가적인 외부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 실패 혹은 기업 소멸의 위험이 극도로 높은 기간임

- 자금조달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며, 시드단계, 시리즈 펀딩 단계, 엑시트 단계로 볼 수 있음
  - 시드단계는 죽음의 계곡과 함께 하는 단계로, 엔젤투자, 사모투자, 혹은 시드 펀딩을 받는 단계로서, 공식적인 첫 자본의 펀딩을 받는 단계이며, 이때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통해 트랙 레코드를 생성함
  - 시리즈 펀딩 단계는 초기성장단계(Early Stage)와 후기성장단계(Later Stage)로 구분되는데, 초기성장 단계에는 시리즈A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하여 스케일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이고, 후기성장단계는 시리즈B 이상의 단계로 기업의 성장을 이루고, 투자시장에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임
  - 엑시트 단계는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써 최종 투자금 회수단계임



자료: Cardullo(1999)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인용함

[그림 3-2] 스타트업 투자유치 사이클

---

## 2. 실증분석

### 1) 분석 방법

#### ■ 분석 자료

- 본 분석을 위한 자료는 '혁신의 숲'의 DB를 이용하여 개별 스타트업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였음
  -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데이터는 접근이 상당히 어려우며 비수도권의 경우 더욱 난이도가 있음
  - DB는 총 2,529개의 기업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기업 개요, 투자유치이력, 특허, 재무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을 시행함
  - 본 자료는 '25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투자 이력, 재무정보 등이 매칭이 되지 않거나 분석 시 요구되는 투자 단계의 이력이 비공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 데이터는 삭제하였음
  - 투자사의 정보는 '혁신의 숲'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참여 투자자의 분류를 수행하였음

#### ■ 변수 구성

- 변수는 접근 가능한 개별 스타트업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투자 유치 단계, 일반적 특성, 재무정보, 투자정보 등에 집중하였음
- 종속변수는 투자유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Cardullo(1999)가 언급한 대로 외부 투자자금의 확보가 생존의 중요 조건으로 둠
  - 초기 생존의 중요 지점은 결국 죽음의 계곡의 위험이 존재하는 단계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의 유무가 크게 작용할 것임
  - 최종 생존은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 시리즈A를 유지하는 단계로 보아, 생존에서 벗어나 성장에 이르는 길목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함
- 설명변수는 일반적 특성, 재무정보, 투자정보 등으로 구성하였음

- (일반적 특성) 업력, 특허 보유 유무, 특허 평가 점수, 특허 보유 개수 등임
- (재무정보) 자산, 부채, 자본,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임
- (투자정보) 첫투자 소요기간, 투자 건수, 투자 금액, 투자자 수, 투자사별 구분데미(CVC, VC, AC 등)
- (지역구분) 전북 혹은 5극 3특의 구분 데미를 활용함

## ■ 분석 방법

- 분석방법은 2단계로 나뉘서 단계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초기 생존 단계와 최종 생존 단계를 지정하여 각 단계별로 투자유치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초기 생존 단계) 최초 Seed 혹은 Pre-A 등의 외부투자금을 받는 최초 투자 유치의 확률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함
  - (최종 생존 단계) 시리즈A를 유치하는 순간 최종 생존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시리즈A 유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마찬가지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
- 분석을 위한 모형은 ‘이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음
- (초기생존모형) 최초 투자 유치는 유치 전 스타트업의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가 결정되었을 것이라 가정하여, 투자유치기업, 투자미유치기업에 따라 변수의 시차를 달리 적용하여 분석함
  - (투자유치기업) 각 변수를 구성할 때, 투자 유치를 받은 시점의 직전 연도의 정보를 활용함
  - (투자미유치기업)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최근 시점 연도의 정보를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함
- (최종생존모형) 본 모형은 시리즈A 투자 유치의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생존모형과 마찬가지로 시리즈A를 유치한 시점에 따라 변수의 시차를 달리 적용함
  - (투자유치기업) 각 변수를 구성할 때,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받은 시점의 직전 연도의 정보를 활용함
  - (투자미유치기업)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한 기업이므로, 최근 시점 연도의 정보를 활용함

## ■ 기초통계량

- (초기생존모형)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총 932개이며, 그 중에서 투자유치기업은 266개, 투자미유치기업은 666개임
- (업력) 투자유치기업이 미유치기업에 비해 업력이 3년미만인 기업의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전북의 경우, 투자미유치기업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 투자미유치기업이 특허를 가진 기업의 개수가 많고 특허 평균 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무정보) 투자미유치기업이 평균 매출, 자산, 자본 등의 규모가 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양(+)의 값을 가지며, 투자유치기업은 규모가 작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음(-)의 값을 보임
- (종합)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이 투자유치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 않고 특허도 적은 것으로 보임

[표 3-5] 초기생존 결정요인의 기초통계량

변수	투자유치기업		투자미유치기업		전체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업력 3년미만(%)	0.83	1.00	0.09	0.00	0.30	0.00
업력 3년이상5년미만(%)	0.12	0.00	0.22	0.00	0.19	0.00
업력 5년이상7년미만(%)	0.04	0.00	0.23	0.00	0.18	0.00
업력 7년이상(%)	0.02	0.00	0.46	0.00	0.33	0.00
전북 더미(%)	0.03	0.00	0.05	0.00	0.04	0.00
극 더미(%)	0.16	0.00	0.16	0.00	0.16	0.00
특허 보유 개수(개)	3.08	2.00	9.93	4.00	9.29	4.00
특허 더미(%)	0.15	0.00	0.58	1.00	0.46	0.00
당기순이익(백만원)	-136.66	-20.59	6.78	15.79	-34.16	4.15
매출액(백만원)	394.55	69.88	12,433.82	1,087.22	8,997.72	602.07
부채(백만원)	785.66	201.26	13,022.42	1,104.44	9,529.95	708.16
영업이익(백만원)	-176.21	-78.92	861.79	8.85	565.54	-22.10
자본(백만원)	387.53	60.58	15,846.92	441.75	11,434.69	269.29
자본금(백만원)	214.73	50.00	853.75	140.00	671.37	100.00
자산(백만원)	1,173.18	287.88	28,869.34	1,690.68	20,964.64	1,018.54
관측치 수	266		666		932	

자료: '혁신의 숲'의 DB를 활용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함

- (최종생존모형)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총 530개<sup>1)</sup>이며, 그 중에서 투자유치기업은 51개, 투자미유치기업은 479개임
  - (업력) 시리즈A 유치기업이 미유치기업에 비해 업력이 5년 미만인 기업들이 다수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전북의 경우, 시리즈A 미유치기업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허) 시리즈A 미유치기업이 특허를 가진 기업의 개수가 많고 특허 평균 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무정보) 시리즈A 유치기업이 자산, 자본, 자본금의 규모가 더욱 큰데 비해,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의 규모가 적었으나, 부채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나 재무적 안정성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시리즈A 유치기업이 투자자수, 총 투자금액, 투자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VC의 투자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리즈A 미유치기업은 AC 투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수임
  - (종합) 시리즈A 유치기업은 업력 5년 미만의 업력에 다수 분포하고 있고, 부채비율이 낮은 재무적 안정성의 특징이 있으며 VC의 후속투자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

1) 초기투자모형에서 투자유치기업이 266개이므로, 분석의 대상 관측치 수는 266개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분석의 대상이 되는 표본 수가 너무 작아짐. 그래서 원활한 분석과 의미있는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초기 원데이터에서 투자라운드 분류에서 비공개로 되어 seed와 pre-A의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seriesA는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는 모두 표본에 추가하였음.

[표 3-6] 최종생존 결정요인의 기초통계량

변수	시리즈A 유치기업		시리즈A 미유치기업		전체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업력 3년미만(%)	0.51	1.00	0.14	0.00	0.18	0.00
업력 3년이상5년미만(%)	0.37	0.00	0.20	0.00	0.22	0.00
업력 5년이상7년미만(%)	0.08	0.00	0.23	0.00	0.21	0.00
업력 7년이상(%)	0.04	0.00	0.43	0.00	0.39	0.00
전북 더미(%)	0.02	0.00	0.05	0.00	0.05	0.00
극 더미(%)	0.18	0.00	0.21	0.00	0.21	0.00
특허 보유 개수(개)	1.51	0.00	1.70	0.00	1.68	0.00
특허 더미(%)	0.33	0.00	0.41	0.00	0.40	0.00
당기순이익(백만원)	-526.18	-195.71	-440.57	-129.01	-448.81	-133.36
매출액(백만원)	675.24	101.76	1,392.64	466.77	1,323.61	415.64
부채(백만원)	1,803.52	363.19	1,557.02	733.24	1,580.74	710.58
영업이익(백만원)	-626.46	-380.13	-514.07	-217.25	-524.88	-239.52
자본(백만원)	1,993.33	833.73	900.38	332.86	1,005.55	352.10
자본금(백만원)	742.78	180.74	236.50	78.30	285.22	83.93
자산(백만원)	3,796.85	1,631.73	2,457.40	1,121.82	2,586.29	1,156.91
총 투자자 수(개)	4.22	4.00	2.41	2.00	2.58	2.00
총 투자금액(백만원)	5,174.32	4,000.00	668.74	50.00	1,102.29	100.00
총 투자건수(건)	1.94	2.00	1.60	1.00	1.63	1.00
첫 투자 소요 기간(년)	1.75	1.00	1.72	1.00	1.72	1.00
VC 투자 여부(%)	0.37	0.00	0.14	0.00	0.17	0.00
CVC 투자 여부(%)	0.10	0.00	0.04	0.00	0.05	0.00
AC 투자 여부(%)	0.02	0.00	0.46	0.00	0.42	0.00
관측치 수	51		479		530	

자료: '혁신의 숲'의 DB를 활용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함

## 2) 분석결과

### ■ 초기 생존 단계

- 종합적으로, 스타트업 초기 투자유치 여부는 재무적 특성이나 지역적 요인보다 기업이 위치한 성장단계에 의해 가장 강하게 설명됨
  - 이는 초기 투자유치가 기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기업 생애주기상 특정 시점에서 더 발생하는 구조적 사건임을 시사함
  - 결국, 초기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할 때, 개별 기업의 재무 개선이나 단기 성과 제고와 같은 접근보다 초기 단계 기업이 투자시장과 효과적으로 접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태계적 접근과 단계적 전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기업이 초기단계에 있을수록 초기 투자 유치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재 성과보다는 비정량적 요소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자산, 자본금, 부채 등의 재무적 특성은 초기 투자 유치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초기 스타트업의 특성상 재무 데이터가 아직 갖춰져있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를 중요지표로 보지 않음을 시사하며, 오히려 비정형적인 요소(성장 가능성, 사업 아이디어, 대표자 특성, 팀 빌딩 등)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혹은 비수도권의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음.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문수·박진(2023)의 경우, 초기 투자유치에 재무변수들이 투자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허의 보유는 초기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단순히 특허의 유무보다는 특허의 질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기술 중심의 초기 기업이 매출이나 사업화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한 R&D 지원금 선정 등에 치우친 결과의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로 이어지는 확률이 떨어질 수 있음

[표 3-7] 초기 투자유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변수		투자여부		투자여부(한계효과)	
		Coefficient	Std. err.	Coefficient	Std. err.
일반특성	전북더미	-0.845	0.595	-0.077	0.054
	업력3년미만	5.077***	0.550	0.460***	0.045
	업력3년이상5년미만	2.322***	0.559	0.211***	0.052
	업력5년이상7년미만	1.253**	0.615	0.114**	0.056
	특허 보유	-0.167***	0.064	-0.015***	0.006
재무특성	자산	-0.064	0.048	-0.006	0.004
	자본금	0.145	0.092	0.013	0.008
	부채	0.057	0.053	0.005	0.005

자료: '혁신의 숲'의 DB를 활용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함

주: \*, \*\*, \*\*\*는 p-value를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 최종 생존 단계

- 종합적으로, 시리즈A 투자 유치는 초기 투자 유치와는 달리 누적된 투자 이력, 투자자 유형이라는 시장 내부의 신호에 의해 강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리즈A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투자시장 내에서 검증된 기업에 대한 선택적 확증 과정임을 시사함
- 시리즈A단계에서는 업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나, 5년미만의 기업들이 투자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초기 투자와는 달리, 특허 개수가 투자 유치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시리즈A 단계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기술적 진입장벽이나 IP가 검증되어야 함을 의미함
- 재무적인 특성보다는 여전히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됨
- 총투자건수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시리즈A 진입 가능성이 증가함
- 투자자 수는 단일 투자보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는 검증된 기업이 시리즈A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첫 투자소요기간은 길어질수록 시리즈A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첫 투자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검증과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VC의 투자를 받았던 이력이, 시리즈A 투자 유치 확률을 높이는 반면, AC의 영향력은 초기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시리즈A로 연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임
  - 초기 단계에서 VC가 참여한 기업은 투자시장 내부에서도 성장가능한 기업이라는 강한 신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용함
  - 결국, 누가 투자를 하여 끌고 왔는지가 시리즈A 단계에 결정적 영향이 있으며, 후속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 주도의 초기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주로 정책적 시행이 되고 있으며 AC의 주도적 초기 시장의 조성 단계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여지며, 사업화·시장성의 미흡, 기업가 정신의 미흡 등의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음

[표 3-8] 시리즈A 투자유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변수	투자여부		투자여부(한계효과)		
	Coefficient	Std. err.	Coefficient	std. err.	
일반특성	전북더미	-3.268	2.621	-0.103	0.082
	업력3년미만	15.226***	2.746	0.480***	0.064
	업력3년이상5년미만	12.828***	2.541	0.404***	0.064
	업력5년이상7년미만	8.695***	2.172	0.274***	0.059
	특허개수	0.230***	0.070	0.007***	0.002
재무특성	자산	-0.115	0.075	-0.004	0.002
	자본금	0.382	0.257	0.012	0.008
	부채	0.065	0.063	0.002	0.002
투자특성	투자자수	0.298**	0.133	0.009**	0.004
	총투자건수	0.692**	0.323	0.022**	0.010
	첫투자소요기간	1.430***	0.262	0.045***	0.006
	투자자유형: CVC	0.616	0.887	0.019	0.028
	투자자유형: VC	0.960*	0.544	0.030*	0.017
	투자자유형: AC	-2.957**	1.173	-0.093**	0.036

자료: '혁신의 숲'의 DB를 활용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함

주: \*, \*\*, \*\*\*는 p-value를 의미하며,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

### 3. 소결

- 본 장은 비수도권 스타트업에 대해, 초기 투자유치 여부와 시리즈 A 투자유치 여부를 각각 설정한 로짓분석을 통해 스타트업의 초기생존 및 최종 생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
- 특히, 초기 생존과 최종 생존의 단계적 분석을 통해 단계적 차별성과 구조적 전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분석 결과, 두 단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요인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거나 지역적 입지보다 기업이 위치한 성장단계, 즉 업력 요인이 투자유치 여부를 가장 강하게 설명함. 이는 투자유치가 기업의 현재 성과를 평가한 결과라기보다, 특정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사건임을 시사함
- 초기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업력 요인을 제외할 경우, 재무변수와 지역 변수의 설명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투자가 재무적 안정성이나 축적된 성과보다는 기업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함
- 시리즈A 투자유치 분석에서는 업력과 더불어 특히, 누적된 투자 이력, 투자자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음
  - 시리즈A 단계의 투자유치는 단순한 후속 투자가 아니라, 초기 투자를 통해 형성된 성장 경로와 시장 내 신뢰가 충분히 검증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선별적 승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투자자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러한 단계적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초기 단계에서 벤처캐피탈(VC)의 참여는 시리즈A 투자유치 가능성을 유의하게 제고하는 반면, 액셀러레이터(AC) 투자 경험은 오히려 시리즈A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보유 여부는 초기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시리즈A 단계에서는 기술적 신뢰성과 사업의 방어력을 나타내는 보조적 신호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자산의 투자 의미 역시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 또한 전복을 포함한 지역 더미 변수는 일관되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비수도권 내에서 지역 자체가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투자 접근성, 네트워크, 정보 흐름 등 간접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종합하면,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는 단일한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투자 단계와 시리즈A 단계 사이에 서로 다른 기준과 병목이 존재하는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선별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역시 초기 투자유치 확대와 시리즈A로의 도약을 동일한 정책 틀로 다루기보다는, 각 단계의 투자 판단 구조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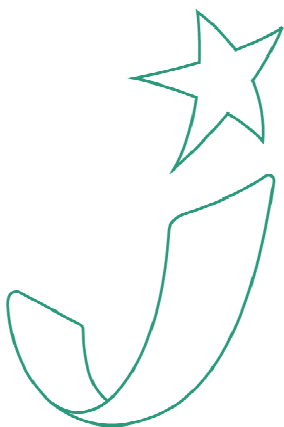




## 제4장

### 전북 투자생태계 진단

1. 전북 스타트업 투자 실태 분석
2. 문제점 도출을 위한 심층인터뷰
3.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델파이 분석
4. 소결





## 제 4 장 전북 투자생태계 진단

### 1. 전북 스타트업 투자 실태 분석

#### 가. 일반 현황

##### ■ 기본 현황

- 전국 3,00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4 벤처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벤처기업은 수도권에 66.2%, 비수도권에 33.8%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첨단 제조업 35.7%, 첨단 서비스업 24.0%, 일반 제조업 21.9% 등 순으로 분포함
- 업력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4년~ 10년 사이의 기업이 41.0%, 11년~20년 사이 기업이 30.7%, 21년 이상 기업이 21.5%, 3년 이하 기업이 6.8%로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4년~10년 사이의 기업이 41.8%, 11년~20년 사이 기업이 32.4%, 21년 이상 기업이 22.8%, 3년 이하 기업이 5.4%로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4년~ 10년 사이의 기업이 39.4%, 11년~20년 사이 기업이 32.4%, 21년 이상 기업이 22.8%, 3년 이하 기업이 5.4%로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4년~10년 기업이 48.3%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고, 11년~20년 사이 기업은 24.1%, 21년 이상 기업은 19.0%, 3년 이하 기업은 8.6%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서도 10년 이하 신생 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벤처기업과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 그 비중이 조금 더 집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국 벤처기업을 업종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첨단 제조업 35.7%, 첨단 서비스업 24.0%, 일반 제조업 21.9%, 일반 서비스업 12.2%, 기타 6.2%로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첨단 제조업 34.4%, 첨단 서비스업 30.0% 등 첨단 산업이 64.4%에 달하였고, 일반 제조업 16.1%, 일반 서비스업 13.9%, 기타 5.7%로 나타남
  - 반면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첨단 제조업 38.3%, 일반 제조업 33.4%, 첨단 서비스업 12.2%, 일반 서비스업 9.1%, 기타 7.0%로 나타나는 등 제조업 중심의 업종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북 벤처기업은 비수도권의 양상과 같이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이 분포되어 있으나, 첨단 제조업 (32.8%)보다 일반 제조업(41.4%)을 중심으로 업종이 분포되어 있었고, 첨단 서비스업 12.1%, 일반 서비스업 8.6%, 기타 5.2%의 분포가 나타남
- 전국 벤처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고도성장기 39.4%, 성숙기 31.7%, 초기 성장기 20.3%, 창업기 6.8%, 쇠퇴기 1.8%로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 39.9%, 성숙기 30.3%, 초기 성장기 20.4%, 창업기 7.6%, 쇠퇴기 1.8%로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 38.3%, 성숙기 34.5%, 초기 성장기 20.2%, 창업기 5.1%, 쇠퇴기 1.9%로 나타나 고도성장기와 성숙기의 차이가 수도권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전북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 41.4%, 성숙기 29.3%, 초기 성장기 24.1%, 쇠퇴기 3.4%, 창업기 1.7%로 나타나 고도성장기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크고, 창업기에 속한 기업의 비중이 가장 낮아 신규 벤처 진입 기반이 취약함
- 또한 전북 벤처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기에 속한 기업이 높아 성장 정체 또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기업도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북 벤처기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로의 전환에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함을 대변할 수 있음

[표 4-1] 벤처기업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분포

		구분	응답 수	비율
업 력 별	전 국	3년 이하	203	6.8%
		4~10년	1,230	41.0%
		11~20년	921	30.7%
		21년 이상	646	21.5%
		소 계	3,000	100%
	수 도 권	3년 이하	148	7.5%
		4~10년	830	41.8%
		11~20년	592	29.8%
		21년 이상	415	20.9%
		소 계	1,985	66.2%
	비 수 도 권	3년 이하	55	5.4%
		4~10년	400	39.4%
		11~20년	329	32.4%
		21년 이상	231	22.8%
		소 계	1,015	33.8%

			구분	응답 수	비율		
전북			3년 이하	5	8.6%		
			4~10년	28	48.3%		
			11~20년	14	24.1%		
			21년 이상	11	19.0%		
			소 계	58	1.9%		
전국	제조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291	9.7%		
			의료/제약	250	8.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30	11.0%		
			통신기기/방송기기	200	6.7%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322	10.7%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336	11.2%		
			서비스	첨단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379	12.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40	11.3%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367	12.2%		
		기타		185	6.2%		
	소 계		3,000	100%			
	수도권	제조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156	7.9%	
				의료/제약	158	8.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15	10.8%	
통신기기/방송기기				153	7.7%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143	7.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76	8.9%		
			서비스	첨단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311	15.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84	14.3%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275	13.9%		
		기타		114	5.7%		
소 계		1,985	66.2%				
비수도권		제조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135	13.3%	
				의료/제약	92	9.1%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15	11.3%	
	통신기기/방송기기			47	4.6%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179	17.6%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60	15.8%		
			서비스	첨단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68	6.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56	5.5%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92	9.1%		
		기타		71	7.0%		
	소 계		1,015	33.8%			

				구분	응답 수	비율	
전북	제조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4	6.9%		
			의료/제약	5	8.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9	15.5%		
			통신기기/방송기기	1	1.7%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14	24.1%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0	17.2%		
			서비스	첨단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6	10.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	1.7%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5	8.6%		
	기타				3	5.2%	
	소 계				58	1.9%	
	성장 단계 별	전국	창업기		203	6.8%	
			초기성장기		609	20.3%	
			고도성장기		1,182	39.4%	
성숙기			951	31.7%			
쇠퇴기			55	1.8%			
소 계			3,000	100%			
수도권			창업기		151	7.6%	
		초기성장기		404	20.4%		
		고도성장기		793	39.9%		
		성숙기		601	30.3%		
		쇠퇴기		36	1.8%		
		소 계		1,985	66.2%		
비수도권		창업기		52	5.1%		
		초기성장기		205	20.2%		
		고도성장기		389	38.3%		
		성숙기		350	34.5%		
		쇠퇴기		19	1.9%		
		소 계		1,015	33.8%		
전북		창업기		1	1.7%		
		초기성장기		14	24.1%		
		고도성장기		24	41.4%		
		성숙기		17	29.3%		
		쇠퇴기		2	3.4%		
		소 계		58	1.9%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 재무현황

- 업력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자산, 매출, 자기자본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 벤처기업은 전 업력 구간에서 자산, 매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특히 21년 이상 기업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가장 높아 안정적 성장 축적이 확인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업력 증가에 따라 재무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수도권 기업과 비교해 자기자본 축적 속도가 완만하고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업력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 매출의 규모가 제한적이며, 특히 초기 및 중기 업력 구간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재무기반이 취약함
- 업종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자산과 매출 규모와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반면, 서비스업은 부채비율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첨단서비스업에서 높은 자기자본비율과 매출 규모를 보이며 가장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나타냄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제조업에서 자산,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일반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전 업종에서 자산, 매출, 자기자본 비율이 낮게 나타나며, 구조적 영세성을 나타냄
- 성장단계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와 성숙기에서 자산, 매출, 자기자본이 집중되며,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 성숙기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성장의 결과가 재무적 축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까지는 재무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거나 성숙기에서 수도권과 비교해 자본 축적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 비중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성장단계 상승과 재무안정성이 연관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임

[표 4-2]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재무현황

		구분	평균 자산총계	평균 부채총계	평균 자본총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업종별	전국	3년 이하	3,880.5	2,299.4	1,581.1	40.7%	168.8%		
		4년~10년	14,101.2	7,509.5	6,591.7	46.7%	187.8%		
		11년~20년	21,900.2	11,648.9	10,251.3	46.8%	188.0%		
		21년 이상	41,140.4	18,036.7	23,103.7	56.2%	228.1%		
		소계	21,607.3	10,612.8	10,994.5	50.9%	203.6%		
	수도권	3년 이하	5,374.7	2,688.7	2,686.0	50.0%	199.9%		
		4년~10년	12,879.3	7,223.8	5,655.4	43.9%	178.3%		
		11년~20년	23,154.8	11,659.4	11,495.4	49.6%	198.6%		
		21년 이상	41,137.1	17,158.4	23,978.7	58.3%	239.7%		
	소계	21,292.1	10,285.5	11,006.5	51.7%	207.0%			
	비수도권	3년 이하	2,386.2	1,910.1	476.1	20.0%	124.9%		
		4년~10년	15,323.2	7,795.2	7,528.0	49.1%	196.6%		
		11년~20년	20,645.5	11,638.4	9,007.2	43.6%	177.4%		
		21년 이상	41,143.7	18,914.9	22,228.8	54.0%	217.5%		
		소계	22,223.7	11,252.7	10,971.0	49.4%	197.5%		
	전북	3년 이하	397.0	270.7	126.3	31.8%	146.7%		
4년~10년		9,023.5	6,385.2	2,638.3	29.2%	141.3%			
11년~20년		8,666.7	6,086.3	2,580.4	29.8%	142.4%			
21년 이상		47,653.3	29,145.6	18,507.6	38.8%	163.5%			
소계		15,520.0	10,102.6	5,417.5	34.9%	153.6%			
업종별	전국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3,267.2	13,731.8	9,535.4	41.0%	169.4%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9,240.2	10,790.7	8,449.6	43.9%	178.3%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31,592.7	14,832.6	16,760.1	53.1%	213.0%	
			의료/제약	37,555.4	16,784.2	20,771.1	55.3%	223.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8,329.3	11,528.3	16,801.0	59.3%	245.7%	
		통신기기/방송기기	15,962.8	8,482.2	7,480.6	46.9%	188.2%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4,645.8	6,861.3	7,784.6	53.2%	213.5%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기타서비스	12,433.7	5,702.0	6,731.7	54.1%	218.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9,885.2	5,340.8	4,544.4	46.0%	185.1%
			기타	8,745.3	4,877.8	3,867.4	44.2%	179.3%	
	소계		21,607.3	10,612.8	10,994.5	50.9%	203.6%		
	수도권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18,011.8	9,202.1	8,809.7	48.9%	195.7%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8,904.4	10,013.0	8,891.4	47.0%	188.8%	
			에너지/화학/정밀	19,702.3	10,408.7	9,293.6	47.2%	189.3%	
			의료/제약	38,909.6	18,570.6	20,339.1	52.3%	209.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5,938.2	14,952.7	20,985.5	58.4%	240.3%		
통신기기/방송기기		22,524.7	11,066.8	11,457.9	50.9%	203.5%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8,835.2	9,292.7	9,542.5	50.7%	202.7%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기타서비스	18,195.8	8,160.5	10,035.3	55.2%	223.0%	

		구분	평균 자산총계	평균 부채총계	평균 자본총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비수도권		장비통신/방송서비스	14,260.2	7,654.1	6,606.2	46.3%	186.3%	
		기타	9,466.7	5,311.5	4,155.2	43.9%	178.2%	
		소계	21,474.9	10,463.3	11,011.6	51.3%	205.2%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8,522.6	18,261.4	10,261.2	36.0%	156.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9,576.1	11,568.4	8,007.7	40.9%	169.2%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43,483.2	19,256.5	24,226.7	55.7%	225.8%
			의료/제약	36,201.1	14,997.9	21,203.2	58.6%	241.4%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0,720.4	8,103.9	12,616.5	60.9%	255.7%
		통신기기/영상기기	9,400.8	5,897.5	3,503.3	37.3%	159.4%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0,456.5	4,429.8	6,026.7	57.6%	236.0%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기반서비스	6,671.7	3,243.6	3,428.1	51.4%	205.7%
장비통신/방송서비스		5,510.2	3,027.6	2,482.7	45.1%	182.0%		
기타		8,023.9	4,444.2	3,579.7	44.6%	180.5%		
소계		18,856.7	9,323.1	9,533.6	50.6%	202.3%		
전북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30,721.2	22,148.4	8,572.9	27.9%	138.7%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4,195.7	2,530.9	1,664.8	39.7%	165.8%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22,169.8	11,161.1	11,008.7	49.7%	198.6%
			의료/제약	22,900.4	15,871.5	7,029.0	30.7%	144.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9,851.4	10,735.9	9,115.5	45.9%	184.9%
		통신기기/영상기기	3,898.0	2,109.0	1,789.0	45.9%	184.8%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2,858.3	1,942.8	915.5	32.0%	147.1%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기반서비스	4,148.8	2,700.5	1,448.3	34.9%
		장비통신/방송서비스	1,836.0	839.0	997.0	54.3%	218.8%	
		기타	448.8	358.0	90.8	20.2%	125.4%	
소계	15,520.0	10,102.6	5,417.5	34.9%	153.6%			
조정근거별	전국	창업기	33,646.2	15,508.4	18,137.8	53.9%	217.0%	
		초기성장기	21,582.4	11,292.1	10,290.3	47.7%	191.1%	
		고도성장기	8,755.6	4,658.8	4,096.9	46.8%	187.9%	
		성숙기	6,210.6	3,912.5	2,298.1	37.0%	158.7%	
		쇠퇴기	10,470.0	6,471.1	3,999.0	38.2%	161.8%	
		소계	21,607.3	10,612.8	10,994.5	50.9%	203.6%	
	수도권	창업기	32,005.5	14,977.9	17,027.6	53.2%	213.7%	
		초기성장기	22,480.1	10,921.7	11,558.4	51.4%	205.8%	
		고도성장기	9,029.9	4,503.0	4,526.9	50.1%	200.5%	
		성숙기	7,164.0	4,510.0	2,654.0	37.0%	158.8%	
		쇠퇴기	13,137.1	7,054.7	6,082.4	46.3%	186.2%	
		소계	16,763.3	8,393.5	8,369.9	49.9%	199.7%	
	비수	창업기	35,286.9	16,038.8	19,248.1	54.5%	220.0%	

구분		평균 자산총계	평균 부채총계	평균 자본총계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도 권	초기성장기	20,684.7	11,662.4	9,022.3	43.6%	177.4%
	고도성장기	8,481.4	4,814.5	3,666.9	43.2%	176.2%
	성숙기	5,257.1	3,314.9	1,942.2	36.9%	158.6%
	쇠퇴기	7,803.0	5,887.5	1,915.5	24.5%	132.5%
	소계	15,502.6	8,343.6	7,159.0	46.2%	185.8%
전 북	창업기	35,227.3	22,533.1	12,694.2	36.0%	156.3%
	초기성장기	8,972.9	6,178.5	2,794.4	31.1%	145.2%
	고도성장기	3,508.9	2,444.5	1,064.4	30.3%	143.5%
	성숙기	215.6	115.6	100.0	46.4%	186.5%
	쇠퇴기	18,305.0	10,133.0	8,172.0	44.6%	180.6%
소계	15,520.0	10,102.6	5,417.5	34.9%	153.6%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1)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2) 자기자본비율 : (자산총계-부채총계)/자산총계

3) 부채비율 : 자산총계/부채총계

## ■ 매출구조

- 업력별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국내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가 평균 34.1%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짐
  - 수도권 벤처기업 역시 업력이 증가할수록 국내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B2B 중심 거래가 평균 65.5%, 이 중 대기업과의 거래가 평균 19.9%,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가 34.7%, 해외 매출도 약 10.6%로 타 지역에 비해 비중이 크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국내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B2B가 총 60.7%, B2G가 총 20.3%로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가짐
  - 전북 벤처기업은 국내 매출 비중 95.2%로 타 지역에 비해 국내 매출 의존도가 더 높고, B2G 비중도 27.3%로 타 지역에 비해 공공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첨단제조업 분야의 해외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서비스업은 B2G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 중 의료/제약 분야의 해외 비중은 31.2%로 가장 크게 나타내며, 대기업군과의 거래는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9.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7.9%,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2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 역시 의료/제약 분야의 해외 비중이 28.6%로 가장 높았고, 첨단서비스업과 통신기기/방송기기가 각각 평균 31.5%, 37.9%로 B2G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에서도 의료/제약 분야는 해외 매출 비중이 25.0%로 가장 컸고, 통신기기/방송기기,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정보통신/방송서비스는 각각 100%, 58.8%, 40.0%로 동일 업종을 기준으로 타 지역에 비해 B2G 비중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B2C 평균도 약 13.2%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성장단계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국내 매출 비중이 감소하다 성숙기에 들어 일시적으로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쇠퇴기에 중소/벤처기업과의 매출 비중이 42.6%로 급격히 높아짐
  - 수도권 벤처기업 역시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국내 매출 비중이 감소하다 성숙기에 들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아지며, 중소/벤처기업과의 매출 비중은 성숙기 42.0%, 쇠퇴기 52.3%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성장단계가 높아져도 국내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쇠퇴기에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며, 쇠퇴기 B2G 비중이 35.9%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국내 매출 비중이 감소하다가 성숙기에 들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쇠퇴기 B2G 비중이 40.0%, 해외 매출 비중도 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표 4-3]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매출 구조

구분		B2B			B2C	B2G	해외			
		대기업 /대기업소속사	중소 /벤처기업	중견기업	소비자	공공				
업 종 구 분	전 국	3년 이하	11.7	40.6	9.0	18.8	14.3	5.6		
		4년~10년	15.7	36.1	10.8	14.2	14.5	8.7		
		11년~20년	19.8	32.7	11.7	8.3	16.3	11.3		
		21년 이상	24.6	29.8	10.0	5.1	16.4	14.2		
		소계	19.2	34.1	10.9	10.8	14.3	10.7		
	수 도 권	3년 이하	14.6	39.6	10.1	18.8	12.3	4.5		
		4년~10년	17.4	37.7	10.6	14.3	10.8	9.3		
		11년~20년	21.8	31.4	12.8	8.4	13.3	12.3		
		21년 이상	25.8	30.0	10.2	5.4	12.4	16.1		
		소계	19.9	34.7	10.9	11.7	12.2	10.6		
	비 수 도 권	3년 이하	8.7	41.6	7.8	18.8	16.3	6.7		
		4년~10년	13.9	34.5	11.1	14.1	18.3	8.1		
		11년~20년	17.7	34.0	10.5	8.1	19.3	10.3		
		21년 이상	23.4	29.5	9.8	4.8	20.3	12.2		
		소계	15.9	34.9	9.8	11.4	18.6	9.3		
	전 북	3년 이하	10.0	30.0	10.0	40.0	10.0	0.0		
		4년~10년	10.6	32.0	15.4	8.8	29.3	4.1		
		11년~20년	7.1	29.1	12.3	20.8	23.9	6.9		
		21년 이상	22.1	27.3	7.1	2.7	34.6	6.2		
		소계	11.9	30.2	12.6	13.2	27.3	4.8		
업 종 구 분	전 국	제 조 업	일반 제조 업	기계/자동차/금속	17.6	36.8	17.8	4.4	9.8	13.5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8.5	38.5	7.5	14.0	13.2	8.3	
		첨 단 제 조 업	에너지/화학/정밀	19.9	31.0	12.6	10.7	9.5	16.2	
			의료/제약	2.8	43.7	6.7	13.6	3.3	29.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6.0	28.0	12.6	3.9	17.0	12.5	
			통신기기/방송기기	13.3	41.3	8.3	2.0	26.9	8.2	
		서 비 스 업	일반 서비 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5.1	37.3	12.0	12.2	18.5	4.9
			첨 단 서 비 스 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21.5	26.5	7.8	14.7	24.8	4.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4.0	27.0	10.4	13.0	22.6	3.0
				기타	18.4	37.4	9.0	12.1	22.2	0.8
	소계		19.2	34.1	10.9	10.8	14.3	10.7		
	수 도	제 조	일반 제조	기계/자동차/금속	16.6	38.7	20.7	3.4	6.1	14.5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7.0	43.4	7.5	12.4	10.7	9.0	

구분			B2B			B2C	B2G	해외		
			대기업 /대기업소속사	중소 /벤처기업	중견기업	소비자	공공			
권	업	업								
		첨단 제조 업	에너지/화학/정밀	19.8	30.5	13.3	10.0	8.8	17.6	
			의료/제약	3.5	47.6	4.6	10.8	2.3	31.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9.1	25.1	13.6	2.5	13.5	16.1	
			통신기기/방송기기	17.4	40.2	9.3	4.1	15.8	13.2	
	서 비 스 업	일반 서비 스업	도שמ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5.2	38.9	12.4	16.9	9.4	7.2	
		첨단 서비 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24.5	25.9	8.9	18.4	15.1	7.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7.9	27.2	11.6	12.2	16.6	4.4	
	기타			22.1	41.4	10.4	7.9	17.1	1.2	
	소계			19.3	35.9	11.2	9.9	11.5	12.2	
	비 수 도 권	제 조 업	일반 제조 업	기계/자동차/금속	18.6	34.9	15.0	5.3	13.5	12.6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9.9	33.6	7.6	15.5	15.7	7.7
			첨단 제조 업	에너지/화학/정밀	20.1	31.5	12.0	11.5	10.1	14.7
				의료/제약	2.2	39.8	8.8	16.3	4.3	28.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2.8	30.9	11.6	5.3	20.4	8.9
통신기기/방송기기		9.3		42.5	7.2	0.0	37.9	3.1		
서 비 스 업		일반 서비 스업	도שמ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4.9	35.8	11.7	7.4	27.5	2.7	
		첨단 서비 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8.5	27.0	6.6	11.0	34.5	2.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0.0	26.8	9.2	13.8	28.6	1.7	
기타			14.7	33.4	7.6	16.4	27.4	0.5		
소계			16.1	33.6	9.7	10.2	22.0	8.3		
전 북		제 조 업	일반 제조 업	기계/자동차/금속	10.2	40.1	8.1	11.2	23.4	7.0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30.5	15.2	12.0	8.0	33.5	0.8
			첨단 제조 업	에너지/화학/정밀	0.0	20.0	10.0	34.5	25.3	10.3
				의료/제약	12.0	24.0	23.4	15.6	0.0	25.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1.2	46.2	19.4	5.1	17.5	0.7	
	통신기기/방송기기	0.0		0.0	0.0	0.0	100.0	0.0		
	서 비 스 업	일반 서비 스업	도שמ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2.0	29.0	15.0	10.0	34.0	0.0	
		첨단 서비 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7	27.8	10.0	1.7	58.8	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0.0	12.0	30.0	8.0	40.0	0.0	
	기타			0.0	33.3	0.0	66.7	0.0	0.0	
	소계			11.9	30.2	12.6	13.2	27.3	4.8	
	성 장 단 계 별	전 국	창업기	23.2	33.0	10.4	7.8	13.5	12.1	
			초기성장기	18.2	31.7	11.4	10.7	16.0	12.0	
			고도성장기	13.4	37.2	9.9	15.2	16.7	7.7	
			성숙기	17.4	39.3	13.8	10.4	17.3	1.8	
쇠퇴기			9.6	42.6	7.2	9.7	20.9	10.0		
소계			16.3	36.8	10.5	10.8	16.9	8.7		

구분		B2B			B2C	B2G	해외
		대기업 /대기업소속사	중소 /벤처기업	중견기업	소비자	공공	
수도권	창업기	25.0	32.2	11.4	7.7	11.0	12.6
	초기성장기	19.5	31.7	11.3	11.9	12.3	13.3
	고도성장기	14.7	38.2	10.8	15.3	12.9	8.1
	성숙기	21.3	42.0	10.7	9.4	13.3	3.3
	쇠퇴기	14.2	52.3	6.5	5.3	5.9	15.8
	소계	18.9	39.3	10.2	9.9	11.1	10.6
비수도권	창업기	21.3	33.8	9.4	8.0	15.9	11.6
	초기성장기	16.9	31.7	11.4	9.5	19.8	10.7
	고도성장기	12.1	36.1	9.0	15.1	20.4	7.3
	성숙기	13.5	36.5	16.9	11.5	21.3	0.3
	쇠퇴기	5.0	32.8	8.0	14.0	35.9	4.2
	소계	13.8	34.2	10.9	11.6	22.7	6.8
전북	창업기	26.8	32.7	8.1	5.0	25.6	1.8
	초기성장기	5.7	30.5	15.9	10.5	32.1	5.3
	고도성장기	5.7	29.9	13.6	22.1	21.3	7.4
	성숙기	0.0	0.0	0.0	100.0	0.0	0.0
	쇠퇴기	8.5	22.5	10.0	10.0	40.0	9.0
	소계	11.9	30.2	12.6	13.2	27.3	4.8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 지분구조

- 업력별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창업자와 임직원의 지분은 감소하고, 외부 투자자의 지분 비중이 확대되는 전형적인 성장-투자 유입구조를 보임
  - 수도권 벤처기업은 전 업력 구간에서 외부 투자자 지분 비중이 높고, 특히 11년 이상 기업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이 뚜렷하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업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지분 유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부 투자 유입 속도가 완만함
  - 전북 벤처기업은 업력증가에도 창업자 지분 의존도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외부 투자자 지분 비중이 제한적으로 나타남
- 업종별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창업자 지분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은 외부 자본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첨단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 모두에서 외부 투자자 지분 비중이 높아 지분 분산 구

조가 가장 발달한 것으로 보임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창업자 및 내부 지분 비중이 높아 외부 투자 참여가 제한적인 구조를 보임
- 전북 벤처기업은 업종 전반에서 창업자 지분 집중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 투자자 지분은 첨단제조업 일부 업종에 국한해 높게 나타남
- 성장단계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창업자 지분은 감소하고 외부 투자자 지분이 확대되는 단계적 희석 구조가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 성숙기 기업의 외부 투자자 지분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지분 분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임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까지는 창업자 지분 유지 경향이 강하고, 성숙기 이후에 지분 분산이 일부 업종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 전북 벤처기업은 고도성장기 및 성숙기에도 창업자 지분 비중이 높게 유지되어 성장 단계 상승과 투자 유입 구조가 연결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임

[표 4-4]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지분구조

			구분	A	B	C	D	E	F	G
업종별	전국		3년 이하	67.0	9.5	6.9	5.3	5.2	1.9	4.2
			4년~10년	60.8	9.0	6.7	9.4	6.4	1.3	6.3
			11년~20년	54.6	10.0	8.0	12.6	5.5	0.6	8.7
			21년 이상	44.2	12.3	8.7	15.4	6.3	0.6	12.5
			소계	55.6	10.1	7.5	11.5	6.1	0.9	8.3
	수도권		3년 이하	63.8	10.3	5.9	7.0	8.1	1.3	3.4
			4년~10년	59.5	9.4	6.6	7.4	8.7	1.6	6.8
			11년~20년	54.2	9.9	7.4	12.4	6.6	0.5	9.1
			21년 이상	44.3	11.8	7.7	13.8	7.9	0.5	14.0
			소계	55.1	10.1	7.0	10.2	7.9	1.0	8.7
	비수도권		3년 이하	70.1	8.7	7.9	3.6	2.3	2.5	4.9
			4년~10년	62.2	8.6	6.7	11.3	4.1	1.1	5.9
			11년~20년	55.1	10.1	8.6	12.8	4.4	0.6	8.3
			21년 이상	44.0	12.8	9.7	17.0	4.8	0.7	11.0
			소계	56.2	10.1	8.1	12.7	4.3	0.9	7.8
	전북		3년 이하	92.0	0.0	4.0	0.0	4.0	0.0	0.0
			4년~10년	60.1	10.0	10.2	11.7	2.5	0.6	4.8
			11년~20년	57.5	11.1	17.1	4.8	2.3	0.0	7.1
			21년 이상	31.1	27.6	10.3	13.0	1.4	0.1	16.7
			소계	56.7	12.8	11.4	9.3	2.4	0.3	7.2
업종별	전국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57.2	9.9	7.1	15.1	5.3	0.5	4.8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59.9	8.0	8.0	17.8	1.8	0.1	4.4
		일반제조업								

		구분		A	B	C	D	E	F	G	
	첨단 제조 업	에너지/화학/정밀		50.7	10.8	7.5	11.7	6.8	1.4	11.1	
		의료/제약		44.8	8.4	6.2	15.3	9.5	1.4	14.4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53.9	11.3	7.7	12.3	4.5	0.7	9.7	
		통신기기/방송기기		56.9	8.1	9.0	11.8	3.3	0.6	10.3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 기타서비스	57.7	9.3	6.4	8.9	7.3	1.3	9.0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 비스		57.8	12.9	7.3	4.3	9.3	1.3	7.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59.6	10.0	7.7	7.1	6.3	1.8	7.6
	기타				59.9	13.2	8.7	10.8	2.9	0.1	4.3
	소계				55.8	10.2	7.5	11.5	5.7	0.9	8.3
	수도권	제조 업	일반 제조 업		기계/자동차/금속	55.9	11.1	6.0	16.8	5.3	0.7
음식료/섬유/비금속/기 타제조			61.5	7.8	6.7	16.6	2.5	0.1	4.8		
첨단 제조 업			에너지/화학/정밀		51.6	9.6	7.5	13.0	7.8	1.0	9.6
			의료/제약		46.6	7.0	6.1	13.0	11.1	1.3	14.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51.1	11.5	6.3	13.0	6.0	0.7	11.4	
통신기기/방송기기		60.8	9.3	9.6	9.7	2.9	0.1	7.5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 기타서비스	59.2	8.2	6.1	6.1	10.7	1.2	8.4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 비스		51.6	12.0	7.2	5.2	12.3	1.9	9.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56.2	10.5	7.5	6.8	9.0	1.4	8.8
기타				56.9	14.4	8.0	12.0	3.5	0.2	4.9	
소계				55.1	10.1	7.1	11.2	7.1	0.9	8.4	
비수도권	제조 업	일반 제조 업		기계/자동차/금속	58.6	8.7	8.2	13.5	5.3	0.4	5.4
		음식료/섬유/비금속/기 타제조		58.3	8.1	9.2	19.0	1.2	0.2	4.0	
		첨단 제조 업	에너지/화학/정밀		49.8	12.0	7.5	10.5	5.8	1.8	12.5
			의료/제약		43.0	9.8	6.2	17.6	8.0	1.6	13.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56.7	11.1	9.1	11.6	3.0	0.6	8.0		
	통신기기/방송기기		52.9	6.8	8.4	14.0	3.6	1.2	13.1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 기타서비스	56.3	10.3	6.7	11.6	4.0	1.4	9.6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 비스		64.0	13.8	7.3	3.4	6.4	0.6	4.5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2.9	9.6	7.9	7.5	3.6	2.1	6.4
	기타				62.9	12.0	9.4	9.6	2.4	0.0	3.7
소계				56.5	10.2	8.0	11.8	4.3	1.0	8.1	
전북	제조 업	일반 제조 업		기계/자동차/금속	56.5	8.4	11.3	12.5	2.5	0.0	8.8
		음식료/섬유/비금속/기 타제조		58.0	22.2	6.3	6.5	0.0	0.0	7.0	
		첨단 제조 업	에너지/화학/정밀		41.3	10.0	18.8	10.0	0.0	0.0	20.0
			의료/제약		22.0	40.0	16.0	10.0	4.0	0.0	8.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58.0	6.6	17.8	6.8	4.4	0.9	5.5		
	통신기기/방송기기		40.0	0.0	0.0	60.0	0.0	0.0	0.0		
	서비스업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	68.0	0.0	12.0	12.0	2.0	0.0	6.0

구분				A	B	C	D	E	F	G	
성장단계별	서비스업	첨단 서비스업	기타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63.0	16.8	10.5	4.3	2.0	0.0	3.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5.0	0.0	0.0	0.0	1.0	9.0	5.0
				기타	93.3	0.0	0.0	0.0	6.7	0.0	0.0
				소계	56.7	12.8	11.4	9.3	2.4	0.3	7.2
	전국			창업기	50.5	10.4	7.9	15.7	5.3	0.5	9.6
				초기성장기	56.3	10.0	7.8	10.4	7.0	0.9	7.7
				고도성장기	62.4	9.1	7.1	7.3	5.6	1.3	7.1
				성숙기	56.4	12.9	5.9	9.5	6.0	2.3	7.0
				쇠퇴기	50.4	10.7	5.2	10.7	5.7	2.1	15.2
				소계	55.2	10.6	6.8	10.7	5.9	1.4	9.3
				소계	49.6	10.8	7.0	13.9	6.7	0.5	11.4
	수도권			창업기	55.3	9.8	7.3	10.2	9.0	0.7	7.8
				고도성장기	60.6	10.0	7.0	5.6	7.8	1.7	7.2
				성숙기	60.6	10.8	6.2	7.9	6.4	1.7	6.4
				쇠퇴기	56.0	4.5	5.5	10.7	8.5	4.1	10.8
				소계	56.4	9.2	6.6	9.7	7.7	1.8	8.7
	비수도권			창업기	51.4	10.1	8.9	17.6	3.8	0.5	7.8
				초기성장기	57.3	10.2	8.3	10.6	5.0	1.0	7.7
				고도성장기	64.3	8.1	7.2	9.0	3.4	1.0	7.0
				성숙기	52.2	15.0	5.6	11.1	5.6	2.9	7.6
				쇠퇴기	44.9	16.9	4.9	10.7	2.9	0.1	19.5
			소계	54.0	12.0	7.0	11.8	4.2	1.1	9.9	
	전북			창업기	44.6	17.8	11.8	15.4	2.6	0.1	7.7
				초기성장기	51.1	16.3	13.2	7.2	2.6	0.7	9.0
				고도성장기	78.0	1.1	8.2	6.9	0.9	0.0	4.9
			성숙기	80.0	0.0	0.0	0.0	20.0	0.0	0.0	
			쇠퇴기	67.0	15.0	14.0	4.0	0.0	0.0	0.0	
		소계	56.7	12.8	11.4	9.3	2.4	0.3	7.2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1)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2) A) 창업자, B) 공동창업자 및 대표이사, C) 임직원, D) 가족, E) 벤처캐피털/기관투자자, F) 엔젤투자자/액셀러레이터, G) 개인투자자

## ■ 인력현황

- 업력별 직종별 전국 벤처기업의 평균 조사자는 3년 이하 평균 14명에서 21년 이상 평균 93명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인력은 생산직이 평균 21명으로 가장 많고, R&D 고용인원이 평균 10명으로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3년 이하 평균 19명에서 21년 이상 평균 98명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타 지역에 비해 고용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용 인력은 생산직이 평균 19명으로 가장 많고, R&D 고용인원이 평균 11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가장 많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3년 이하 평균 9명에서 21년 이상 평균 87명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수도권에 비해 고용 인력이 적은 편임. 고용 인력은 생산직이 평균 21명으로 가장 많고, R&D 고용인원이 평균 7명으로 연구개발에 비해 생산 위주의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북 벤처기업은 3년 이하 평균 9명에서 21년 이상 평균 105명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타 지역에 비해 고용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고용 인력은 생산직이 평균 16명으로 가장 많고, R&D 고용인원이 평균 6명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직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제약 분야의 평균 종사자수가 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제조업 분야 업종의 R&D 인력 고용이 가장 적게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의료/제약 평균 종사자수가 72명,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평균 종사자수가 71명으로 평균 고용 인원이 가장 많았고,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업종의 R&D 인력 고용이 평균 23명으로 가장 많았음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의료/제약 평균 종사자수가 79명, 에너지/화학/정밀 평균 종사자수가 75명으로 평균 고용 인원이 가장 많았고, 의료/제약 업종의 R&D 인력 고용이 평균 13명으로 가장 많았음
  - 전북 벤처기업은 의료/제약 평균 종사자수가 83명, 에너지/화학/정밀 평균 종사자수가 63명으로 평균 고용 인원이 가장 많았고, 에너지/화학/정밀 업종의 R&D 인력 고용이 평균 12명으로 가장 많았음
- 성장단계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창업기에서 고도성장기까지 평균 고용인원이 작아져 쇠퇴기까지 고용 규모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 수도권 벤처기업은 창업기 이후 고도성장기까지 종사자수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 벤처기업 역시 창업기 종사자 수가 가장 많았다가 고도성장기까지 종사자수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후 고용 규모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전북 벤처기업은 창업기에서 고도성장기까지는 종사자수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나, 쇠퇴기에 종사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표 4-5] 업력별, 업종별, 성숙단계별 직종별 종사자수

		구분	평균 종사자수	관리	생산	영업	R&D	기타	부직원		
업종 별	전국	3년 이하	14	2	4	1	4	2	3		
		4년~10년	37	7	14	5	7	4	3		
		11년~20년	53	10	21	6	9	7	3		
		21년 이상	93	15	41	10	16	11	2		
		소계	54	9	21	6	10	7	3		
	수도권	3년 이하	19	3	6	2	4	3	3		
		4년~10년	40	7	12	6	9	6	3		
		11년~20년	59	11	19	7	12	9	3		
		21년 이상	98	15	40	11	19	14	3		
		소계	54	9	19	6	11	8	3		
	비수도권	3년 이하	9	2	2	1	4	1	2		
		4년~10년	34	6	16	4	5	3	3		
		11년~20년	47	9	23	5	6	4	2		
		21년 이상	87	16	42	9	13	7	2		
		소계	44	8	21	5	7	4	2		
	전북	3년 이하	9	3	0	1	4	0	1		
4년~10년		21	4	10	2	4	1	2			
11년~20년		38	12	15	3	5	4	2			
21년 이상		105	22	41	15	15	11	2			
소계		40	9	16	5	6	4	2			
업력 별	전국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48	10	27	4	6	2	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48	8	26	5	4	4	2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54	9	25	6	8	4	3
				의료/제약	76	16	32	12	13	3	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58	9	30	5	10	4	3
		통신기기/방송기기	36	7	13	4	10	3	2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50	10	16	7	8	7	2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48	7	7	6	17	1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48	6	15	4	12	12	3	
			기타	32	5	8	3	3	12	2	
	소계		54	9	21	6	10	7	3		
	수도권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43	8	24	4	5	2	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43	8	23	5	4	3	2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42	8	18	6	7	4	3
				의료/제약	72	14	32	11	13	3	4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71	10	38	6	13	5	5
통신기기/방송기기		45	10	12	6	14	4	2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58	13	19	9	8	9	2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64	11	9	10	23	12	4

구분			평균 종자수	관리	생산	영업	R&D	기타	부족인원		
비 수 도 권	서비스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3	7	19	6	14	17	3		
		기타	37	5	7	4	4	17	1		
		소계	54	9	20	7	11	8	3		
	제조업	일반제 조업	기계/자동차/금속	52	11	30	4	6	1	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52	9	30	4	4	5	2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65	11	32	7	9	5	3	
			의료/제약	79	17	33	13	13	3	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45	8	23	4	7	4	2	
			통신기기/방송기기	27	4	14	3	5	2	1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42	8	14	5	9	6	2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31	4	5	3	11	8	2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3	4	10	3	9	7	2	
		기타	27	6	10	3	3	6	4		
		소계	45	8	20	5	8	5	2		
	전북	제조업	일반제 조업	기계/자동차/금속	51	9	31	3	6	2	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20	5	7	4	4	0	3
			첨단제 조업	에너지/화학/정밀	63	7	16	11	12	18	2
				의료/제약	83	28	27	14	9	4	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6	5	19	3	7	2	1
				통신기기/방송기기	15	2	7	3	3	0	0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54	23	13	5	6	7	1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5	2	2	1	7	3	3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1	4	0	2	3	22	4	
		기타	8	4	1	2	1	0	0		
		소계	40	9	16	5	6	4	2		
전 국	수도권	창업기	76	13	34	8	12	9	2		
		초기성장기	53	10	21	6	10	6	3		
		고도성장기	26	4	9	3	7	3	3		
		성숙기	23	3	7	2	6	5	2		
		쇠퇴기	26	5	9	3	6	3	1		
		소계	54	9	21	6	10	7	3		
		비수도권	창업기	81	13	31	9	15	13	2	
	초기성장기	59	11	20	8	12	8	4			
	고도성장기	29	5	8	4	8	5	3			
	성숙기	27	4	9	3	7	4	2			
	쇠퇴기	33	6	9	3	9	5	1			
	소계	46	8	15	5	10	7	2			
	비 수 도 권	창업기	72	14	36	7	9	5	1		
		초기성장기	48	9	22	5	7	5	3		
		고도성장기	23	4	10	3	6	2	2		
		성숙기	20	3	5	1	5	6	2		
		쇠퇴기	19	3	8	3	4	1	1		
소계		36	6	16	4	6	4	2			
전북	창업기	66	13	28	9	11	6	0			
	초기성장기	39	11	15	4	5	5	3			
	고도성장기	13	3	4	2	4	0	2			
	성숙기	1	0	1	0	0	0	0			

구분		평균 종자수	관리	생산	영업	R&D	기타	부직원
	취퇴기	45	6	30	4	5	1	3
	소계	40	9	16	5	6	4	2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고용애로를 겪는다고 답변한 직무를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31.0%, 생산/품질 18.8%, 홍보/마케팅/영업 18.2% 순으로 응답하였음
- 수도권 벤처기업에서는 연구/개발 31.2%, 홍보/마케팅/영업 19.5%, 생산/품질 15.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연구/개발 30.6%, 생산/품질 25.3%, 홍보/마케팅/영업 15.7% 순으로 응답하였음
- 전북 벤처기업은 타 지역과 다르게 연구/개발 31.0%, 기타 17.2%, 홍보/마케팅/영업, 생산/품질 각 16.4% 순으로 응답하여 전체 직무 전반에 고용애로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6] 지역별 고용 애로 직무

구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사/총무	158	2.6%	107	2.7%	51	2.5%	3	2.6%
재무/회계	197	3.3%	139	3.5%	58	2.9%	5	4.3%
전략/기획	507	8.5%	366	9.2%	141	6.9%	13	11.2%
홍보/마케팅/영업	1092	18.2%	774	19.5%	318	15.7%	19	16.4%
연구/개발	1860	31.0%	1238	31.2%	622	30.6%	36	31.0%
생산/품질	1128	18.8%	614	15.5%	514	25.3%	19	16.4%
유통/물류	123	2.1%	86	2.2%	37	1.8%	1	0.9%
기타	935	15.6%	646	16.3%	289	14.2%	20	17.2%
소계	6000	100.0%	3970	100.0%	2030	100.0%	116	100.0%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나. 투자 실태

### ■ 신규 자금조달

- 업력별 신규자금조달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신규조달 금액 규모가 증가하고, VC/엔젤 비중이 3년 이하 23.0%에서 21년 이상 1.6%로 급감, 민간 금융은 3년 이하 12.5%에서 21년 이상 39.1%로 증가함
  - 수도권 벤처기업 역시 VC/엔젤 비중이 3년 이하 22.5%에서 2.2%로 감소하고, 민간 금융은 3년 이하 12.2%에서 21년 이상 38.7%로 증가, 신규자금조달 규모는 업력이 증가할수록 신규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업력 증가에 따라 민간 금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1년 이상 39.6%에 달하고, 업력이 증가할수록 VC/엔젤 투자보다 회사채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3년 이하 기업에서는 VC/엔젤과 R&D를 중심으로 신규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1년 이상부터는 민간금융, 정책금융 중심으로 자금조달 구조가 급격히 전환되는 양상을 보임
- 업종별 신규자금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분야에서 민간금융 비중이 평균 34.5%로 가장 크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정책금융 비중이 평균 24.3%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 중 VC/엔젤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제조업에서는 의료/제약 분야(11.8%),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16.8%)이며, 통신기기/방송기기는 정책자금 비중이 42.7%로 높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첨단서비스업 분야가 VC/엔젤 투자 비중이 평균 16.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통신기기/방송기기는 R&D 비중이 48.9%로 수도권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분야 VC/엔젤 투자 비중이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타 지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보이고,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 다수 업종에서 단일 재원의존도가 높은 편중 구조를 보임
-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VC/엔젤 투자 비중이 커지나 쇠퇴기에 급감하며, 민간 금융 의존 비중이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수도권 벤처기업은 역시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VC/엔젤 투자 비중이 커지나 쇠퇴기에 급감하며, 민간 금융 의존 비중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쇠퇴기에 들어 회사채가 14.0%까지 비중이 증가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성숙기에 VC/엔젤 투자 비중이 21.2%로 정점을 보이나 쇠퇴기에는 민간금융이

52.9%로 급격한 구조 전환을 보임

- 전북 벤처기업은 창업기 민간금융 비중이 46.7%, 초기성장기 정책금융 비중 42.1%, 고도성장기 R&D 비중이 40.6%, 성숙기 VC/엔젤 투자 비중이 100%로 의존 비중이 성숙단계별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임

[표 4-7]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신규자금조달 규모와 비중

구분		신규 자금조달규모	비중									
			VC/엔젤	회사채	민간금융	정책금융	R&D	기타				
업력별	전국	3년 이하	753.1	23.0	3.1	12.5	28.4	16.9	16.2			
		4년~10년	2,126.3	11.5	4.1	28.6	24.8	14.5	16.5			
		11년~20년	2,720.5	3.9	6.3	38.0	17.8	15.7	18.2			
		21년 이상	6,964.9	1.6	6.3	39.1	17.6	13.9	21.6			
		소계	3,490.1	8.5	5.1	32.2	21.3	14.6	18.3			
	수도권	3년 이하	980.2	22.5	3.4	12.9	31.7	13.8	15.7			
		4년~10년	2,313.2	13.4	4.0	28.9	23.6	12.5	17.6			
		11년~20년	3,339.5	3.6	7.7	37.0	16.2	15.2	20.3			
		21년 이상	11,113.6	2.2	4.6	38.7	15.9	16.5	22.2			
		소계	4,436.6	10.4	4.9	29.4	21.8	14.5	18.9			
	비수도권	3년 이하	526.1	23.4	2.7	12.2	25.1	19.9	16.8			
		4년~10년	1,939.3	9.7	4.2	28.3	25.9	16.5	15.4			
		11년~20년	2,101.5	4.3	4.9	39.0	19.3	16.3	16.2			
		21년 이상	2,816.2	1.0	7.9	39.6	19.4	11.2	20.9			
		소계	1,845.8	9.6	5.0	29.8	22.4	16.0	17.3			
	전북	3년 이하	62.7	33.3	0.0	0.0	0.0	33.3	33.3			
4년~10년		1,225.2	10.4	9.4	15.8	25.6	22.3	16.4				
11년~20년		355.6	0.0	0.0	45.7	18.6	8.1	27.6				
21년 이상		3,209.5	5.0	5.0	42.5	42.5	5.0	0.0				
소계		1,170.6	9.6	5.7	24.8	23.7	17.8	18.5				
업종별	전국	제조업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2,469.4	3.8	1.3	43.1	21.6	7.9	22.3	
			첨단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2,183.5	3.4	3.3	36.2	31.6	10.8	14.6	
		서비스업	일반	에너지/화학/정밀	11,546.2	9.5	6.3	34.8	19.5	11.9	18.0	
			첨단	의료/제약	2,561.9	11.8	4.1	31.8	13.0	11.7	27.6	
			기타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311.2	5.8	13.3	39.1	16.0	12.6	13.2	
				통신기기/방송기기	1,271.1	4.4	0.4	21.8	17.9	42.7	12.8	
		수도권	제조업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1,575.9	3.5	0.4	42.3	17.8	10.9	25.1
				첨단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2,561.9	3.5	4.5	41.6	28.4	9.2	12.8
	서비스업		일반	에너지/화학/정밀	20,020.4	7.4	3.5	39.6	20.6	10.8	18.1	
			첨단	의료/제약	2,540.8	13.0	4.2	26.0	10.7	10.7	35.3	

구분				신규 자금조달규모	비중						
					VC/엔젤	회사채	민간금융	정책금융	R&D	기타	
비수 도권	서비스업	업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5,172.3	6.1	14.3	38.9	17.1	8.8	14.9	
			통신기기/방송기기	1,887.4	2.0	0.3	26.4	21.5	36.6	13.3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3,137.2	12.9	6.3	24.9	30.3	7.5	18.1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3,455.3	17.1	6.8	22.5	16.2	15.4	21.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029.5	14.4	4.0	33.8	25.0	6.6	16.2		
		기타	830.3	4.1	3.2	32.0	16.3	27.2	17.1		
	소계				4,421.1	8.4	4.8	32.8	20.4	14.4	19.3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3,362.8	4.1	2.2	44.0	25.3	5.0	19.4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805.1	3.3	2.1	30.8	34.8	12.4	16.5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3,071.9	11.6	9.0	30.0	18.5	13.1	17.9	
			의료/제약	2,583.0	10.6	4.0	37.7	15.3	12.6	19.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450.1	5.5	12.3	39.3	14.9	16.5	11.6	
			통신기기/방송기기	654.7	6.8	0.6	17.2	14.3	48.9	12.2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203.3	2.7	9.5	29.9	21.3	15.1	21.6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2,261.1	16.6	1.9	31.9	15.6	18.6	15.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53.3	15.5	0.6	20.7	37.5	14.9	10.8		
	기타				821.7	4.3	2.2	24.2	25.6	28.2	15.4
	소계				1,796.7	8.1	4.4	30.6	22.3	18.5	16.1
	전북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624.6	0.0	0.0	20.6	39.0	0.4	40.0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390.8	16.7	0.0	26.7	34.2	20.8	1.7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2,333.3	6.7	6.7	63.3	6.7	16.7	0.0	
			의료/제약	633.3	0.0	16.7	0.0	33.3	10.0	40.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609.6	0.0	0.0	27.1	27.1	32.4	13.3	
통신기기/방송기기		30.0	0.0	0.0	0.0	0.0	100.0	0.0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00.0	0.0	100.0	0.0	0.0	0.0	0.0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5.0	0.0	0.0	100.0	0.0	0.0	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00.0	67.0	0.0	0.0	0.0	0.0	33.0	
			기타	19.0	50.0	0.0	0.0	0.0	0.0	50.0	
	소계				1,170.6	9.6	5.7	24.8	23.7	17.8	18.5
성장 단계 별	전 국	창업기	2,932.5	2.2	5.7	36.9	22.4	13.6	19.3		
		초기성장기	4,597.3	7.5	4.9	35.9	20.1	15.2	16.5		
		고도성장기	1,404.5	14.6	5.6	23.1	22.9	16.1	17.7		
		성숙기	1,013.3	19.8	0.6	19.2	21.3	18.2	20.9		
		쇠퇴기	752.4	0.2	7.0	41.4	16.9	5.4	29.1		
		소계	3,490.1	8.5	5.1	32.2	21.3	14.6	18.3		
	수 도 권	창업기	3,424.7	2.0	4.5	39.4	18.4	15.5	20.2		
		초기성장기	6,540.7	8.0	4.8	34.6	20.6	14.6	17.3		
		고도성장기	1,981.7	17.5	6.7	19.9	23.2	11.9	20.8		

구분	신규 자금조달규모	비중						
		VC/엔젤	회사채	민간금융	정책금융	R&D	기타	
	성숙기	979.9	18.5	1.3	24.6	20.9	14.8	19.9
	쇠퇴기	1,368.9	0.3	14.0	30.0	23.8	9.3	22.5
	소계	2,859.2	9.3	6.3	29.7	21.4	13.2	20.1
비 수 도 권	창업기	2,440.3	2.4	6.8	34.3	26.4	11.7	18.4
	초기성장기	2,653.8	6.9	4.9	37.1	19.6	15.8	15.7
	고도성장기	827.3	11.8	4.5	26.2	22.7	20.3	14.6
	성숙기	1,046.6	21.2	0.0	13.7	21.6	21.5	22.0
	쇠퇴기	136.0	0.0	0.0	52.9	10.0	1.4	35.7
	소계	1,420.8	8.5	3.2	32.8	20.1	14.1	21.3
	전 북	창업기	1,489.3	13.3	2.2	46.7	11.1	2.2
초기성장기	1,553.3	5.6	4.2	21.9	42.1	15.8	10.5	
고도성장기	383.9	0.0	12.5	7.5	13.1	40.6	26.3	
성숙기	3.0	100.0	0.0	0.0	0.0	0.0	0.0	
쇠퇴기	-	-	-	-	-	-	-	
소계	1,170.6	9.6	5.7	24.8	23.7	17.8	18.5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 자금 투자처별 투자 현황

- 전국 벤처기업은 업력이 증가할수록 평균 투자가 250.1(3년 이하) → 2,204.8(21년 이상)백만원으로 확대되며, R&D도 177.5백만원에서 1,004.8백만원으로 동반 증가
  - 수도권 벤처기업은 21년 이상 기업에서 평균 투자 2,679.5, R&D 1,134.5로 가장 높아 장기 기업의 투자·기술 축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4~10년 기업의 평균 투자가 1,883.0백만원, 해외 투자가 543.2백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으나 이후 성장세는 완만한 경향을 보임
  - 전북 벤처기업은 21년 이상 기업에서 평균 투자 2,625.8백만원, R&D 1,609.8백만원으로 급증하지만, 3년 이하 기업의 평균 투자는 26.8백만원에 불과함
- 업종별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첨단제조(의료·계약)의 평균 투자가 1,996.3백만원, R&D 1,082.4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구조를 보임
  - 수도권 벤처기업은 첨단제조 반도체/전자에서 평균투자 2,516.3백만원, R&D 826.2백만원으로 고기술 제조업 중심의 투자 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에너지·화학 제조업의 평균 투자가 4,482.9백만원, 해외투자가 1,586.1백만원으로 일부 업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전북 벤처기업은 일반제조 자동차·기계의 평균투자 1,964.0백만원, R&D 1,174.8백만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에서 투자 규모가 수백 단위 이하로 제한적인 경향을 보임
- 성장단계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창업기 평균투자 2,401.8백만원 이후 성숙기 514.5백만원, 쇠퇴기 380.5백만원으로 감소하며 성장 단계가 높아질수록 투자 축소가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창업기 평균 투자 1,983.1백만원, R&D 961.3백만원으로 초기 투자가 크고 이후 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감소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창업기 평균 투자 2,820.5백만원, 해외투자 630.1백만원으로 초기 대규모 투자가 두드러지나, 성숙기에는 372.8백만원까지 급감함
- 전북 벤처기업은 창업기 평균 투자 1,741.1백만원, R&D 1,074.2백만원 이후 고도성장기 평균 투자금액 96.9백만원, 성숙기 4.0백만원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불연속적 투자 구조 양상을 보임

[표 4-8] 업력별, 업종별, 성숙단계별 투자처별 투자 현황

		구분	평균 투자금액	설비투자	R&D	비R&D	해외투자	
내국 기업	전국	3년 이하	250.1	27.8	177.5	43.0	1.8	
		4년~10년	1,392.9	517.6	433.6	153.6	288.1	
		11년~20년	1,473.7	642.9	717.7	94.5	18.6	
		21년 이상	2,204.8	1,071.4	1,004.8	56.1	72.4	
		소계	1,485.7	615.3	654.5	110.9	105.0	
	수도권	3년 이하	321.7	34.4	233.9	50.2	3.1	
		4년~10년	902.9	208.2	512.3	149.4	33.0	
		11년~20년	1,580.9	637.9	797.6	126.2	19.2	
		21년 이상	2,679.5	1,360.2	1,134.5	81.3	103.5	
		소계	1,371.2	560.2	669.6	101.8	39.7	
	비수도권	3년 이하	178.6	21.3	121.1	35.7	0.5	
		4년~10년	1,883.0	827.0	354.9	157.8	543.2	
		11년~20년	1,366.4	647.8	637.8	62.7	18.0	
		21년 이상	1,730.1	782.7	875.2	30.9	41.3	
		소계	1,289.5	569.7	497.3	71.8	150.8	
	전북	3년 이하	26.8	0.2	26.2	0.2	0.2	
		4년~10년	275.0	52.3	200.1	20.4	2.1	
		11년~20년	321.8	58.0	236.7	25.0	2.1	
		21년 이상	2,625.8	1,016.0	1,609.8	0.0	0.0	
		소계	710.7	232.0	461.3	15.9	1.5	
외국 기업	전국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1,165.8	522.6	446.9	159.4	36.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852.4	510.9	288.6	41.7	11.2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3,878.5	2,111.9	778.3	153.2	835.2
			의료/제약	1,996.3	664.3	1,082.4	154.8	94.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932.1	1,264.7	599.9	49.7	17.8
		통신기기/방송기기	841.1	60.1	732.3	44.2	4.5	

구분				평균 투자금액	설비투자	R&D	비R&D	해외투자
수도권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378.5	340.4	917.3	107.9	12.9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872.0	99.8	637.6	99.9	34.7
		정보통신/방송서비스	542.3	40.9	383.0	100.6	17.7	
		기타	412.2	174.5	216.3	21.2	0.3	
		소계	1,485.7	615.3	654.5	110.9	105.0	
수도권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817.4	334.0	316.6	144.9	21.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656.9	321.6	260.5	69.8	4.9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3,274.2	2,182.8	876.3	130.7	84.3
			의료/제약	2,045.3	599.1	1,204.0	113.7	128.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516.3	1,599.7	826.2	56.2	34.1
		통신기기/방송기기	1,357.6	62.8	1,233.1	52.7	9.1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196.5	561.2	476.6	138.5	20.1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416.2	162.6	1,008.5	177.6	67.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92.7	42.3	530.2	187.0	33.2
			기타	308.0	87.6	203.0	17.2	0.2
		소계	1,438.1	595.4	693.5	108.8	40.4	
비수도권	제조업	일반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1,514.3	711.2	577.3	173.8	52.0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047.9	700.1	316.8	13.6	17.4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4,482.9	2,041.0	680.2	175.7	1,586.1
			의료/제약	1,947.3	729.6	960.8	195.9	61.1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347.9	929.7	373.6	43.2	1.4
		통신기기/방송기기	324.6	57.4	231.5	35.8	0.0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560.5	119.5	1,357.9	77.3	5.8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327.8	37.1	266.8	22.2	1.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91.9	39.6	235.8	14.3	2.3
			기타	516.5	261.4	229.6	25.2	0.3
		소계	1,336.2	562.7	523.0	77.7	172.8	
전북	제조업	일반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1,964.0	782.0	1,174.8	7.1	0.0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64.5	40.0	89.5	30.0	5.0
		첨단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553.5	17.3	441.5	87.5	7.3
			의료/제약	212.4	115.6	93.2	1.8	1.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762.1	155.4	590.2	16.4	0.0
		통신기기/방송기기	30.0	0.0	30.0	0.0	0.0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273.8	10.0	263.8	0.0	0.0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90.5	1.5	86.5	2.5	0.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0.0	0.0	0.0	0.0	0.0
			기타	1.3	0.3	0.3	0.3	0.3
		소계	710.7	232.0	461.3	15.9	1.5	
성장단계별	전국	창업기		2,401.8	1,108.7	833.6	107.6	351.9
		초기성장기		1,300.4	558.9	576.1	132.8	32.6
		고도성장기		848.1	210.3	552.7	78.4	6.8
		성숙기		514.5	166.4	295.0	34.1	19.1
		쇠퇴기		380.5	167.5	203.2	9.8	0.0
		소계		1,485.7	615.3	654.5	110.9	105.0
		수도	창업기		1,983.1	868.8	961.3	79.2
		초기성장기		1,546.2	581.6	742.7	186.7	35.2

구분		평균 투자금액	설비투자	R&D	비R&D	해외투자
권	고도성장기	756.7	235.4	416.3	93.6	11.4
	성숙기	656.2	202.5	377.2	40.9	35.6
	쇠퇴기	613.7	303.6	304.1	6.0	0.0
	소계	1,111.2	438.4	560.3	81.3	31.2
비수도권	창업기	2,820.5	1,348.5	705.8	136.0	630.1
	초기성장기	1,054.6	536.2	409.6	78.8	30.0
	고도성장기	939.6	185.1	689.1	63.1	2.2
	성숙기	372.8	130.2	212.8	27.4	2.5
	쇠퇴기	147.3	31.4	102.3	13.5	0.1
	소계	1,067.0	446.3	423.9	63.8	133.0
전북	창업기	1,741.1	660.9	1,074.2	5.9	0.0
	초기성장기	375.6	74.0	275.8	24.3	1.6
	고도성장기	96.9	21.4	54.7	17.1	3.6
	성숙기	4.0	1.0	1.0	1.0	1.0
	쇠퇴기	625.0	71.0	554.0	0.0	0.0
	소계	710.7	232.0	461.3	15.9	1.5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말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 스톡옵션 활용

- 업력별 스톡옵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4년~10년 사이의 기업이 가장 많이 스톡옵션을 활용 중이며, 활용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수도권 및 비수도권 벤처기업에서도 4년~10년 사이의 기업이 가장 많이 스톡옵션을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으나, 이 중 전북 지역의 기업에서는 활용중이거나, 활용했었거나,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단 30%에 불과해 비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업종별 스톡옵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 중 첨단제조업의 의료/제약 분야와 첨단서비스업의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를 비롯한 첨단 서비스업에서 활용해본 경험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는 등 서비스업 고기술 업종 중심의 활용 양상이 뚜렷함
  - 비수도권 벤처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을 활용중 또는 활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업종별로 약 10% 내외에 머물러 활용 확산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
  - 전북 벤처기업에서는 특정 업종에 집중 없이 전반적으로 스톡옵션 활용이 저조한 상황임
- 성장단계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에서는 창업기와 초기성장기에서 활용

이 집중되고, 성숙기에는 활용이 감소되는 양상을 보임

- 수도권 벤처기업은 초기성장기에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성장단계가 높아질수록 단계별 감소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성장단계 전반에서 활용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전북 벤처기업은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활용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짐

[표 4-9] 업력별, 업종별, 성숙단계별 스톡옵션 활용 현황

		구분	활용 중	과거엔 활용, 현재 미활용	향후 활용 계획	활용 경험x, 향후 계획 x	계		
업력별	전국	3년 이하	32	2	80	89	203		
		4년~10년	207	32	325	666	1,230		
		11년~20년	101	34	196	590	921		
		21년 이상	69	26	92	459	646		
		소계	409	94	693	1,804	3,000		
	수도권	3년 이하	25	2	57	64	148		
		4년~10년	174	21	217	418	830		
		11년~20년	77	28	134	353	592		
		21년 이상	55	22	62	276	415		
		소계	331	73	470	1,111	1,985		
	비수도권	3년 이하	7		23	25	55		
		4년~10년	33	11	108	248	400		
		11년~20년	24	6	62	237	329		
		21년 이상	14	4	30	183	231		
		소계	78	21	223	693	1,015		
	전북	3년 이하			1	4	5		
4년~10년		2	1	9	16	28			
11년~20년				4	10	14			
21년 이상				1	10	11			
소계		2	1	15	40	58			
업종별	전국	제조업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12	3	50	257	32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8	4	42	282	336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36	11	87	157	291
				의료/제약	63	9	58	120	250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3	14	87	196	330
		통신기기/방송기기	17	4	47	132	200		
		서비스업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60	9	64	234	367
			첨단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13	18	98	150	37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4	19	117	140	340
			기타		3	3	43	136	185
	소계			409	94	693	1,804	3,000	
	수도권	제조업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7	3	19	114	143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4	2	20	150	176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22	6	45	83	156
				의료/제약	38	8	43	69	158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6	10	54	125	215
통신기기/방송기기		15	4	38	96	153			
서비스업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51	6	52	166	275	

구분			활용 중	과거엔 활용, 현재 미활용	향후 활용 계획	활용 경험, 향후 계획 x	계	
비수도권	서비스업	서비스업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05	15	77	114	311
	서비스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61	17	96	110	284	
	기타			2	2	26	84	114
소계			331	73	470	1,111	1,985	
비수도권	제조업	일반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5		31	143	17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4	2	22	132	160
		첨단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14	5	42	74	135
			의료/제약	25	1	15	51	9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7	4	33	71	115
			통신기기/방송기기	2		9	36	47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9	3	12	68	92
		첨단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8	3	21	36	6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	2	21	30	56
		기타			1	1	17	52
소계			78	21	223	693	1,015	
전북	제조업	일반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	12	14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	1	3	5	10
		첨단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1	3	4
			의료/제약			2	3	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1		4	4	9
			통신기기/방송기기				1	1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5	5
		첨단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2	4	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		1
		기타					3	3
소계			2	1	15	40	58	
성장단계별	전국	창업기	82	34	110	725	951	
		초기성장기	184	37	299	662	1,182	
		고도성장기	107	16	208	278	609	
		성숙기	35	3	69	96	203	
		쇠퇴기	1	4	7	43	55	
		소계		409	94	693	1,804	3,000
		수도권	창업기	69	28	71	433	601
	초기성장기		149	27	208	409	793	
	고도성장기		84	13	137	170	404	
	성숙기		28	1	49	73	151	
	쇠퇴기		1	4	5	26	36	
	소계		331	73	470	1,111	1,985	
	비수도권	창업기	13	6	39	292	350	
		초기성장기	35	10	91	253	389	
고도성장기		23	3	71	108	205		
성숙기		7	2	20	23	52		
쇠퇴기				2	17	19		
소계		78	21	223	693	1,015		
전북	창업기	1			16	17		

구분	활용 중	과거엔 활용, 현재 미활용	향후 활용 계획	활용 경험, 향후 계획 x	계
초기성장기	1	1	10	12	24
고도성장기			5	9	14
성숙기				1	1
쇠퇴기				2	2
소계	2	1	15	40	58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전체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사유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응답은 “핵심인력 이탈방지(32.6%)”이며,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27.5%)”, “우수인력 유입(25.3%)” 순이었으며, 전북에서는 이 외에도 “기업 경영성과 개선”을 주요 사유로 응답
- 스톡옵션 미활용 사유에 대해서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장점이 없음(30.1%)”,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29.1%)”, “복잡한 제도 및 행정절차(19.7%)” 순이었으며, 전북 내 벤처기업도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를 주요 사유로 응답하였음

[표 4-10] 지역별 스톡옵션 미활용 사유

구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북	
활용 사유	우수인력 유입	557 25.3%	411 25.7%	146 24.3%	8 23.5%
	핵심인력 이탈방지	718 32.6%	530 33.1%	188 31.2%	12 35.3%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효과	605 27.5%	442 27.6%	163 27.1%	6 17.6%
	기업 경영성과 개선	210 9.5%	131 8.2%	79 13.1%	6 17.6%
	기타	114 5.2%	88 5.5%	26 4.3%	2 5.9%
	소계	2204 100.0%	1602 100.0%	602 100.0%	34 100.0%
미활용 사유	제도 활용에 관한 인식부족	1103 29.1%	680 28.7%	423 29.6%	26 31.7%
	비상장 기업의 경우, 성과보상 방식으로사위 장점이 없음	1142 30.1%	682 28.8%	460 32.2%	24 29.3%
	불합리한 회계 세무 처리	300 7.9%	178 7.5%	122 8.5%	9 11.0%
	복잡한 제도 및 행정 절차	749 19.7%	486 20.5%	263 18.4%	12 14.6%
	기타	502 13.2%	342 14.4%	160 11.2%	11 13.4%
소계	3796 100.0%	2368 100.0%	1428 100.0%	82 100.0%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 투자 유치 경험

- 업력별 투자유치경험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에서는 4년~10년 기업에서 엔젤, AC, VC 투자유치 경험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3년 이하 초기 기업, 21년 이상 기업에서도 투자유치 경험이 적게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에서도 4년~10년 기업에서 엔젤, AC, VC 투자유치 경험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3년 이하 초기 기업, 21년 이상 기업에서도 투자유치 경험이 적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4년~10년 기업에서 엔젤, AC, VC 투자유치 경험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외 업력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전북 벤처기업은 투자유치 경험이 극히 적게 나타나며, 타 지역에서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4년~10년 기업에서도 총 6건에 그쳤음
- 업종별 투자유치 경험을 살펴보면, 첨단 서비스업의 투자 유치 경험이 가장 많았고, 일반 제조업 분야 업종의 투자 유치 경험이 비교적 적게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은 첨단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중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에서 투자유치 경험이 많았고, 일반 제조업 분야 업종의 투자 유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에너지/화학/정밀 분야와 의료/제약,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졌으며, 첨단서비스업 분야의 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업종 전반에서 투자유치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음
- 성장단계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벤처기업은 초기성장기에 투자 유치 경험이 많았으며, 성숙기와 쇠퇴기의 투자유치 경험은 적게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과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초기성장기까지 투자 경험이 매우 많았으며, 고도성장기 기업부터는 투자유치 경험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북 벤처기업은 초기성장기까지 투자 경험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후 성장단계 기업에서는 투자유치 경험이 1건에 그침

[표 4-11] 업력별, 업종별, 성숙단계별 투자유치 경험

		구분	크라우드펀딩	엔젤	AC	VC	없음		
비공개기업	전국	3년 이하		5	27	35	44	119	
		4년~10년		20	169	103	278	828	
		11년~20년		14	64	25	174	703	
		21년 이상		8	35	21	131	494	
	소계		47	295	184	627	2,144		
	수도권	3년 이하		3	19	20	36	88	
		4년~10년		14	128	75	212	537	
		11년~20년		10	46	18	127	436	
		21년 이상		6	23	17	91	310	
	소계		33	216	130	466	1,371		
	비수도권	3년 이하		2	8	15	8	31	
		4년~10년		6	41	28	66	291	
		11년~20년		4	18	7	47	267	
		21년 이상		2	12	4	40	184	
	소계		14	79	54	161	773		
	전북	3년 이하					1	4	
4년~10년		1	2	1	2	24			
11년~20년			1		2	11			
21년 이상			1	1	1	8			
소계		1	4	2	6	47			
공개기업	전국	제조업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2	6	5	33	281
			첨단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7	9	4	32	289
		제조업	일반	에너지/화학/정밀	2	23	14	61	210
				의료/제약	4	35	13	72	151
			첨단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8	57	40	80	212
				통신기기/방송기기	0	7	6	29	167
	서비스업	일반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4	38	18	91	247	
			첨단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8	58	42	126	217
		서비스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1	57	38	84	210	
			기타	1	5	4	19	160	
	소계		47	295	184	627	2,144		
	수도권	제조업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1	3	3	12	125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2	5	2	19	151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2	11	4	32	117
				의료/제약	3	17	7	43	10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5	43	26	60	131
서비스업		일반	통신기기/방송기기		5	5	24	126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2	28	14	75	179	
		서비스업	첨단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8	50	37	114	16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0	51	29	76	172	
			기타		3	3	11	100	
소계		33	216	130	466	1,371			
비수도	제조업	일반	기계/자동차/금속	1	3	2	21	156	
		첨단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5	4	2	13	138	
		에너지/화학/정밀		12	10	29	93		

구분			크라우드펀딩	엔젤	AC	VC	없음	
권	제조업	의료/제약	1	18	6	29	49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	14	14	20	81	
		통신기기/방송기기		2	1	5	41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2	10	4	16	68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8	5	12	49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	6	9	8	38
		기타	1	2	1	8	60	
	소계		14	79	54	161	773	
	전북	제조업	일반제조업				2	12
			기계/자동차/금속				1	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					1		3	
첨단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3	
		의료/제약		1		1	3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		1	6	
통신기기/방송기기						1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5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6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	1	1		
기타					1	2		
소계		1	4	2	6	47		
성장단계별	전국	창업기	10	44	34	162	757	
		초기성장기	23	125	58	267	836	
		고도성장기	11	99	66	142	384	
		성숙기	1	22	23	41	133	
		쇠퇴기	2	5	3	15	34	
		소계		47	295	184	627	2,144
		수도권	창업기	8	32	25	118	464
	초기성장기		14	88	43	200	544	
	고도성장기		10	76	45	109	239	
	성숙기			16	14	27	105	
	쇠퇴기		1	4	3	12	19	
	소계		33	216	130	466	1,371	
	비수도권	창업기	2	12	9	44	293	
		초기성장기	9	37	15	67	292	
		고도성장기	1	23	21	33	145	
		성숙기	1	6	9	14	28	
		쇠퇴기	1	1		3	15	
		소계		14	79	54	161	773
	전북	창업기		1	1	4	11	
		초기성장기	1	3	1	1	20	
고도성장기						14		
성숙기					1			
쇠퇴기						2		
소계		1	4	2	6	47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 벤처캐피털 도움 분야

- 벤처캐피털 도움을 받은 기업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전국 벤처기업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자금투자(3.6점)와 경영 자문(3.4점) 부분으로 응답하였고, 기술 소개/지원(3.0점), 지적재산권/특허 지원(3.0점)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응답함
  - 수도권 벤처기업은 업력별로 구분하였을 때 3년 이하 기업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응답되었으며, 전 업력에서 인력 소개 부분의 만족도가 평균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업력별로 11년~20년 사이의 기업에서 벤처캐피털 도움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전 업력에서 3.5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
- 업종별로는 의료/제약이 수도권 평균 3.7점 이상, 비수도권 평균 4.0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수도권에서는 전 업종에서 자금 투자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인력 소개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준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인력 소개는 높은 만족도를, 자금 투자에는 낮은 만족도를 주어 전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

[표 4-12]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벤처캐피털 도움 만족도

구분		자금 투자	경영 자문	이사회 지원	홍보 판로 지원	기술 소개, 지원	지적 재산권 특허 지원	금융 소개	인력 소개		
전국		3.6	3.4	3.1	3.2	3.0	3.0	3.2	2.9		
업력별	수도권	3년 이하	3.0	3.0	2.0	3.0	2.0	1.0	1.0	3.0	
		4년~10년	3.7	3.6	3.3	3.1	3.1	3.3	3.3	2.7	
		11년~20년	3.5	3.0	2.5	2.5	2.5	2.5	3.0	2.5	
		계	3.6	3.4	3.0	3.0	2.9	2.9	3.0	2.7	
	비수도권	4년~10년	4.0	4.0	4.0	4.0	4.0	4.0	4.0	4.0	
		11년~20년	3.0	3.0	3.0	4.0	3.0	3.0	4.0	4.0	
계		3.5	3.5	3.5	4.0	3.5	3.5	4.0	4.0		
업종별	수도권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3.0	3.0	3.0	3.0	3.0	3.0	3.0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3.0	3.0	3.0	3.0	3.0	3.0	3.0
		제조업	첨단 제조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3.6	3.2	3.0	3.0	2.8	2.6	2.8
			의료/제약	의료/제약	3.7	3.7	3.3	3.7	3.3	3.3	3.7
	계		3.6	3.4	3.0	3.0	2.9	2.9	3.0	2.7	
	비수도권	제조업	첨단 제조업	의료/제약	4.0	4.0	4.0	4.0	4.0	4.0	4.0
			컴퓨터/반도체전자제품	3.0	3.0	3.0	4.0	3.0	3.0	4.0	4.0

구분		자금 투자	경영 자문	이사회 지원	홍보, 판로 지원	기술 소개, 지원	지역 재산면 특허 지원	금융 소개	인력 소개	
성장단 계별	계	3.5	3.5	3.5	4.0	3.5	3.5	4.0	4.0	
	수도권	초기성장기	3.4	3.6	3.2	3.6	3.2	3.0	3.2	3.2
		고도성장기	4.0	3.3	3.0	2.5	2.8	3.0	2.8	2.3
		쇠퇴기	3.0	3.0	2.0	2.0	2.0	2.0	3.0	2.0
		계	3.6	3.4	3.0	3.0	2.9	2.9	3.0	2.7
	비수도권	창업기	4.0	4.0	4.0	4.0	4.0	4.0	4.0	4.0
		고도성장기	3.0	3.0	3.0	4.0	3.0	3.0	4.0	4.0
		계	3.5	3.5	3.5	4.0	3.5	3.5	4.0	4.0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 인수합병 경험 및 의향

-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에서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기업은 수도권 5.7%, 비수도권 1.5%에 불과하나, 인수합병 의향은 경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 수도권에서는 7.9%, 비수도권에서는 2.9%로 나타남
  - 피인수합병에 대한 경험 역시 수도권에서 1.7%, 비수도권 0.5%로 낮게 나타났으며, 피인수합병 의향은 경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수도권에서는 10.3%, 비수도권에서는 3.5%로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인수합병 및 피인수합병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피인수합병 경험과 의향 역시 각각 3.4%,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지역별 인수합병 경험 및 의향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북	
인수합병 경험	있다	171	5.7%	46	1.5%	0	0
	없다	1,814	60.5%	969	32.3%	0	0
	계	1,985	66.2%	1,015	33.8%	0	0
인수합병 의향	있다	238	7.9%	87	2.9%	2	3.4%
	없다	1,747	58.2%	928	30.9%	56	96.6%
	계	1,985	66.2%	1,015	33.8%	58	100.0%
피인수합병 경험	있다	52	1.7%	15	0.5%	0	0
	없다	1,933	64.4%	1,000	33.3%	0	0
	계	1,985	66.2%	1,015	33.8%	0	0
피인수합병 의향	있다	308	10.3%	109	3.6%	7	12.1%
	없다	1,677	55.9%	906	30.2%	51	87.9%
	계	1,985	66.2%	1,015	33.8%	58	100.0%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다. 경영 성과 및 애로사항

### ■ 경영성과

-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평균 자산·매출·영업이익 규모는 업력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확대되는 구조를 나타냄
  - 수도권 벤처기업의 자산 및 매출 규모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영업이익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며, 업력 3년 이하 초기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는 등 창업 초기 성과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벤처기업은 수도권 벤처기업 대비 자산·매출 규모는 작으나 업력 증가에 따른 성장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수도권에 비해 낮고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북 벤처기업은 자산·매출 규모가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며, 매출 기반이 제조업 의존적인 형태로, 벤처기업의 규모와 수익성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고도성장기와 성숙기가 성과를 주도하고 있으며, 초기 성장기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고,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고도성장기와 성숙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초기성장기와 창업기에서 수익이 악화되는 등 성장 전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전체적 규모는 크지만 성장 초기 단계 리스크가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비수도권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성과에서는 초기성장기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매출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성숙기 및 쇠퇴기에서 수익성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교해 성장단계 간 성과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구조를 보임
  - 전북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고도성장기와 성숙기에 성과가 존재하나 절대적인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창업기 성과가 아주 작아 신규 기업의 초기 성과 창출이 어려운 구조로 보여짐

[표 4-14] 벤처기업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경영성과 비교

구분		평균 자산 총계	평균 부채 총계	평균 자본 총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금융비용 (이자비용)	평균 순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업종 코드	전국	3년 이하	3,880.5	2,299.4	1,581.1	4,026.3	14.9	49.7	52.7	0.4%	1.3%			
		4년~10년	14,101.2	7,509.5	6,591.7	13,355.5	349.2	216.7	-21.1	2.6%	-0.2%			
		11년~20년	21,900.2	11,648.9	10,251.3	18,369.8	698.6	404.8	391.9	3.8%	2.1%			
		21년 이상	41,140.4	18,036.7	23,103.7	31,305.1	1,607.4	598.4	1,188.6	5.1%	3.8%			
		소계	21,607.3	10,612.8	10,994.5	18,348.4	656.7	347.3	298.3	3.6%	1.6%			
	수도권	3년 이하	5,374.7	2,688.7	2,686.0	6,215.1	-96.8	87.7	-79.3	-1.6%	-1.3%			
		4년~10년	12,879.3	7,223.8	5,655.4	13,688.4	20.4	200.5	-466.7	0.1%	-3.4%			
		11년~20년	23,154.8	11,659.4	11,495.4	20,115.6	659.6	425.3	382.9	3.3%	1.9%			
		21년 이상	41,137.1	17,158.4	23,978.7	30,506.5	1,703.5	619.2	1,121.4	5.6%	3.7%			
		소계	21,292.1	10,285.5	11,006.5	18,564.1	554.2	346.7	147.6	3.0%	0.8%			
	비수도권	3년 이하	2,386.2	1,910.1	476.1	1,837.4	126.6	11.7	184.7	6.9%	10.1%			
		4년~10년	15,323.2	7,795.2	7,528.0	13,022.6	678.1	232.8	424.4	5.2%	3.3%			
		11년~20년	20,645.5	11,638.4	9,007.2	16,624.0	737.6	384.2	400.9	4.4%	2.4%			
		21년 이상	41,143.7	18,914.9	22,228.8	32,103.8	1,511.3	577.5	1,255.8	4.7%	3.9%			
		소계	22,223.7	11,252.7	10,971.0	17,926.5	857.1	348.4	593.0	4.8%	3.3%			
	전북	3년 이하	397.0	270.7	126.3	1,100.3	27.7	0.1	54.2	2.5%	4.9%			
4년~10년		9,023.5	6,385.2	2,638.3	11,251.5	687.1	241.8	278.4	6.1%	2.5%				
11년~20년		8,666.7	6,086.3	2,580.4	7,478.8	642.3	145.2	490.8	8.6%	6.6%				
21년 이상		47,653.3	29,145.6	18,507.6	48,346.7	1,027.5	964.1	-327.8	2.1%	-0.7%				
소계		15,520.0	10,102.6	5,417.5	16,501.0	684.0	334.6	195.3	4.1%	1.2%				
업세 코드	전국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3,267.2	13,731.8	9,535.4	22,114.4	859.2	448.5	571.6	3.9%	2.6%	
			첨단 제조업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19,240.2	10,790.7	8,449.6	20,381.5	952.1	309.4	37.5	4.7%	0.2%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에너지/화학/정밀	31,592.7	14,832.6	16,760.1	19,057.9	1,126.1	447.4	927.0	5.9%	4.9%	
				의료/제약	37,555.4	16,784.2	20,771.1	20,499.5	1,788.9	685.0	1,147.4	8.7%	5.6%	
			첨단 서비스업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8,329.3	11,528.3	16,801.0	22,374.4	1,178.4	371.3	837.1	5.3%	3.7%	
				통신기기/방송기기	15,962.8	8,482.2	7,480.6	15,411.6	562.1	222.1	421.8	3.6%	2.7%	
		수도권	제조업	일반 제조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기타서비스	14,645.8	6,861.3	7,784.6	14,874.8	-11.6	222.9	-240.7	-0.1%	-1.6%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	12,433.7	5,702.0	6,731.7	10,817.4	-117.1	201.9	-579.0	-1.1%	-5.4%
				첨	정보통신/방송서비스	9,885.2	5,340.8	4,544.4	11,210.3	66.9	177.0	-6.5	0.6%	-0.1%
			서비스업	기타	8,745.3	4,877.8	3,867.4	14,790.6	663.5	106.7	557.4	4.5%	3.8%	
	소계			21,607.3	10,612.8	10,994.5	18,348.4	656.7	347.3	298.3	3.6%	1.6%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18,011.8	9,202.1	8,809.7	17,862.1	862.3	332.5	648.9	4.8%	3.6%
	비수도권	제조업	일반 제조업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18,904.4	10,013.0	8,891.4	19,916.9	746.0	264.4	-604.6	3.7%	-3.0%	
			첨	에너지/화학/	19,702.3	10,408.7	9,293.6	15,772.6	941.5	312.9	450.4	6.0%	2.9%	

구분			평균 자산 총계	평균 부채 총계	평균 자본 총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금융비용 (이자비용)	평균 순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비수도권	제조업	일반 제조업	정밀										
			의료/제약	38,909.6	18,570.6	20,339.1	20,001.4	1,274.2	805.8	718.9	6.4%	3.6%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35,938.2	14,952.7	20,985.5	28,209.7	1,603.6	535.9	909.2	5.7%	3.2%	
		통신기기/방송기기	22,524.7	11,066.8	11,457.9	18,794.1	765.6	278.0	649.8	4.1%	3.5%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18,835.2	9,292.7	9,542.5	20,130.5	47.7	302.5	-347.6	0.2%	-1.7%	
			첨단 서비스업	18,195.8	8,160.5	10,035.3	14,611.7	-193.1	272.2	-313.9	-1.3%	-2.1%	
	정보통신/방송서비스		14,260.2	7,654.1	6,606.2	15,188.9	-16.9	283.4	-185.8	-0.1%	-1.2%		
	기타			9,466.7	5,311.5	4,155.2	16,097.1	764.1	104.4	647.5	4.7%	4.0%	
	소계			21,474.9	10,463.3	11,011.6	18,658.5	679.5	349.2	257.3	3.6%	1.4%	
	서비스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8,522.6	18,261.4	10,261.2	26,366.7	856.1	564.5	494.3	3.2%	1.9%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19,576.1	11,568.4	8,007.7	20,846.2	1,158.2	354.4	679.6	5.6%	3.3%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43,483.2	19,256.5	24,226.7	22,343.3	1,310.7	581.8	1,403.6	5.9%	6.3%
				의료/제약	36,201.1	14,997.9	21,203.2	20,997.6	2,303.5	564.1	1,575.9	11.0%	7.5%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0,720.4	8,103.9	12,616.5	16,539.1	753.3	206.6	765.0	4.6%	4.6%
		통신기기/방송기기	9,400.8	5,897.5	3,503.3	12,029.2	358.5	166.1	193.7	3.0%	1.6%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10,456.5	4,429.8	6,026.7	9,619.1	-71.0	143.2	-133.8	-0.7%	-1.4%		
		첨단 서비스업	6,671.7	3,243.6	3,428.1	7,023.0	-41.2	131.6	-844.2	-0.6%	-12.0%		
		정보통신/방송서비스	5,510.2	3,027.6	2,482.7	7,231.6	150.7	70.6	172.7	2.1%	2.4%		
		기타			8,023.9	4,444.2	3,579.7	13,484.1	562.9	108.9	467.3	4.2%	3.5%
	소계			18,856.7	9,323.1	9,533.6	15,648.0	734.2	289.2	477.4	4.7%	3.1%	
전북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30,721.2	22,148.4	8,572.9	36,663.3	2,246.7	890.3	798.9	6.1%	2.2%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	4,195.7	2,530.9	1,664.8	5,956.7	146.4	72.7	109.0	2.5%	1.8%	
		첨단 제조업	에너지/화학/정밀	22,169.8	11,161.1	11,008.7	21,738.5	-1,585.8	293.9	-2,436.8	-7.3%	-11.2%	
			의료/제약	22,900.4	15,871.5	7,029.0	23,430.2	1,496.2	317.9	970.4	6.4%	4.1%	
			컴퓨터/반도체	19,851.4	10,735.9	9,115.5	12,435.0	27.1	341.7	-158.4	0.2%	-1.3%	
			기타										

구분				평균 자산 총계	평균 부채 총계	평균 자본 총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금융비용 (이자비용)	평균 순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서비스업	업	체/전자부품										
		통신기기/방 송기기	3,898.0	2,109.0	1,789.0	7,729.0	650.0	71.0	633.0	8.4%	8.2%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 개발서비스/ 기타서비스	2,858.3	1,942.8	915.5	7,049.3	665.6	17.4	648.8	9.4%	9.2%	
		소프트웨어개 발/IT기반서 비스	4,148.8	2,700.5	1,448.3	2,959.0	192.3	33.6	169.2	6.5%	5.7%	
	첨단 서비스업	정보통신/방 송서비스	1,836.0	839.0	997.0	3,782.0	20.0	18.0	263.0	0.5%	7.0%	
	기타		448.8	358.0	90.8	1,225.4	73.5	0.2	74.0	6.0%	6.0%	
	소계		15,520.0	10,102.6	5,417.5	16,501.0	684.0	334.6	195.3	4.1%	1.2%	
전국	창업기	6,210.6	3,912.5	2,298.1	7,645.5	57.0	120.0	-78.4	0.7%	-1.0%		
	초기성장기	8,755.6	4,658.8	4,096.9	6,493.1	-162.1	183.0	-236.4	-2.5%	-3.6%		
	고도성장기	21,582.4	11,292.1	10,290.3	18,608.7	645.6	365.8	267.3	3.5%	1.4%		
	성숙기	33,646.2	15,508.4	18,137.8	27,741.1	1,494.1	476.4	992.8	5.4%	3.6%		
	쇠퇴기	10,470.0	6,471.1	3,999.0	7,441.7	-214.3	271.9	-556.6	-2.9%	-7.5%		
	소계	21,607.3	10,612.8	10,994.5	18,348.4	656.7	347.3	298.3	3.6%	1.6%		
	수도권	창업기	7,164.0	4,510.0	2,654.0	9,456.4	277.9	130.4	70.2	2.9%	0.7%	
초기성장기	9,029.9	4,503.0	4,526.9	6,728.3	-485.9	240.8	-607.2	-7.2%	-9.0%			
고도성장기	22,480.1	10,921.7	11,558.4	19,992.7	505.9	354.9	191.1	2.5%	1.0%			
성숙기	32,005.5	14,977.9	17,027.6	27,437.1	1,449.8	463.4	691.8	5.3%	2.5%			
쇠퇴기	13,137.1	7,054.7	6,082.4	9,994.5	-504.4	312.6	-1,100.7	-5.0%	-11.0%			
소계	21,292.1	10,285.5	11,006.5	18,564.1	554.2	346.7	147.6	3.0%	0.8%			
비수도권	창업기	5,257.1	3,314.9	1,942.2	5,834.6	-163.8	109.6	-226.9	-2.8%	-3.9%		
	초기성장기	8,481.4	4,814.5	3,666.9	6,257.9	161.6	125.2	134.4	2.6%	2.1%		
	고도성장기	20,684.7	11,662.4	9,022.3	17,224.8	785.3	376.7	343.5	4.6%	2.0%		
	성숙기	35,286.9	16,038.8	19,248.1	28,045.1	1,538.4	489.4	1,293.7	5.5%	4.6%		
	쇠퇴기	7,803.0	5,887.5	1,915.5	4,888.8	75.7	231.3	-12.5	1.5%	-0.3%		
	소계	22,223.7	11,252.7	10,971.0	17,926.5	857.1	348.4	593.0	4.8%	3.3%		
	전북	창업기	215.6	115.6	100.0	100.0	0.0	0.0	0.0	0.0%	0.0%	
초기성장기	3,508.9	2,444.5	1,064.4	3,004.8	295.6	47.8	251.0	9.8%	8.4%			
고도성장기	8,972.9	6,178.5	2,794.4	13,714.6	701.5	189.2	465.5	5.1%	3.4%			
성숙기	35,227.3	22,533.1	12,694.2	33,541.1	979.2	794.2	-286.3	2.9%	-0.9%			
쇠퇴기	18,305.0	10,133.0	8,172.0	7,772.5	1,026.0	349.0	756.0	13.2%	9.7%			
소계	15,520.0	10,102.6	5,417.5	16,501.0	684.0	334.6	195.3	4.1%	1.2%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 경영 애로사항

- 전국 벤처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인력확보(3.0점), 자금관리(3.0점), 개발 기술 사업화(2.9점), 국내 및 해외 시장 개척(각 2.9점)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벤처기업 중 3년 이하 기업은 인력확보(3.2점), 자금관리(3.0점), 판로/마케팅(3.0점)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4년~10년 기업은 자금관리(3.1점), 인력확보(3.0점), 판로/마케팅(3.0점) 순으로 응답하였고, 11년 이상 기업은 자금관리(각 3.0점), 인력확보(각 3.0점, 2.9점), 기술개발(각 2.9점) 순으로 응답
  - 비수도권 벤처기업 중 3년 이하 기업은 인력확보(3.1점), 자금조달(3.0점), 판로/마케팅(3.0점)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4년~10년 기업은 자금관리(3.1점), 인력확보(3.0점), 판로/마케팅(3.0점) 순으로 응답하였고, 11년 이상 기업은 자금관리(각 3.1점, 3.0점), 인력확보(각 3.0점, 2.9점), 개발 기술 사업화(각 2.9점) 순으로 응답
  - 전북 벤처기업 중 3년 이하 기업은 국내 판로(3.4점), 자금관리(3.2점), 인력확보 및 신기술개발(각 2.8점)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4년~10년 기업은 자금관리(3.1점), 인력확보, 개발 기술 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각 3.0점) 순으로 응답하였고, 11년~20년 기업은 자금관리 및 해외시장 개척(각 3.2점), 인력확보, 개발 기술 사업화(각 3.0점),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1년 이상 기업은 국내 시장 개척(3.0점), 개발기술 사업화(2.8점), 신기술 개발, 인력확보, 자금관리(각 2.7점) 순으로 응답해 다른 지역에 비해 애로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남
- 업종별 경영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서비스업의 경우 인력확보(3.1점), 제조업은 자금관리(3.0점), 비수도권 지역은 서비스업은 인력확보(3.2점), 제조업은 자금관리(3.1점)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였음
  - 전북 벤처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모두 자금관리(각 3.5점, 3.3점)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응답
- 성장단계별 경영 애로사항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성숙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장단계에서 자금관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고, 비수도권에서는 쇠퇴기를 제외하고는 자금관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전북 벤처기업은 타 지역에 비해 경영 전반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업기에 특히 자금관리(4.0점)가 매우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4-15] 업력별, 업종별, 성장단계별 애로사항

구분			신기술 개발	개발 기술 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	해외 시장 개척	인력 확보 및 유지 관리	자금 관리	기술 유출 및 디자인·상표·도용	업계 내의 과당 경쟁 및 덤핑	법률·회계·세무 관련 지식 부족	조직 관리	환율 변동	특허 쟁	각종 규제	산학연 간 협력 활동	불공정 시장 질서	
전국			2.8	2.9	2.9	2.9	3.0	3.0	2.5	2.6	2.5	2.6	2.5	2.2	2.5	2.2	2.3	
업종 별	수도권	3년 이하	2.9	2.9	3.0	3.0	3.0	3.2	2.6	2.6	2.6	2.6	2.4	2.1	2.5	2.3	2.3	
		4년~10년	2.8	2.9	2.9	2.9	3.0	3.1	2.5	2.6	2.5	2.6	2.5	2.2	2.6	2.2	2.3	
		11년~20년	2.8	2.8	2.9	2.9	3.0	3.0	2.5	2.7	2.5	2.6	2.6	2.2	2.5	2.2	2.3	
		21년 이상	2.8	2.8	2.9	2.9	3.0	2.9	2.4	2.6	2.4	2.5	2.6	2.2	2.5	2.2	2.2	
		계	2.8	2.8	2.9	2.9	3.0	3.0	2.5	2.6	2.5	2.6	2.5	2.2	2.5	2.2	2.3	
	비수도권	3년 이하	2.8	2.9	3.0	3.1	3.1	3.1	2.4	2.4	2.6	2.5	2.2	2.2	2.5	2.3	2.2	
		4년~10년	2.9	3.0	3.0	2.9	3.0	3.1	2.4	2.6	2.6	2.5	2.4	2.1	2.6	2.3	2.3	
		11년~20년	2.9	2.9	2.9	2.9	3.0	3.1	2.4	2.7	2.5	2.6	2.5	2.2	2.5	2.2	2.2	
		21년 이상	2.8	2.9	2.9	2.9	2.9	2.9	2.4	2.6	2.5	2.5	2.5	2.2	2.6	2.2	2.2	
	계		2.9	2.9	3.0	2.9	3.0	3.0	2.4	2.6	2.5	2.5	2.5	2.2	2.5	2.2	2.2	
	전북	3년 이하	2.8	2.6	3.4	2.4	2.8	3.2	1.8	2.0	2.0	2.0	1.6	1.6	2.2	1.8	1.8	
		4년~10년	2.9	3.0	3.0	2.8	3.0	3.1	2.2	2.3	2.6	2.6	2.1	2.0	2.4	2.1	1.9	
11년~20년		2.9	3.0	2.7	3.2	3.0	3.2	2.5	2.7	2.6	2.6	2.6	2.2	2.6	2.4	2.3		
21년 이상		2.7	2.8	3.0	2.5	2.7	2.7	2.2	2.3	2.3	2.5	2.2	2.3	2.1	2.0	2.0		
계		2.8	2.9	2.9	2.8	2.9	3.1	2.2	2.4	2.5	2.5	2.2	2.1	2.4	2.1	2.0		
업종 별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매/연기개발/서비스/타서비스	2.7	2.7	2.8	2.8	2.9	2.9	2.6	2.7	2.5	2.6	2.4	2.2	2.6	2.2	2.2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서비스	2.8	2.9	2.9	3.0	3.0	3.0	2.6	2.7	2.6	2.7	2.4	2.3	2.6	2.3	2.4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8	3.0	3.0	2.9	3.1	3.1	2.6	2.7	2.7	2.7	2.8	2.4	2.3	2.6	2.3	2.4
	제조업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8	2.8	2.9	2.8	3.0	2.9	2.5	2.8	2.5	2.6	2.5	2.1	2.6	2.2	2.2
		음식료/섬유/비금속/타제조	2.8	2.8	2.8	2.7	2.6	2.9	2.3	2.6	2.2	2.3	2.5	2.0	2.5	2.0	2.1	

구분			신기술 개발	개발 기술 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	해외 시장 개척	인력 확보 및 유지 관리	자금 관리	기술 유출 및 디자인·상표 도용	업계 내외 과당 경쟁 및 덤핑	법률·회계·세무 관련 지식 부족	조직 관리	환율 변동	특허	각종 규제	산학연 간 협력 활동	불공정 시장 질서			
비수도권	제조업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2.8	2.8	2.9	3.1	3.1	3.0	2.6	2.7	2.6	2.7	2.8	2.4	2.8	2.4	2.4		
			의료/제약	2.9	2.9	3.0	3.0	3.0	3.0	2.5	2.5	2.5	2.7	2.7	2.3	2.7	2.3	2.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9	2.9	2.9	2.9	3.1	3.0	2.5	2.6	2.5	2.5	2.7	2.2	2.4	2.2	2.2		
			통신기기/방송기기	2.7	2.6	2.9	3.0	3.0	3.2	2.0	2.3	2.1	2.2	2.7	1.8	2.1	2.0	1.9		
		기타	3.0	2.9	3.1	2.8	3.1	3.2	2.3	2.6	2.4	2.6	2.4	2.0	2.4	2.2	2.2	2.3		
	계	2.8	2.8	2.9	2.9	3.0	3.0	2.5	2.6	2.5	2.6	2.5	2.6	2.5	2.2	2.5	2.2	2.3		
	제조업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IT서비스	2.7	2.8	2.8	2.7	3.0	2.9	2.4	2.7	2.7	2.6	2.3	2.1	2.5	2.3	2.3	
				소프트웨어개발/IT서비스	2.6	2.8	2.9	2.6	2.8	2.9	2.4	2.5	2.6	2.5	2.2	2.2	2.4	2.4	2.2	
		제조업	서비스업	첨단 서비스업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9	3.0	3.0	3.0	3.2	3.2	2.6	2.6	2.6	2.7	2.3	2.2	2.4	2.4	2.4
					일반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8	2.8	2.9	2.9	3.0	2.9	2.6	2.6	2.5	2.5	2.6	2.2	2.6	2.2
제조업			제조업	일반 제조업	음식료/섬유/비금속/IT제조	2.9	3.0	2.9	2.8	2.7	3.0	2.2	2.6	2.2	2.3	2.5	2.0	2.5	2.1	2.1
					에너지/화학/정밀	3.0	3.1	3.1	3.1	3.1	3.2	2.6	2.8	2.7	2.7	2.8	2.3	2.8	2.4	2.5
					의료/제약	3.0	3.1	3.0	3.1	3.0	3.0	2.7	2.6	2.6	2.7	2.7	2.4	2.9	2.4	2.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9	3.0	3.0	2.8	3.1	3.1	2.5	2.6	2.7	2.6	2.4	2.2	2.5	2.2	2.3
					통신기기/방송기기	2.6	2.6	2.8	2.7	2.8	3.0	1.8	2.0	1.9	1.9	2.0	1.5	1.7	1.6	1.6
					기타	3.0	3.1	3.2	2.9	3.2	3.4	2.2	2.7	2.6	2.6	2.2	2.0	2.6	2.3	2.3
계	2.9	2.9	3.0	2.9	3.0	3.0	2.4	2.6	2.5	2.5	2.5	2.5	2.2	2.5	2.2	2.2				
전북	서비스업	일반 서비스업	도소매연구개발서비스/IT서비스	2.8	2.6	2.6	2.4	2.6	2.6	2.2	2.2	2.2	2.4	2.2	2.0	2.4	2.2	2.2		
			첨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IT서비스	2.8	3.3	3.2	3.0	2.8	3.5	1.8	2.3	2.3	2.8	1.8	1.8	2.0	2.0	1.8	
			정보통신/방송서비스	2.0	3.0	3.0	2.0	4.0	4.0	1.0	1.0	3.0	3.0	3.0	1.0	1.0	1.0	1.0		
	제조업	일반 제조업	제조업	기계/자동차/금속	2.7	2.7	3.1	2.8	2.9	2.8	2.4	2.5	2.6	2.5	2.3	2.2	2.6	2.1	2.0	
				음식료/섬유/비금속/IT제조	3.0	3.1	3.1	2.9	3.0	2.9	2.1	2.2	2.5	2.4	2.2	2.1	2.3	2.2	2.0	
첨단	에너지/화학/정밀	3.5	3.5	3.5	3.5	3.5	3.5	3.5	3.0	3.0	3.0	3.0	3.0	2.3	3.0	3.0	2.8			

구분			신기술 개발	개발 기술 사업화	국내 판로 개척	해외 시장 개척	인력 확보 및 유지 관리	자금 관리	기술 유출 및 디자인·상표·도용	업계 내의 과당 경쟁 및 덤핑	법률·회계·세무 관련 지식 부족	조직 관리	환율 변동	특허 쟁	각종 규제	산학연 간 협력 활동	불공정 시장 질서	
성장 단계 별	제조업	의료/제약	2.8	3.0	2.4	3.2	2.8	3.2	2.8	2.6	2.6	2.6	2.8	2.6	2.8	2.2	2.2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2.9	2.9	2.7	2.7	3.1	3.1	2.2	2.6	2.6	2.8	2.2	2.2	2.4	2.3	2.1	
		통신기기/방송기기	2.0	2.0	2.0	2.0	3.0	3.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기타	2.7	2.3	3.3	2.0	2.7	3.3	1.7	2.0	1.7	1.7	1.3	1.3	1.3	1.7	1.3	1.3
		계	2.8	2.9	2.9	2.8	2.9	3.1	2.2	2.4	2.5	2.5	2.2	2.1	2.4	2.1	2.0	2.0
	수도권	창업기	2.8	2.8	2.9	2.9	2.8	3.0	2.5	2.6	2.6	2.6	2.3	2.2	2.4	2.4	2.3	2.3
		초기성장기	2.9	3.0	3.1	3.1	3.1	3.3	2.6	2.7	2.7	2.7	2.5	2.2	2.6	2.3	2.4	2.4
		고도성장기	2.8	2.8	2.9	2.9	3.0	3.0	2.5	2.7	2.5	2.6	2.6	2.2	2.6	2.2	2.3	2.3
		성숙기	2.8	2.7	2.8	2.8	2.9	2.8	2.4	2.6	2.4	2.5	2.5	2.1	2.4	2.1	2.2	2.2
		쇠퇴기	2.9	3.1	3.1	3.1	3.1	3.4	2.8	2.7	2.6	2.6	2.6	2.4	2.6	2.4	2.4	2.4
	계	2.8	2.8	2.9	2.9	3.0	3.0	2.5	2.6	2.5	2.6	2.5	2.2	2.5	2.2	2.5	2.2	2.3
	비수도권	창업기	2.8	3.0	3.0	2.9	3.1	3.2	2.6	2.5	2.8	2.6	2.4	2.3	2.6	2.4	2.4	2.4
		초기성장기	2.9	3.0	3.0	2.9	3.0	3.1	2.4	2.5	2.5	2.5	2.4	2.2	2.6	2.3	2.3	2.3
		고도성장기	2.8	2.9	3.0	3.0	3.1	3.1	2.4	2.7	2.6	2.6	2.6	2.2	2.6	2.3	2.3	2.3
		성숙기	2.9	2.9	2.9	2.8	2.9	2.9	2.4	2.6	2.4	2.5	2.4	2.1	2.5	2.1	2.1	2.1
		쇠퇴기	2.8	3.2	3.2	2.9	3.0	3.1	2.4	2.6	2.5	2.6	2.6	2.0	2.6	2.1	2.2	2.2
	계	2.9	2.9	3.0	2.9	3.0	3.0	2.4	2.6	2.5	2.5	2.5	2.2	2.5	2.2	2.2	2.2	
	전북	창업기	3.0	3.0	3.0	3.0	3.0	4.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초기성장기	2.9	3.0	3.1	2.7	3.0	3.3	2.4	2.2	2.4	2.6	2.1	1.9	2.5	2.2	1.9	1.9
		고도성장기	2.9	2.9	3.0	2.9	3.0	3.0	2.2	2.5	2.8	2.6	2.2	2.0	2.4	2.3	2.1	2.1
		성숙기	2.9	2.9	2.9	2.6	2.8	2.9	2.2	2.5	2.3	2.5	2.4	2.4	2.4	2.0	2.1	2.1
쇠퇴기		2.0	2.5	2.5	3.0	3.0	2.5	2.5	2.5	2.5	2.5	2.5	2.0	2.0	2.0	2.0	2.0	
계	2.8	2.9	2.9	2.8	2.9	3.1	2.2	2.4	2.5	2.5	2.5	2.2	2.1	2.4	2.1	2.0		

자료: 「2024년 벤처기업정말실태조사」

주: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진 재가공

## 2. 문제점 도출을 위한 심층인터뷰

### 가. 심층 인터뷰 개요

- (목적) AC, VC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전북 투자생태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함
- (대상) 현재 전북에 소재를 두거나 전북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투자사, 전북 벤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사 등을 심층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일시)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층인터뷰를 진행함
- (준비) 심층인터뷰 질문은 투자생태계에 대한 요소별로 구분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고, 대면 및 비대면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인터뷰시간은 대략 2시간이 소요되었음
- (진행) 인터뷰 진행 시, 목적과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사전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 세부질문을 하는 등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함

[표 4-16] 심층 인터뷰 참여자 정보

구분	심층인터뷰 대상자 직책	인터뷰 방식
AC	A1	부대표
	A2	이사
	A3	부대표
	A4	상무
	A5	본부장
VC	V1	상무
	V2	전무
	V3	팀장
	V4	팀장
	V5	이사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심층 인터뷰 결과

- 심층 인터뷰는 시장, 인적자원, 자금조달, 지원체계, 정책·거버넌스, 문화에 대한 생태계 요소에 맞춰 진행하였음

### ■ 시장

- (딜소싱의 난항) 수도권 대비 기술창업의 절대적인 모수가 부족하고, 투자자들은 “돈은 있지만 투자할만한 수준을 갖춘 기업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딜소싱 단계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임
- (특화산업의 성장성과 확장성 제한) 전북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주력산업들이 투자사 관점에서는 폭발적 성장(J-curve)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며 타 산업의 융합이나 신산업 연결 부족으로 시장 확장성에 제한적으로 보고 있음
- (회수 불확실성) 지역 내 M&A나 IPO 등의 성공적인 회수 사례가 극소수이기에 회수 경로가 불투명함으로 인한 진입장벽의 크다고 느낌

[표 4-17] 시장 요인의 문제점

요인	문제점
시장	투자 적격 스타트업 수 부족으로 딜소싱이 어려움
	특화산업(농생명·탄소·에너지 등)의 성장성과 확장성이 제한적
	엑시트 성공 사례 부족으로 회수 불확실성이 큼

자료: 연구진 작성

### ■ 인적자원

- (우수인재 확보 난항) 지역 대학 졸업생 등 청년 인력의 수도권 이탈로 핵심 인재에 대한 채용난을 겪고 있으며 인재 확보를 위해 연구소만 수도권에 두는 기형적인 구조 발생하고 있으며 스케일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작용함
- (고성장의 보수적 접근) 책임은 강하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려는 기업가정신이 다소 부족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생존을 위한 사업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글로벌 역량 및 지향성 부족) 해외시장, 글로벌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경험이 제한적이며 사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전제한 전략 수립 사례가 부족함
- (공공·지역 중심 사업 설계) 공공과제(공공조달이나 정부지원사업 수주 의존), 지역 수요 중심으로 사업모델이 형성되어 민간시장이나 전국 단위 확장성 검증이 미흡함
- (스타트업으로 인력 유입 미흡)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인력 풀 자체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나, 지역의 특성상 인력들이 스타트업 근무를 기피하여 핵심 인재의 유입이 제한적임

[표 4-18] 인적자원 요인의 문제점

요인	문제점
인적자원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력 확보가 어려움
	창업가의 사업화와 고성장 전략에 보수적 접근
	글로벌 역량 및 지향성 부족
	공공·지역 시장 중심의 사업 설계
	대학·연구기관 인력이 스타트업으로 유입 미흡

자료: 연구진 작성

## ■ 자금조달

- (높은 공공자금 의존도) 모태펀드·지자체 출자 비중이 높고,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민간 자본 참여 부족) 지역 내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경험의 부족으로 LP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
- (초기단계 자금 공백) 엔젤투자자 풀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고, 지역 AC 규모도 작아 죽음의 계곡을 넘기 어려움
- (후속투자·회수 연계 부족) 성장 단계 기업이 증가하더라도 지역 내 시리즈B 이상을 리드할 중대형 VC가 부재하며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기도 어려워 기업이 성장할수록 자금 조달의 난이도가 상승하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수도권 이전 또는 성장 정체로 이어짐

[표 4-19] 자금조달 요인의 문제점

요인	문제점
자금조달	높은 공공자금 의존도
	민간 자본 참여 부족
	엔젤·시드 단계 자금 공백이 심각함
	시리즈A 이후 후속투자 유치가 어려워 후속·회수 연계 부족

자료: 연구진 작성

## ■ 지원체계

- (엑시트 대상 기업 육성 성과 미흡) 보육기관은 많으나, 투자자가 매력을 느낄만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부족하고, VC의 후속투자, IPO, M&A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족함
- (지역 기반 민간AC 부족) 전북 내 전문 민간 AC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투자 기능보다 보육·행사 중심의 역할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존재함
- (민간AC 자생력 미약) 펀드 결성 규모·운영인력 부족으로 지속적 투자와 스케일업 지원이 어려운 구조임
- (전문 지원서비스 접근성 취약) 회계, 법률, 특허, IR, 글로벌 진출 등 스타트업 성장에 필수적인 전문서비스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여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저해함

[표 4-20] 지원체계 요인의 문제점

요인	문제점
지원체계	엑시트 고려 대상의 기업 육성 성과 미흡
	지역 기반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부족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자생력이 아직 약함
	전문지원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자료: 연구진 작성

## ■ 정책·거버넌스

- (정책의 민간 연계의 낮은 체감도) 정책은 다수 존재하나 현장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체감이 낮음
- (청년 중심의 창업설계) 창업지원의 정책이 청년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지역의 경제 허리가 될 중견·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이나 사내벤처 육성에는 소홀함
- (지역기업 LP 참여 인센티브 부족) 지역의 기업이 펀드 출자자로 참여할 세제·제도적 유인이 부족함
- (지역 플레이어 부재) 펀드는 결성되어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인력이나 결정권자가 지역에 상주하고 있지 않아 밀착 지원과 딜 소싱에 한계가 있음
- (투자자 대상 실질 혜택 부족) 외부 VC를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네트워크 기회가 부족함
- (공공 주도의 운영·성과 체계) 공공 중심의 성과관리 방식이 민간 투자자의 판단과 속도에 맞지 않음

[표 4-21] 정책·거버넌스 요인의 문제점

요인	문제점
정책·거버넌스	투자 활성화 정책의 민간 투자활성화 연결 체감도 낮음
	청년 중심의 창업 설계
	지역기업 LP 참여를 위한 출자 인센티브 설계 부족
	실제 전북지역 투자 플레이어의 부재
	실질적인 투자자의 혜택 부족
	공공 주도의 운영과 성과 체계

자료: 연구진 작성

## ■ 문화

- (네트워크 밀도 부족) 기본적인 플레이어의 수가 적어 투자자-창업자-기업 간의 일상적 네트워킹의 기회가 제한적이며 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이 투자로 이어지는 통로가 좁음
-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 부족) 지역내 스타트업이 투자의 필요성이나 준비 과정 등을 잘 모르고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엔젤 투자 문화 또한 생소하여 투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음
- (창업문화 기반 약화) 지역 내 성공 스토리 부재로 인해 도전 유인이 약화되고 보수적 창업문화가 고착된다는 인식이 존재함
- (안전지향형 사업 문화) 실패 회피 성향이 강해 고위험·고성장·고수의 전략의 선택을 주저하는 문화적 인식이 지배적임

[표 4-22] 문화 요인의 문제점

요인	문제점
문화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의 밀도 부족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
	성공사례의 부족으로 인한 창업문화 기반 약화
	안전지향형 사업 문화적 인식

자료: 연구진 작성

### 3.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델파이 분석

#### 가. 연구 방법

##### ■ 조사 절차

- 앞서 투자사들 대상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정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음
- 총 2회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1차에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2차에는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정리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개선방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 전북의 투자생태계에 대한 개략적 내용을 질문지에 추가하여, 전문가 집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북의 특성에 맞는 평가와 개선방안의 의견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 조사 방법

- (1차 조사) 1차 델파이 조사에는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해당 문제점에 대한 조정,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구조로 진행되었음
  - (조사) 도출된 문제점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조정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음
  - (분석) 수집된 내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 이하의 항목을 제외하고, CVR 타당성 분석과 전문가 조정 의견을 통해 2차 조사의 질문지 구성 항목을 조정하였고,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요인 섹터별로 정리함
- (2차 조사) 1차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평가,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로 조사 항목을 폐쇄형으로 구성하였음

- (조사)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함
- (분석) 조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CVR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문제점과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중요도와 적절성의 우선순위를 식별함

## ■ 전문가 구성

- 델파이 조사를 위한 전문가 구성은 AC·VC 산업계 전문가, 창업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연구계 전문가, 스타트업 및 투자사 경력이나 지원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생태계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18명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음

[표 4-23] 델파이 조사 참여 전문가

구분	소속
1	연구계
2	연구계
3	연구계
4	연구계
5	연구계
6	연구계
7	공공기관
8	공공기관
9	공공기관
10	산업계
11	산업계
12	산업계
13	산업계
14	산업계
15	산업계
16	산업계
17	산업계
18	산업계

자료: 연구진 작성

## 나. 연구 결과

###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전문가 18명의 평가 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성공사례 부족에 의한 창업문화 기반 약화, 민간 자본 참여 부족, 후속투자·회수 연계 부족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음

[표 4-24]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문제점	평균	중위	표준 편차	CVR
시장	투자 적격 스타트업 수 부족으로 딜소싱이 어려움	4.22	4	0.65	0.78
	특화산업의 성장성과 확장성이 제한적	3.22	3	0.94	-0.11
	엑시트 성공 사례 부족으로 회수 불확실성이 큼	3.94	4	1.06	0.33
인적자원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력 확보가 어려움	4.56	5	0.51	1.00
	창업가의 사업화와 고성장 전략에 보수적 접근	3.28	3	0.89	-0.11
	글로벌 역량 및 지향성 부족	3.33	3	0.69	-0.11
	공공·지역 시장 중심의 사업 설계	3.33	3.5	0.91	0.00
	대학·연구기관 인력이 스타트업으로 유입 미흡	3.67	4	1.14	0.33
자금조달	높은 공공자금 의존도	3.89	4	0.90	0.33
	민간 자본 참여 부족	4.33	4.5	0.77	0.67
	엔젤·시드 단계 자금 공백이 심각함	3.83	4	1.25	0.22
	시리즈A 이후 후속투자 유치가 어려워 후속·회수 연계 부족	4.33	4.5	0.77	0.67
지원체계	엑시트 고려 대상의 기업 육성 성과 미흡	3.94	4	0.73	0.44
	지역 기반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부족	3.83	4	1.15	0.22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자생력이 아직 약함	3.89	4	0.83	0.44
	전문지원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3.33	3	0.77	-0.22
정책·거버넌스	투자 활성화 정책의 민간 투자활성화 연결 체감도 낮음	3.78	4	0.94	0.33
	청년 중심의 창업 설계	3.17	3	1.20	-0.44
	지역기업 LP 참여를 위한 출자 인센티브 설계 부족	4.22	4.5	1.00	0.67
	실제 전북지역 투자 플레이어의 부재	4.11	4.5	1.13	0.56
	실질적인 투자자의 혜택 부족	3.72	4	0.96	0.44
문화	공공 주도의 운영과 성과 체계	3.44	3.5	0.78	0.00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의 밀도 부족	3.72	4	0.89	0.33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	3.78	4	1.00	0.33
	성공사례의 부족으로 인한 창업문화 기반 약화	4.39	4	0.61	0.89
	안전지향형 사업 문화적 인식	2.89	3	0.90	-0.44

주: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적 타당도)은 응답자 수가 18명일 때, 0.44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자료: 연구진 작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6개의 범주에 총 26개의 문제점 중에서 10개의 문제점으로 조정되어 재구성 하였음
  - 문제점의 조정은 CVR의 수치를 기준점(0.44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준 비율에 부합하는 문제점만으로 재구성하였음
  -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투자 연계형 기업 발굴 육성 체계 미흡, 민간 투자 유인 체계 미흡, 성공사례 부족으로 크게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표 4-25]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문제점 조정 결과

구분	문제점
시장	투자 적격 스타트업 수 부족으로 딜소싱이 어려움
인적자원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력 확보가 어려움
자금조달	민간 자본 참여 부족
	시리즈A 이후 후속투자 유치가 어려워 후속·회수 연계 부족
지원체계	엑시트 고려 대상의 기업 육성 성과 미흡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자생력이 아직 약함
정책·거버넌스	지역기업 LP 참여를 위한 출자 인센티브 설계 부족
	실제 전북지역 투자 플레이어의 부재
	실질적인 투자자의 혜택 부족
문화	성공사례의 부족으로 인한 창업문화 기반 약화

자료: 연구진 작성

-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각 요소의 범주별로 구분된 개선방안을 정리하였으며, 총 35가지의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음
  - 문제점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던 인재확보의 문제는 정주형 인센티브 제공, 교원·연구원 스피노프 창업 및 겸직·지분참여 제도 유연화, 외부 경험 창업가·전문인력의 '브릿지 창업' 유입 허용, 창업가 커뮤니티 및 연합형 팀빌딩 플랫폼 구축의 개선방안이 도출됨
  - 자금조달의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지역의 민간 LP 발굴, 엑시트 지향적 설계를 통한 경로 다변화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음

[표 4-26]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결과

구분	개선방안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출연연 기반 딥테크 스피노프 창업 활성화</li> <li>• Pre-AC 혹은 Pre-Seed 단계에서 투자 연계형 선별·보육 강화</li> <li>• 전북 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후 중장기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li> <li>• 단순 창업 확대가 아닌 투자·회수 가능 기업 중심 육성</li> </ul>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정주형 인센티브(주거·정착·생활 패키지) 제공</li> <li>• 교원·연구원 스피노프 창업 및 검직·지분참여 제도 유연화</li> <li>• 외부 경험 창업가·전문인력의 '브릿지 창업' 유입 허용</li> <li>• 창업가 커뮤니티 및 연합형 팀빌딩 플랫폼 구축</li> </ul>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자금은 마중물 역할로 한정, 민간투자 연계 조건 강화</li> <li>• 지역 엔젤·개인투자조합 육성 및 매칭펀드 확대</li> <li>• 지역 기업·자산가 LP 참여를 위한 세제·정책 인센티브 설계</li> <li>• 민간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 전환</li> <li>• 수도권 VC-지역 스타트업 공동투자(Co-investment) 제도화</li> <li>• 시리즈B 단계 민·관 펀드 및 로컬 스케일업 펀드 조성</li> <li>• IPO 이전 단계 회수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li> <li>• SI·CVC 연계를 통한 M&amp;A 기반 엑시트 경로 확대</li> </ul>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보육에서 투자 가능 기업 선별·집중 육성 체계로 전환</li> <li>• 초기부터 엑시트를 고려한 사업 설계 및 투자 연계 보육</li> <li>• 기업 생존 지표가 아닌 '기업가치·투자성과' 중심 관리</li> <li>• AC 전용 시드펀드 및 초기 투자 자원 확대</li> <li>• AC 성과(후속투자·TIPS선정 등) 기반 인센티브 도입</li> <li>• 투자심사역·AC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공동 채용 지원</li> <li>• 공공은 인프라 제공, 보육·투자는 민간 위탁 구조 정착</li> </ul>
정책·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업 LP 출자 시 지방세 감면·행정 인센티브 제공</li> <li>• LP 출자 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연계</li> <li>• 민간 LP 손실 완충 구조 설계 검토</li> <li>• 지역 기반 AC·VC·엔젤 투자자 장기 육성 전략 수립</li> <li>• 민간 주도 투자 거버넌스(의결권 포함) 구축</li> <li>• 전북 특화 투자 플레이어 집중 육성 및 외부 투자사 정착 유도</li> <li>• 민간 투자 성과를 핵심 정책 성과지표로 전환</li> <li>• LP 참여 기업 대상 네트워킹·사업 연계 우대</li> <li>•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보완</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스타트업 집중 발굴 및 확산</li> <li>• 성공·실패 사례의 체계적 공유 및 재돈전 트랙 마련</li> <li>• AC·VC·창업가 간 정례 네트워크 및 성과 교류 강화</li> </ul>

자료 : 연구진 작성

##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1차 델파이 조사를 반영해 조정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황에 대해 평균값, 중위값, 표준편차 등 전문가 의견 분포를 제시함
- 전문가 18명의 평가 결과, 딜소싱의 어려움(시장), 시리즈A 이후 후속투자·회수 연계 부족(자금조달), 출자 인센티브 설계 미흡(정책거버넌스), 인력 확보의 어려움(인적자원), 민간 자본 참여부족(자금조달)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음

[표 4-27]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문제점	평균	중위	표준 편차	CVR	탈락 여부
시장	투자 적격 스타트업 수 부족으로 딜소싱이 어려움	4.56	5	0.62	0.89	-
인적자원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력 확보가 어려움	4.44	4	0.51	1.00	-
자금조달	민간 자본 참여 부족	4.22	4	0.73	0.67	-
	시리즈A 이후 후속투자 유치가 어려워 후속·회수 연계 부족	4.56	5	0.62	0.89	-
지원체계	엑시트 고려 대상 기업 육성 성과 미흡	3.78	4	0.81	0.33	탈락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자생력이 아직 약함	4.06	4	0.87	0.56	-
정책 거버넌스	지역기업 LP 참여를 위한 출자 인센티브 설계 부족	4.50	4.5	0.51	1.00	-
	실제 전북지역 투자 플레이어의 부재	4.17	4	0.86	0.67	-
	실질적인 투자자의 혜택 부족	4.06	4	0.73	0.56	-
문화	성공사례의 부족으로 인한 창업문화 기반 약화	4.06	4	0.87	0.56	-

주: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적 타당도)은 응답자 수가 18명일 때, 0.44 이상이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자료: 연구진 작성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6개 범주 총 10개의 문제점에서 중요도가 낮다고 결론지어진 3가지 문제점 개선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 문제점의 조정은 CVR의 수치를 기준점(0.44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준 비율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은 탈락하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문제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투자 적격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 투자 연계 체계의 부족, 우수 인재 유입·정책과 자금조달을 포함한 민간 투자유인 체계의 한계, 지원제도 및 정책 거버넌스의 실효성 부족, 성공사례 축적 미흡에 따른 투자 선순환 구조 약화로 정리할 수 있음

[표 4-28]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문제점 조정 결과

구분	문제점
시장	투자 적격 스타트업 수 부족으로 딜소싱이 어려움
인적자원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력 확보가 어려움
자금조달	민간 자본 참여 부족
	시리즈A 이후 후속투자 유치가 어려워 후속·회수 연계 부족
지원체계	(중장기 개선)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자생력이 아직 약함
정책·거버넌스	지역기업 LP 참여를 위한 출자 인센티브 설계 부족
	실제 전북지역 투자 플레이어의 부재
	(중장기 개선) 실질적인 투자자의 혜택 부족
문화	(중장기 개선) 성공사례의 부족으로 인한 창업문화 기반 약화

자료: 연구진 작성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총 35가지의 개선방안을 대상으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8개의 개선 방안이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높은 평균값으로 도출된 개선방안은 지역기업이나 자사가 LP참여 시 세제·행정·정책 인센티브 제공인데, 이것은 자금조달과 정책·거버넌스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방안임
  - 이어서,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대표 스타트업 집중 발굴 및 확산(문화),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보완(자금조달), 지역 정주형 인센티브 제공(인적자원), 단순 보육에서 투자 가능 기업 선별·집중 육성 체계로 전환(지원체계), Pre-AC 혹은 Pre-Seed 단계에서 투자 연계형 선별·보육 강화(시장) 등이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도출됨
  - 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투자와 성장 구조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한 성과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선방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지역의 기업들과 연계한 투자, 도외 기업의 장기 정착과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을 통한 투자생태계의 활성화가 주된 의견으로 귀결됨

[표 4-29]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문제점별 개선방안 조사 결과

구분	개선방안	평균	중위	표준 편차	CVR	탈락 여부
시장	1) 대학·출연연 기반 디테크 스피노프 창업 활성화	4.11	4	0.76	0.56	-
	2) Re-AC 혹은 Re-Seed 단계에서 투자 연계형 선별보육 강화	4.33	5	0.84	0.56	-
	3) 전북 외유망 스타트업 유치 후 중장기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22	4	0.81	0.78	-
	4) 단순 창업 확대가 아닌 투자·회수 가능 기업 중심 육성	3.94	4	0.94	0.11	탈락
인적자원	5) 지역 정주형 인센티브(주거·정착·생활 패키지) 제공	4.44	5	0.92	0.67	-
	6) 교원·연구원 스피노프 창업 및 겸직·자문참여 제도 유연화	4.11	4	0.76	0.78	-
	7) 외부 경험 창업가·전문인력의 '브릿지 창업' 유입 허용	4.17	4	0.99	0.67	-
	8) 창업가 커뮤니티 및 연합형 팀빌딩 플랫폼 구축	4.00	4	0.77	0.44	-
자금조달	9) 공공자금은 미중용 역할로 한정 민간투자 연계 조건 강화	3.78	4	0.65	0.33	탈락
	10) 지역 엔젤·개인투자조합 육성 및 매칭펀드 확대	4.11	4	0.90	0.56	-
	11) 지역 기업·자선가 LP 참여를 위한 세제·정책 인센티브 설계	4.50	4.5	0.51	1.00	-
	12) 민간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 전환	3.83	4	1.15	0.33	탈락
	13) 수도권 VC·지역 스타트업 공동투자(Co-investment) 제도화	3.89	4	0.90	0.33	탈락
	14) 시리즈B 단계 민·관 펀드 및 로컬 스케일업 펀드 조성	4.28	4	0.57	0.89	-
	15) IPO 이전 단계 회수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	4.28	5	1.02	0.67	-
지원체계	16) SI·CVC 연계를 통한 M&A 기반 엑시트 경로 확대	4.22	4	0.65	0.78	-
	17) 단순 보육에서 투자 가능 기업 선별·집중 육성 체계로 전환 <sup>장기</sup>	4.28	4	0.67	0.78	-
	18) 초기부터 엑시트를 고려한 사업 설계 및 투자 연계 보육 <sup>장기</sup>	3.56	3	0.70	-0.11	탈락
	19) 기업 생존 지표가 아닌 기업 가치·투자성과 중심 관리 <sup>장기</sup>	3.89	4	1.02	0.11	탈락
	20) AC 전용 시드펀드 및 초기 투자 자원 확대	4.22	4	0.73	0.67	-
	21) AC 성과(후속투자·TIPS선정 등) 기반 인센티브 도입	4.11	4	0.58	0.78	-
	22) 투자심사역·AC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공동 채용 지원	3.39	3	0.98	-0.22	탈락
정책·거버넌스	23) 공공은 인프라 제공, 보육 투자는 민간 위탁 구조 정착	3.83	4	0.92	0.44	-
	24) 지역기업 LP 출자 시 지방세 감면·행정 인센티브 제공	4.61	5	0.61	0.89	-
	25) LP 출자 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4.39	4.5	0.70	0.78	-
	26) 민간 LP 손실 완충 구조 설계 검토	4.33	4	0.59	0.89	-
	27) 지역 기반 AC·VC·엔젤 투자자 장기 육성 전략 수립	4.39	5	0.78	0.67	-
	28) 민간 주도 투자 거버넌스(의결권 포함) 구축	3.83	4	0.71	0.33	탈락
	29) 전북 특화 투자 플랫폼에 집중 육성 및 외부 투자자 정착 유도	4.22	4.5	0.88	0.44	-
	30) 민간 투자 성과를 핵심 정책 성과지표로 전환 <sup>장기</sup>	3.94	4	0.73	0.44	-
	31) LP 참여 기업 대상 네트워킹·사업 연계 우대 <sup>장기</sup>	4.28	4	0.67	0.78	-
	32)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보완 <sup>장기</sup>	4.50	4.5	0.51	1.00	-
문화 (중장기 개선)	33) 대표 스타트업 집중 발굴 및 확산 <sup>장기</sup>	4.56	5	0.51	1.00	-
	34) 성공·실패 사례의 체계적 공유 및 재도전 트랙 마련 <sup>장기</sup>	4.00	4	0.97	0.56	-
	35) AC·VC·창업가 간 정례 네트워크 및 성과 교류 강화 <sup>장기</sup>	4.33	5	0.91	0.44	-

자료: 연구진 작성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정 결과 총 6개 분야 27개 개선방안으로 재구성함

[표 4-30]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조정 결과

구분	개선방안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출연연 기반 딥테크 스피노프 창업 활성화</li> <li>• Pre-AC 혹은 Pre-Seed 단계에서 투자 연계형 선별·보육 강화</li> <li>• 전북 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후 중장기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li> </ul>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정주형 인센티브(주거·정착·생활 패키지) 제공</li> <li>• 교원·연구원 스피노프 창업 및 겸직·지분참여 제도 유연화</li> <li>• 외부 경험 창업가·전문인력의 '브릿지 창업' 유입 허용</li> <li>• 창업가 커뮤니티 및 연합형 팀빌딩 플랫폼 구축</li> </ul>
자금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엔젤·개인투자조합 육성 및 매칭펀드 확대</li> <li>• 지역 기업·자산가 LP 참여를 위한 세제·정책 인센티브 설계</li> <li>• 시리즈B 단계 민·관 펀드 및 로컬 스케일업 펀드 조성</li> <li>• IPO 이전 단계 회수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li> <li>• SI·CVC 연계를 통한 M&amp;A 기반 엑시트 경로 확대</li> </ul>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보육에서 투자 가능 기업 선별·집중 육성 체계로 전환<sup>장기</sup></li> <li>• AC 전용 시드펀드 및 초기 투자 자원 확대</li> <li>• AC 성과(후속투자·TIPS선정 등) 기반 인센티브 도입</li> <li>• 공공은 인프라 제공, 보육·투자는 민간 위탁 구조 정착</li> </ul>
정책·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업 LP 출자 시 지방세 감면·행정 인센티브 제공</li> <li>• LP 출자 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연계</li> <li>• 민간 LP 손실 완충 구조 설계 검토</li> <li>• 지역 기반 AC·VC·엔젤 투자자 장기 육성 전략 수립</li> <li>• 전북 특화 투자 플레이어 집중 육성 및 외부 투자자 정착 유도</li> <li>• 민간 투자 성과를 핵심 정책 성과지표로 전환<sup>장기</sup></li> <li>• LP 참여 기업 대상 네트워킹·사업 연계 우대<sup>장기</sup></li> <li>•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정책적으로 보완<sup>장기</sup></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 스타트업 집중 발굴 및 확산<sup>장기</sup></li> <li>• 성공·실패 사례의 체계적 공유 및 재도전 트랙 마련</li> <li>• AC·VC·창업가 간 정례 네트워크 및 성과 교류 강화</li> </ul>

자료: 연구진 작성

---

## 4. 소결

### ■ 실태조사 분석 결론

- 전북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외형적으로는 고도성장기 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신규 창업기업 비중이 매우 낮고 쇠퇴기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속적인 기업 유입과 성장 정체로 인한 세대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전북의 벤처 생태계가 '성장 기업 중심의 정체 국면'에 진입해 있음을 시사함
- 업종 구조 측면에서 전북은 비수도권 전반의 특성과 유사하게 제조업 중심의 분포를 보이되, 첨단 제조업보다는 일반 제조업 비중이 높아 기술 고도화 및 산업 전환 속도 측면에서 제한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확장과 민간 투자자의 선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재무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북 벤처기업은 업력과 성장단계가 상승하더라도 자산·매출·자기자본의 축적 규모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성장단계 상승이 재무 안정성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 단절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남
  - 전북은 재무적 기반이 취약하여 영세적인 구조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외부 투자 유입의 부족과 내부 유보 축적의 한계를 동시에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됨
- 매출 구조 측면에서 전북 벤처기업은 국내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B2G 비중이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높아 공공에 의존적인 성장 구조가 고착화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인 매출 안정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민간 시장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장기적 성장 및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는 중장기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지분 구조 분석 결과, 전북 벤처기업은 업력과 성장단계가 높아져도 창업자 지분 집중도가 높게 유지되며, 외부 투자자(VC·기관투자자·엔젤 등)의 지분 참여가 제한적으로 나타남
  - 이는 투자 유입을 전제로 한 성장 경로가 제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북 투자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한계로 평가됨

- 인력 구조 측면에서 전북 벤처기업은 종사자 수 자체는 적지 않으나, R&D 인력 비중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생산 중심의 고용 구조로 판단됨
  - 기술의 축적과 숙련의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과 투자 매력도 제고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 ■ 심층인터뷰 및 델파이 분석 결론

- 작은 시장에 따른 딜소싱 난항, 인력 수급의 어려움, 공공자금의 높은 의존도, 후속 투자를 리드할 중대형 VC의 부재, 지원 역량 부족, 청년에 집중된 지원 예산의 한계와 스케일업 및 사후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 델파이 분석을 통해 총 6개 분야 27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인적 인프라 강화, 자금 조달의 민간 전환 및 엑시트 경로 다양화, 전문 지원 체계 구축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 등임

### ■ 종합 시사점

- 전북의 스타트업 투자생태계는 기업 수와 고용 측면의 양적 기반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으나, 초기 창업 유입 부족, 외부 투자 연계 미흡, 재무·지분 구조의 폐쇄성, 공공 의존적 매출 구조, R&D 인력 취약성 등이 중첩되며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전북 스타트업 투자생태계의 본질적 과제는 단순한 자금 공급 확대가 아니라, 성장 단계별 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투자 구조의 정교화, 민간 투자자 참여를 전제로 한 지분·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공공 의존형 성장에서 민간·글로벌 시장 기반 성장으로의 구조 전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제 5 장

## 종합 및 결론

1. 연구 요약
2. 전북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제5장 종합 및 결론

### 1. 연구 요약

#### ■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문제 인식

- 본 연구는 전북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초기 창업지원 예산, 보육 프로그램, 인프라 등의 창업 친화적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영역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자생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
- 특히 전북은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점 이후 성장 정체와 기업 이탈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창업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유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현상으로 인식함

#### ■ 투자와 스타트업 생존·성장의 관계 설정

-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투자가 단순한 자금조달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적인 촉매 요인으로 보고 본 연구의 중심설계를 수행함
-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의 문제를 창업 수나 지원 사업의 부족이 아닌, 투자 접근성·투자 연결 구조·성장 단계 자본 공급의 미흡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함

#### ■ 스타트업 생존 및 투자 결정요인 분석

-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별 스타트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초기 생존단계와 최종 생존단계를 지정하여 각 단계별로 투자유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로짓 분석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검증하였음
- (초기 생존단계) 초기 투자유치는 재무 성과나 지역 요인보다 기업이 위치한 성장단계가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현재 성과보다는 비정량적 요소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 생존단계) 시리즈 A 투자는 업력과 함께 누적된 투자 이력, 투자자 유형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였고, 투자자수와 건수가 많을수록 최종 생존단계 진입 확률이 높았으며 VC의 투자 받은 이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함
- (종합적 결론)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성장·생존을 살펴보았을 때, 초기에 VC를 통한 투자 노출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 주도의 초기 보육 위주의 프로그램 개선, 사업화·시장성의 고도화, 기업가정신 고취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

#### ■ 투자사 심층인터뷰를 통한 구조적 문제 도출

- 전북 및 비수도권 투자 경험을 보유한 투자사(AC, VC)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생태계 요소(시장, 인적자원, 자금조달, 지원체계, 정책 거버넌스, 문화)에 맞춰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음
- 그 결과, 전북 투자생태계의 문제는 단순히 투자 대상 기업의 부족이 아니라, 투자 검토 단계로 이어지는 정보 접근성의 한계, 검증된 성장 경로의 부재, 회수시장과의 단절, 지역 내 투자 네트워크의 취약성에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음
- 이는 전북의 투자생태계가 ‘투자 의지가 없는 지역’이라기보다, 투자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신뢰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지역임을 의미함

#### ■ 델파이 조사를 통한 개선 방향 정립

- 본 연구는 앞선 실증분석과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전북 투자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음
- 델파이 조사 결과, 전북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펀드 확대보다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결성 강화, 민간 투자자 참여 확대, 성장 단계별 투자 공백 해소가 우선 과제로 도출하였음
- 특히 투자사의 관점에서는 신뢰 가능한 투자 파이프라인 구축과 스타트업의 성장 신호를 가시화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음

## 2. 전북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전략1) 투자 가능 기업 밀도 제고로 전환

- (문제인식) 그간 전북의 창업정책은 창업자 수 확대, 기업 수 증가, 보육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 양적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어 왔음. 이로 인해 창업지원 인프라라는 일정 수준 구축되었으나, 투자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스타트업의 밀도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임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도 “투자 적격 스타트업 수 부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투자 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자금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투자 관점과 괴리되어 있음을 시사함
  -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업의 풀이 부족하여 딜소싱 비용과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기본방향 설정) 단순 창업 수 확대에서 투자가 가능 기업 밀도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고 전북 주력산업(농생명, 탄소소재, 이차전지 등) 기반의 딥테크·스핀오프 창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즉,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투자·성장·회수를 전제로 설계된 스타트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재설정해야 함
  - 성과나 평가 기준을 창업기업 수와 같은 단순 정량지표를 벗어나 후속 투자 유치율 및 기업가치 상승 등의 질적 성과 중심지표로 재편이 필요함
- (실행제고 전략)
  - 투자연계형 Pre-Seed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육중심에서 투자검증 중심으로 전환하여 투자와 보육을 패키지화 추진
  - 딥테크 및 스페셜 창업 특화지원을 통해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규제 완화 및 전담 조직 역량 강화
  - 창업 성과 지표를 ‘기업 수’가 아닌 후속투자 유치, 기업가치 상승, 회수 가능성 중심으로 재설계

## ■ (전략2) 민간 LP가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구조 설계

- (문제 인식) 전북 투자생태계의 또 다른 구조적 한계는 민간 LP(지역 기업, 자산가, 중견기업 등)의 참여 부족임. 그러나 이는 민간 자본의 절대적 부족이라기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에서 기인함
  - 공공 중심의 출자 구조의 과도한 의존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저하 우려가 존재함
  -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민간 LP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자 구조 전반에 대한 재설계 필요성을 시사함
- (기본방향 설정) 전북은 민간 LP를 단순한 자원 조달 수단이 아닌, 투자생태계의 핵심 행위자로 재정의하고, 민간이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함
  - 민간이 수익을 기대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 공공은 마중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함
  -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LP가 아니라 지역의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자(SI형 LP)로 유도
- (실행제고 전략)
  - 단순 출자 유도형 인센티브(세제 감면)에서 벗어나 손실 완충, 전략적 연계, 출구 설계가 결합된 LP 구조 설계
  - LP 참여 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M&A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전략3) 투자 주체 육성 정책의 병행

- (문제 인식) 그간 전북의 정책은 스타트업만을 육성 대상으로 설정해 왔으며, 엑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로컬 VC 등 투자 주체는 정책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투자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스타트업뿐 아니라 투자 주체 역시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
- (기본방향 설정) 전북은 AC·엔젤·VC를 단순 중개자가 아닌,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지역 산업 주체’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즉, 투자자가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창업정책도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임

○ (실행제고 전략)

- 지역기반 AC·VC 전용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AC 전용 시드펀드 조성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 도입
- 지역 개인투자조합 및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매칭 펀드를 확대하고, 엔젤투자자의 초기 실패 리스크를 완충하는 정책 장치 마련
- 지역 내 기업·금융 전문가를 투자 심사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무 교육 트랙 신설 및 정주 지원 인센티브 제공
- 로컬 VC의 트랙레코드 축적을 위한 장기 투자 환경 조성

■ (전략4) 오픈 투자정보 플랫폼 기반 회수 및 선순환 생태계 구축

○ (문제 인식) 현재 전국의 창업·투자 지원은 시드~Pre-A 단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회수시장은 상당히 미성숙한 상태이며, 투자자의 입장에서 접근 가능한 DB가 파편화되어 있어 정보비대칭이 존재함

- 이로 인해 유망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 성장한 이후에도 후속투자 유치에 실패하거나, 외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기본방향 설정) 전국 투자정책의 핵심 타깃을 Series B-Scale-up-Exit 구간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함

- 데이터 기반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투자 및 회수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분산된 행정 지원체계를 통합이 필요
- M&A, 세컨더리 등의 회수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DB를 축적하여 글로벌 투자 및 기업과의 연결고리 마련 필요

○ (실행제고 전략)

- 전국 오픈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 DB(스타트업 정보, 기술, 재무, 성장단계, IR자료 등)를 표준화 및 공개하여 누구나 플랫폼을 통해 기업을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플랫폼 내 M&A 매칭 전용 기능을 탑재하고 초기 투자자가 지분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세컨더리 펀드 결성 및 지분 거래 연계
- 지역 내 투자 유치 및 회수 성공사례, 수익률 등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축적 및 공개

## 참 고 문 헌

### REFERENCE

- 고병기, 박솔잎, 김다혜, 성장수(2022),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팀스(TIPS) 투자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7(5), pp. 31-47
- 공혜원. (2019). 글로벌 국가 비교를 통한 한국 기술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진단: 정량 및 정성 연구. vol.14, no.1, 통권 61호 pp. 101-116.
- 구중희, 김영준, 이수용, 김도현, 백지연(2019), 한국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14(4), pp.1-18.
- 김기만(2022),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 신생기업 생존의 원인 조건: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OECD 국가 비교 분석, 중소기업연구, p.79~101
- 김기만(2024), 인공지능(AI) 벤처캐피탈 투자결정요인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김기만, 윤주현, 최종민(2022),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 신생기업 생존의 원인 조건: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OECD 국가 비교 분석, 중소기업연구 44(3), p.79-101.
- 김꽃별, 박지환(2023), 스케일업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국제비교 및 진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김소연, 조민경, 이무원(2020), 싱가포르 창업생태계 연구: Isenberg(2010) 프레임워크의 지역적 변용을 통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pp. 47-65.
- 김진수, 박지훈, 이상명(2024) 경제 호황과 후퇴의 시기에 벤처캐피탈 투자 의사결정요인 비교 연구, 벤처창업연구 19(1) 호, pp.1-21.
- 김현창(2018). 제1판교테크노밸리 창업생태계 사례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3(4), 166-194.
- 문미성(2019),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대안적인 공간전략\_창업생태계의 개념과 공간적 함의, 국토 제456호
- 박희원(2018), 해외 액셀러레이터 기관 사례분석 및 시사점\_Y Combinator(美) 사례, 산은조사월보 제749호
- 반성식, Andrew Zacharakis, 송경모(2002),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의사결정 모형 :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재무관리연구, 19(2), pp 271-297
- 변정욱, 김윤배, 이병철(2022), 액셀러레이터 투자자와 창업자의 스타트업 투자결정요인 중요도

- 평가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7(4), pp. 45-55.
- 서대훈(2019), 주요국의 스타트업(Startup) 지원방식과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761호
- 이서한, 노승훈(2014), ICT융합 유형별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12), pp.203-215.
- 이정우(2016), "창업대중화의 주역, 액셀러레이터", Entrepreneurship Korea 2016, Vol.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철우, 이종호. (2004). 지방대도시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및 문화적 환경: 대구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
- 이현호, 황보윤, 공창훈. (2017). 스타트업의 초기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2권 제1호, 통권 49호, PP. 1-13.
- 임정욱. (2015). 한국스타트업생태계의 현황과 과제. 정보과학회지, Vol.33, NO.1, pp.19-25.
- 전해영(2016),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VIP REPORT』 16-16호, 현대경제연구원
- 정대영, 김영수(2000), 벤처기업의 창업성장단계별 지원제도 평가와 벤처생태계 모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 163-196.
- 조길수(2017),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 기반 국내 스타트업의 현황 및 육성 방안」, 『Issue Weekly』 2017-0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천백민. (2024). 한국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생태계 비교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vol.19, no.6, pp. 943-964.
- 최광훈, 김정환, 박형욱. (2024). 지역 창업생태계(Regional Entrepreneurial Ecosystem)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전략. KISTI 이슈브리프 제71호.
- 한주형, 황보윤(2020),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결정요인, 벤처창업연구, 15(1) pp. 31-44.
- 허주연(2020),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5), pp.13~35
- 황세희, 김경미, 박현준(2020), 국내 스타트업의 현황 및 성공요인 분석:(주)우아한형제들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산업정보학회논문지, 25(1), pp.71-87.
- Agarwal, R., & Gort, M.(1996). The evolution of markets and entry, exit and survival of firm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8(3), 489-498. <https://doi.org/10.2307/2109796>
- Almeida, P., & Kogut, B.(1999). Localization of knowledge and the mobility of engineers in regional networks. Management science, 45(7), 905-917.
- Bandera, C., & Thomas, E.(2018). The role of innovation ecosystems and social

- capital in startup survival.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66(4), 542-551.
- Baumann, Mehlhorn(2024), Venturing into the future: Exploring venture capitalists' decision-making criteria for cellular agriculture startups, *EBER*, 12(4), pp. 25-42
- Cohen(2004), Sustainable valley entrepreneurial ecosystems. *Business Strategy Environment*, 15(1), 1-14.
- Delgado, M., Porter, M. E., & Stern, S.(2010). Clusters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0(4), 495-518.
- Dobрила Rancic Moogk(2012), Minimum Viable Product and the Importance of Experimentation in Technology Startup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23-26.
- Hellman and Puri(2002), Venture Capital and the Professionalization of Start-up Firms: Empirical Evidence, *The Journal of Finance*, vol.57, pp.169-197.
- Kauffman, R. J., & Wang, B.(2001). The success and failure of dotcoms: a multi-method survival analysis, *Proceedings of the 6th INFORMS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CIST 2001. FL:INFORMS
- MacMillan, I. C., Siegel, R., & Narasimha, P. S.(1985). Criteria used by venture capitalists to evaluate new venture proposal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119-128.
- Porter, M. E.(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4(1), 15-34.
- Sorenson, O., & Stuart, T. E.(2001). Syndication network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 2024*
- Valentina A. Assenova & Raphael Amit(2024), Poised for growth: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lerator program design and startup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5, 1029-1060.
- Valkonen Ville(2018), VENTURE CAPITAL INVESTMENT CRITERIA IN GAME SOFTWARE COMPANIES: Initial investments in the Finnish game industry.

글로벌타임즈. (2022). 우범지대 슬램가, 세계의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다 '영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주요국 스타트업 생태계 조사.

박문수·박진(2023), 디지털전환 시대 한국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 조건, , KIET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2024).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생존과 성장 조건.

삼성경제연구소. (1998).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5개년 계획.

설성수, 박정민, 서상혁. (2002). 대덕밸리의 형성과 진화, 삼성경제연구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4). 지역 간 스타트업 이동 현황과 과제.

신승용 외(2024),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질적 향상 방안,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유효상(2021), '스타트업 생태계 바로 읽기', Korea Startup Forum

윤종언. (2000). 집적지별 벤처생태계 현황, 「벤처심포지엄」, 삼성경제연구소.

인천연구원. (2024).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방향 연구.

임채운 외. (2005). 벤처캐피탈의 기술가치평가능력 제고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2024). 지역창업생태계 리포트(울산).

최광훈, 김정환, 박형욱(2024)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전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지원정책. 이슈분석 124호.

한국노동연구원. (2024).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고용 패러다임 변화.

한국무역협회. (2023). 스케일업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국제비교 및 진단. TRADE FOCUS,  
2023년 08호.

한국행정연구원. (2023).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한정화. (2000). 한국벤처생태계의 진화과정과 미래전망, 삼성경제연구소.

S&T GPS. (2023). 마일 중소기업 R&D 프로그램 현황과 시사점

Moore(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and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New York: Harper Business

관계부처 합동. (2022).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2023).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3~'25)

경기도. (2024). 경기도 G-펀드 조성현황.

부산광역시. (2019). 창업촉진지구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2025). 서울Vision2030 펀드 5조원 중 올해 절반 조성...첨단제조와 창조산업에 집중 투자.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2020).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2021).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

중소벤처기업부. (2025). 2025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전라북도. (2021).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전북특별자치도. (2023). 2023년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전북특별자치도. (2023).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2024). 2024 전북 기술창업 실태조사.

전북특별자치도. (2025). 2025년도 창업지원편람.

경기스타트업플랫폼. <https://www.gsp.or.kr/>

벤처투자종합포털. <https://www.vcs.go.kr/web/portal/main>

전북창업정보온라인서비스. [https://www.jbci.or.kr/sub/startorg\\_1.html?offset=48](https://www.jbci.or.kr/sub/startorg_1.html?offset=48)

K-Startup 창업지원포털. <https://www.k-startup.go.kr/>

엑셀러레이터 산업백서 2025 상반기, 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Policy Roadmaps to Revitalize the Startup Ecosystem in Jeonbuk

Hee-Un Ko · Eog-eon Lee · Miseon Jeong

## 1. Policy Goals and Methods

### 1) Policy Background and Goals

- Startup firms continue to concentrat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approximately 72% relocating to the capital region on average.
  - In 2023, about 75% of startup firms were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mong the firms relocating from the Honam region, 65.5% moved to the capital region and 27.6% to the Chungcheong region.
- In non-capital regions, the startup ecosystem is largely dependent on incubation programs l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 limited private investment base constrains its capacity for self-sustained growth.
  - In 2024,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counted for 68.5% of total venture investment, while Jeonbuk's share was only 0.58%.
- Strategic discussions are required to build a stable virtuous cycle in the startup ecosystem by fostering private-led entrepreneurship, strengthening industry linkages, and improving investment infrastructure.
- This study assesses the startup ecosystem in Jeonbuk and proposes policy roadmaps for its revitalization.

## 2) Research Methods

- Definition and overview of the startup ecosystem: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the startup ecosystem and analyzes its current status and related policie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 Analysis of factors determining startup survival and growth: This study examines the key determinants of startup survival and growth and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in non-capital regions through empirical analysis.
- Findings and implications: Drawing on an analysis of Jeonbuk's investment landscape, in-depth interviews, and a Delphi survey, this study identifies key issues and areas for improvement and proposes strategies to revitalize the startup investment ecosystem in Jeonbuk.

## 2. 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1) Research Summary

- Despite the growing share of startup firms and a relatively high early survival rate, Jeonbuk continues to face structural limitations.
- Among local governments, Jeonbuk has substantial startup support funding and well-developed incubation infrastructure. However, its underdeveloped investment ecosystem limits the inflow of private capital.
- The analysis of startup survival and growth in non-capital regions shows that early exposure to venture capital serves as a positive market signal. This calls for comprehensive reforms designed to improve government-led incubation programs, strengthen commercialization and market viability,

and promote entrepreneurship.

- Jeonbuk's startup investment ecosystem has achieved a certain quantitative scale in terms of firm numbers and employment. Nevertheless,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limited startup inflows, weak external investment linkages, closed financial and equity structures, reliance on public-sector revenues, and a shortage of R&D personnel, hinde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investment-growth-exit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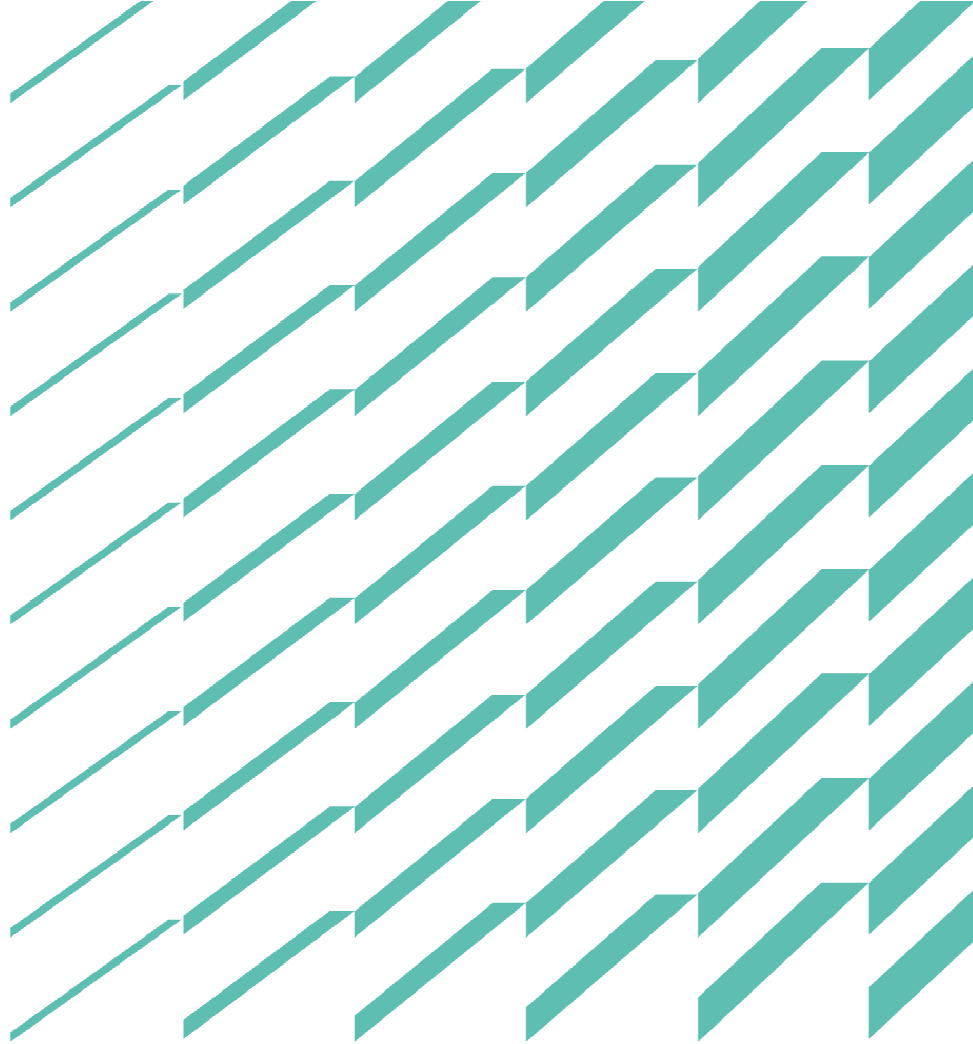
## 2) Policy Recommendations

- Jeonbuk requires a refined investment structure aligned with stage-specific investment demands, improvements in equity and financial structures to attract private investors, and a shift from a public-led growth model toward growth driven by private and global markets.
- This study presents four strategic directions to revitalize Jeonbuk's investment ecosystem.
  - (Strategy 1) Expanding the density of investment-ready firms: fostering firms with clear pathways to investment, growth, and exit
  - (Strategy 2) Designing investment structures to facilitate private LP participation
  - (Strategy 3) Reframing venture investors as core policy actors
  - (Strategy 4) Development of a virtuous Investment ecosystem for investment and Exit on an open investment information platform

### Key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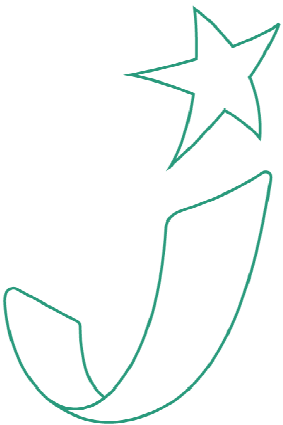
startups, new ventures, startup promotion policy, venture firms, investment attraction





## 부록

1. 중앙부처 추진 스타트업 지원 사업
2. 전북 창업지원 기관 현황





## 부 록

### APPENDIX

#### 1. 중앙부처 추진 스타트업 지원 사업

소관부처	대상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글로벌	AI·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	- 글로벌 협력채널 및 해외실증 프로젝트 발굴 지원, 해외 수요처 실증 요청에 따 른 MVP 시제품 테스트 관련 비용 지원 (제작 및 개발비용, 시장조사, 계약검토 및 마케팅, 실증기간 동안 임차료 및 국 외여비 등 지원)
	☑️☑️	글로벌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 현지파트너십형성, 합작법인설립·운영관련 컨설팅(법률, 회계, 특허 등), 현지 잠재 고객, 파트너 발굴 컨설팅 등
	☑️☑️	사업화	K-Global 액셀러레이팅	- 사업화 및 기술지원, 멘토링, 네트워킹, 시설지원, 홍보지원 등 글로벌 액셀러레 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수행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 동 액셀러레이터 역량 강화 지원
	예☑️ ☑️	멘토링· 컨설팅· 교육	K-Global 창업멘토링(ICT혁신기업 멘토링)	- 전담멘토링, 법률 및 특허 멘토링, 실전창 업교육, 투자유치 역량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홍보 지원, 네트워킹 등 종합 지원
	☑️☑️	글로벌	K-Global 해외진출지원사업(글로벌 창업 활성화기반 조성)	- ICT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 문컨설팅(법률·특허·회계), 사업개발 컨설 팅(PMF·마케팅등) 서비스 및 글로벌 사 업기회 발굴 등 지원
	예	기술개 발(R& D)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	- 국내외 시장탐색교육기관과 권역별 실험 실창업혁신단을 통해 창업탐색팀의 창업 탐색교육부터 보육까지 체계적인 창업준 비 지원
	☑️☑️	사업화	글로벌ICT미래유니콘육성 (ICTGROWTH)	- 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지원(보증, 투자 등) 연계 등 종합 지원
	☑️☑️	사업화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DATA-Stars)	- 사업화 지원금, 데이터 특화 프로그램, 데모데이(투자유치) 등 지원
	☑️☑️	사업화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배우처 지원	-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 애로사항(솔루션· 인력레퍼런스) 해소를 위해 전문 민간기

소관부처	대상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기관)과 연계하여 제품 개발·고도화 및 서비스 실증을 바꾸쳐 형태로 지원</li> <li>· (Solution바우처)AI·디지털스타트업(수요기업)의해외시장맞춤형제품개발·고도화를 위한CT전문개발기업(공급기업)활용비용,기술자문등지원</li> <li>· (Reference바우처)AI·디지털스타트업(공급기업)의제품·서비스를지역기업및지역시설(수요기관)</li> </ul>
	예(중) (도)	기술개발(R&D)	딥사이언스 창업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난도 新기술분야의 연구자(기술혁신)-경영자(창업·사업화) 협력형 창업 촉진을 위해 ①창업준비·기획(예비창업팀 구축 및 BM개발), ②기술창업(원천IP 창출 및 창업기업 설립), ③시장지향형R&amp;D(시제품 제작·실증 등) 등 단계적 창업 지원</li> <li>- 지원특징</li> </ul>
	예	기술개발(R&D)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부처 협력 체계 활용 창업유망 기술을 보유한 실험실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창업 프로그램 연계, 사업화R&amp;D, 사업모형 수립 지원 등 실험실창업 지원</li> </ul>
	예(중)	행사·네트워킹	원자력 혁신창업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장관상, 사무총장상) 및 상금, 창업 멘토링, TIPS 추천 기회 등</li> </ul>
	예(중) (도) (신)	기술개발(R&D)	첨단과학기술기업 글로벌 협력 스케일업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li> </ul>
교육부	예(중)	멘토링·컨설팅·교육	학생창업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창업경진대회를 통해 400팀 내외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단계별 교육과정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li> </ul>
국방부	예(중)	사업화	경북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특화 실천형 창업교육, 사업화 지원, 데모데이 개최 등</li> </ul>
	예(중) (도)	사업화	국방기술을 활용한창업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사업청장상,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이전 시 기본기술로 면제,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지원 및 창업 멘토링, 네트워크 지원</li> </ul>
	중(도)	사업화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화 자금(인건비, 재료비, 지재권 취득 비용 등), 창업공간, 창업프로그램</li> </ul>
국토교통부	예(중) (도)	시설·공간·보육	공간정보 창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공간 제공, 컨설팅, 수요처 네트워킹 등 프로그램 지원</li> </ul>
	예(중) (도)	시설·공간·보육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형 사무공간 제공,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기술금융(대출·투자) 연계 등</li> </ul>

소관부처	대상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예(중) 도	사업화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투자유치, 데모데이 개최
	예(중) 도	사업화	농식품 기술평가지원	- 평가수수료의 50 ~ 90% 지원(농식품 기술창업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또는 점수로 평가하여 투자유치/IP담보보증대출/현물출자/저리융자 연계 지원)
	예(중) 도	사업화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
	예(중) 도	멘토링·컨설팅·교육	농식품 벤처창업센터	-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창업자 상담 및 창업지원 연계
	예(중) 도	행사·네트워킹	농식품창업콘테스트	- 시상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후속지원 연계
	예(중) 도	멘토링·컨설팅·교육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농식품 클라우드펀딩 전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현장코칭)클라우드펀딩참여희망업체대상 1:1컨설팅지원 - (컨설팅비용지원)클라우드펀딩참여업체대상회계·법률·홍보컨설팅비용지원 - (수수료지원)클라우드펀딩성공기업대상플랫폼중개수수료지원
	중(도)	사업화	농식품 판로지원	- 온라인 운영매장 및 기획전 추진으로 판로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중(도)	글로벌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	-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등
	예(중) 도	사업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사업화 자금, 교육컨설팅, 협업네트워킹, 홍보 판로개척 등
	중(도)	사업화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 선도기업의 인프라, 노하우 등을 활용한 사업협력 및 사업화 자금지원
	예(중) 도	사업화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 기업지원금,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중(도)	사업화	스포츠산업창업증기(액셀러레이팅)지원	- 기업지원금, 사업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초기·후속 투자 지원, 기업 및 투자자 간 네트워킹 등
	중(도)	사업화	예술기업 성장지원	- 사업화 자금(단계별 차등), 교육·컨설팅·멘토링, 투자유치 등 지원 연계
	예(중)	사업화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사업	- 창업 준비 및 아이디어 구체화,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등
	예(중)	사업화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 (창업보육기관)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소관부처	대상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	비 지원 - (예비창업자)사업화·창업자금지원및맞춤형 멘토링,교육,컨설팅지원등
	☑	사업화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사업화지원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스타트업)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멘토링·컨설팅·홍보등)및사업화자금지원
	☑⑤	사업화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자금, 멘토링·컨설팅·교육, 민간 투자연계 등
법무부	예	글로벌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OASIS)	- 지식재산권 등 소양 교육, 법인설립 지원, 사업화 지원 제공 등
	☑⑤ ⑩	사업화	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 전문 투자기관을 통한 유망 창업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 연계
보건복지부	☑⑤ ⑩	멘토링·컨설팅·교육	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 인 허가 프로세스, 기술문서 작성, GMP 인증, 해외인증, 임상계획 등
	☑⑤ ⑩	멘토링·컨설팅·교육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특허 논문분석, 시장동향, 우회전략, R&D로드맵, 해외출원 전략 등
	예☑	시설·공간·보육	혁신창업 멤버스	- 독립형(1·2인실) 사무공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예☑ ⑤	글로벌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 3.5개월간 정착지원금, 사무공간, 액셀러레이팅, 인턴 등 사업화 지원
	☑⑤	글로벌	K-스타트업 센터 사업	-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현지협업체계 구축 등) 및 입주공간 제공
	☑⑤ ⑩	글로벌	글로벌기업협업프로그램	- ① 사업화 자금, ② 교육, ③ 컨설팅, ④ 홍보·마케팅, ⑤ 판로개척, ⑥ 투자연계 등
	예☑ ⑤	글로벌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운영	- 원스톱 상담창구,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제공
	☑⑤	글로벌	글로벌스타트업육성	- 해외시장검증 프로그램, 글로벌 대기업과의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등 · 글로벌액셀러레이팅:분야별특화프로그램및 액셀러레이팅프로그램제공 · 해외실증(PoC):창업기업의창업아이템현지화및글로벌스케일업지원을위한글로벌대기업과의기술·사업모델검증(PoC)기회제공
☑⑤	글로벌	글로벌 진출 지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 주요 전시·컨퍼런스 참가지원, 콘텐츠 스타	

소관부처	대상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트업 특화 콘퍼런스 및 비즈니스 쇼케이스 개최 등
	예(중)	행사·네트워크	도전! K-스타트업	- 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청장상) 및 상금, 정부지원사업 후속 연계
	중(중)	시설·공간·보육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협업 희망 스타트업에 기술최적화, 글로벌 시장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및 투자·R&D 등 후속 연계 프로그램 지원
	예(중) (중)	사업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브랜딩, 마케팅, 네트워킹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특징
	중(중)	시설·공간·보육	메이커 스페이스	-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역량을 갖춘 3개 이상의 기관(기업) 간 연계·협업(컨소시엄)을 통해 전문 메이커 활동 및 제조창업 촉진 프로그램 지원
	중(중) (신)	사업화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 시제품 제작, 해외진출 및 마케팅, 후속 사업화 자금 등
	예(중) (중)(신)	행사·네트워크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 PoC, MVP 등 협업이 가능하도록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예	인력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 (교육과정)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 금융, 유통, 바이오)에 대한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 지원 (대면, 비대면 과정 운영) *교육기간: 9월3월-11월, 하루 8시간(주말)운영 - (취·창업연계)인공지능분야취·창업진로선택에따른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
	중(중) (신)	멘토링·컨설팅·교육	스타트업 법률지원	-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규제·자금·투자·계약 등 법률상담 *지원한도(안):기업법무,계약법등일반분야(100만원),규제준수,지재권등우선분야(250만원),M&A컨설팅등심화분야(2,000만원,자부담20%)
	중(중)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 지원	- ① 부스 임차, ② 전시회 참가비, ③ 사전교육, ④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예(중) (중)	시설·공간·보육	스타트업파크	-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설계·건축비 지원
	예	사업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소관부처	대상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을 지원
	예(중) 도	행사·네트워킹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 상금 및 시상, 투자 유치 연계, 해외 진출지원 등
	예	사업화	예비창업패키지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시제품제작,마케팅,지식재산권출원·등록등에소요되는사업화자금최대1억원(평균0.5억원)지원 · 창업프로그램:주관기관의강점과특성을반영하여예비창업자를지원하는창업프로그램제공*BM(비즈니스모델)고도화,MVP(시제품)제작지원,창업교육·멘토링,네트워킹등
	예(중) 도	사업화	재도전성공패키지	- 사업화 자금, 교육 및 멘토링, 연계지원(중진공 재창업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예(중) 도	융자	재창업자금	- 융자기간 :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융자한도:(시설)잔액기준60억원이내(지방70억원이내)(운전)연간5억원이내 - 융자금리:정책자금기준금리('24년4분기:2.90%)
	예(중) 도	시설·공간·보육	지역창업특화지원	- 사무공간, 판로개척, 창업교육 및 멘토링
	예(중) 도	융자	창업기반지원자금	- 사업장 매입·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및 원부자재 구입비용·인건비 등 운전자금 융자 지원
	도	사업화	창업도약패키지	- 사업화 지원,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 사업화지원:사업모델및제품·서비스고도화에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도약기창업프로그램(후속투자 연계, 글로벌 시장 확대 등) 지원 · 대기업협업프로그램:사업화지원외에추가적으로협업대기업이운영하는프로그램(교육, 컨설팅,공동사업화등)제공
	예(중) 도·도약기	시설·공간·보육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초기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에게 사업공간 및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보육서비스를 지원
	중(도)	글로벌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 해외진출 집중 지원을 위한 글로벌 5G 프로그램(진출 국가별·단계별 패키지) 지원, 글로벌 사업화 자금(최대 1.5억원) 및 창업 공간 제공 *해외투자유치, 현지시장조사, 현지법인설립,

소관부처	대상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수출,글로벌마케팅지원등
	㉔	사업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 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정책사업 연계 등 종합 연계지원 방식으로 청년의 창업사업화 One-Stop 패키지 지원시스템 운영
	㉔㉕	기술개발(R&D)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다양한 분야의 혁신역량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5년, 2억원) - (TIPS)액셀러레이터등TIPS운영사가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함께 기술개발을 지원(일반 : 2년 5억원, 글로벌 : 3년 12억, 특화형 : 3년 15억원)
	예㉔㉕ ㉕	시설·공간·보육	창업존	- 보육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 운영, 인프라 시설지원 등
	예㉔ ㉕	사업화	창업중심대학	-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예㉔ ㉕	시설·공간·보육	창조경제혁신센터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설명회,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개척, 글로벌진출 등 지원
	예	멘토링·컨설팅·교육	청소년 비즈쿨	- 비즈쿨학교 지정·운영, 비즈쿨 캠프·체험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등
	신	시설·공간·보육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	- 사업화 자금 지원, 기술개발·정책자금·기술보증 등 연계·우대 지원
	㉔	시설·공간·보육	초기창업패키지	-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자금:시제품제작,마케팅,지식재산권출원·등록등에소요되는사업화자금최대1억원(평균0.7억원)지원 · 창업프로그램:시장진입,초기투자유치,실증검증등의주관기관별특화분야및전문성을반영한초기창업기업맞춤형창업프로그램제공
	예㉔ ㉕ 신	행사·네트워킹	컴업(COMEUP) 2025	- 국내 우수 스타트업이 해외 유망한 VC 및 창업생태계 관계자를 통해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신	사업화	특화창업패키지 지원	- 지역의 유망한 스타트업 대상 교육·멘토링·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지원
통일부	예㉔ ㉕	멘토링·컨설팅·교육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창업, 재무, 경영, 마케팅, 정부지원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진행
	㉔㉕	사업화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 집기비품,

소관부처	대상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사업	홍보비, 타이어, 적재함 등
	예(중) 도	사업화	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 생활밀착형 업종 현장실습 및 소규모 신 규 창업 재정지원
특허청	중(도) 신	멘토링 · 건설 팅· 교 육	IP나래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IP 기술·경영 컨설팅 제공
	예	멘토링 · 건설 팅· 교 육	IP디딤돌 프로그램	- 예비창업자의 우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IP) 기반 사업아이템으로 고도화하고, 창 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IP 컨설 팅 지원
해양수산부	예(중)	멘토링 · 건설 팅· 교 육	해양수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 및 우수 중소·벤 처기업 발굴·육성, 해양수산 창업기업 인 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과 사업화 자금 지원
	예(중) 도	행사·네 트워킹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 사업화 분야(창업 7년 이내 기업)와 아이 디어 분야(전 국민)로 이원화하고, 학생 참여 독려를 위해 아이디어 분야를 학생 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
환경부	예(중) 도	행사·네 트워킹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	- 사업화 지원금,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예(중) 도	사업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창업자금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등)
	예(중) 도	행사·네 트워킹	환경창업대전	- 상금 108백만원, 수상자 창업벤처녹색융 합클러스터 입주 시 가점 부여, 에코스타 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창업 멘토링 등 추가 후속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기준 : '25.5.4.)

주) 예) 예비창업, 중) 창업초기, 도) 창업도약기, 신) 신산업

## 2. 전북 창업지원 기관 현황

- 전북 내 창업지원 기관은 총 53개소로 중앙 및 지역과 연계한 기관 38개소, 대학 운영 기관 15개소가 운영 중임
  - 중앙과 연계한 기관은 총 20개 소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있으며, 타 지역과 달리 국가출연연구기관 분원이 입지하고 있어 출연연구기관 특성을 담은 기술 기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과 연계한 기관은 총 18개 소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등 특정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특색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대학 내 창업지원 기관은 총 15개소로 전북대학교에서는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희망 전북 POST 창업보육센터 등 세 개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 지역 대학이 연합해 설립한 기술주주회사가 운영되고 있음

[표] 전북자치도 내 창업지원 기관 현황

유형		창업지원 기관		
기관 (38개소)	중앙연계 (20개소)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KIST 전북분원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융합뉴팜소재 창업보육센터) - 한국전통문화전당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실) - 신용보증기금 - 전북연구개발특구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농촌진흥청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에코인쇄전자창업보육센터	- 전북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 기술보증기금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캠틡종합기술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전북센터
	지역연계 (18개소)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자동차융합기술원 -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 익산창업보육센터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 전북신용보증재단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바이오플렉스 창업보육센터)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발전협의회 - 군산시 청년들 - 익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 전북지식재산센터 -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에코파이버 창업보육센터) - 전북여성가족재단 -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 전주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대학 (15개소)	- 원광대학교 창업지원단 - JB기술지주 - 우석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전주비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 군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한국농수산업대학 창업보육센터 - 희망 전북 POST 창업보육센터	

자료 : 전북창업정보온라인서비스('25.5.2 기준)

기획연구 2025-07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

발행인 | 장성화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

ISBN 978-89-6612-620-0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고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영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의학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http://www.jthink.kr)

